

한라산총서 개정증보판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6-01

한라산총서 8

한라산의 하천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2020)

채기선 | 蔡基善, Chae Ki-seon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논문: 한라산 형상의 심상표현연구)

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像-한라산'(국립현대미술관)

주요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라의 봄, 100호)
수원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서울지법 고양지원 (한라산, 300호)
제주도 문화진흥원(법섬, 20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산, 1000호)
제주KCTV방송국 (일출봉, 200호)
한라병원(십지코지의 아침, 1000호)
서울지방법원 (한라산, 300호, 150호)
한라일보사 (한라산, 300호)
기담미술관 (한라산 영원의 빛, 50호)
KBS 제주방송총국 (한라산 영원의 빛, 500호)
제주도립미술관 (마음의 풍경-한라산, 300호)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100호 한라산)

MONO12023000004042

915.1985 -23-10

한라산총서 8

한라산의 하천

0002959386



2023.02.13(기증)

인쇄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디자인·인쇄 디자인리더제주 (064-746-0775)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6-01

ISBN 979-11-977355-7-8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자료 중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복제할 경우 사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064-710-2752)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064-757-1008)

목 차

제1장 한라산 하천의 자연적 특성

1. 한라산 하천의 분포.....	13
2. 한라산 하천의 유출	20
하천 유출의 발생과정.....	20
한라산에서의 하천 유출	23
해안 및 중산간 지역의 하천 유출	27
3. 한라산 하천의 지형.....	29
하도 및 하계 특성	29
침식지형	33
퇴적 및 습지지형	39

제2장 한라산의 주요 하천

1. 한라산과 하천	47
2. 제주시의 주요 하천.....	50
광령천(무수천)	50
병문천	53

한천	57
화북천	62
산지천	66
금성천	70
용포천	75
3. 서귀포시의 주요 하천	80
효돈천	80
동홍천	86
연외천	90
도순천	94
증문천	100
천미천	104
서중천	109
신례천	114
창고천	119

제3장 하천과 마을

1. 광령천(무수천)	128
해안동(海安洞)	128
사라마울(광령리(光令里)·도평동(都坪洞))	130

도평동(都坪洞)	133
외도동(外都洞)	134
내도동(內都洞)	136
2. 병문천	138
오등동(吾等洞)	138
오라동(吾羅洞)	139
삼도동(三徒洞)	141
용담동(龍潭洞)	142
3. 화북천	145
화북동(禾北洞)	145
4. 산지천	150
건입동(健入洞)	150
일도동(一徒洞)	152
아라동(我羅洞)	153
월평동(月坪洞)	154
영평동(寧坪洞)	156
5. 천미천	157
교래리(橋來里)	157
대천동(大川洞)	159
성읍리(城邑里)	160

신평리(新豊里)	163
신천리(新川里)	164
하천리(下川里)	165
6. 효돈천	167
신평동(新孝洞)	167
하효동(下孝洞)	169
하례리(下禮里)	171
토평동(吐坪洞)	172
상효동(上孝洞)	174
법호촌(法護村)	175
입석동(入石洞)	177
7. 동홍천	178
동홍동(東烘洞)	178
8. 연외천	180
서홍동(西烘洞)	180
호근동(好近洞)	181
서귀동(西歸洞)	182
정방동(正房洞)	183
천지동(天地洞)	184
송산동(松山洞)	184
중앙동(中央洞)	185

9. 도순천	187
하원동(河源洞)	187
도순동(道順洞)	189
강정동(江汀洞)	190
10. 중문천	192
중문동(中文洞)	192
11. 창고천	194
봉성리(鳳城里)	194
광평리(廣坪里)	195
상예동(上猊洞)	196
화순리(和順里)	198
감산리(柑山里)	199
창천리(倉川里)	201
대평리(大平里)	202

제4장 하천 유역의 문화유적

1. 산지천	208
2. 효돈천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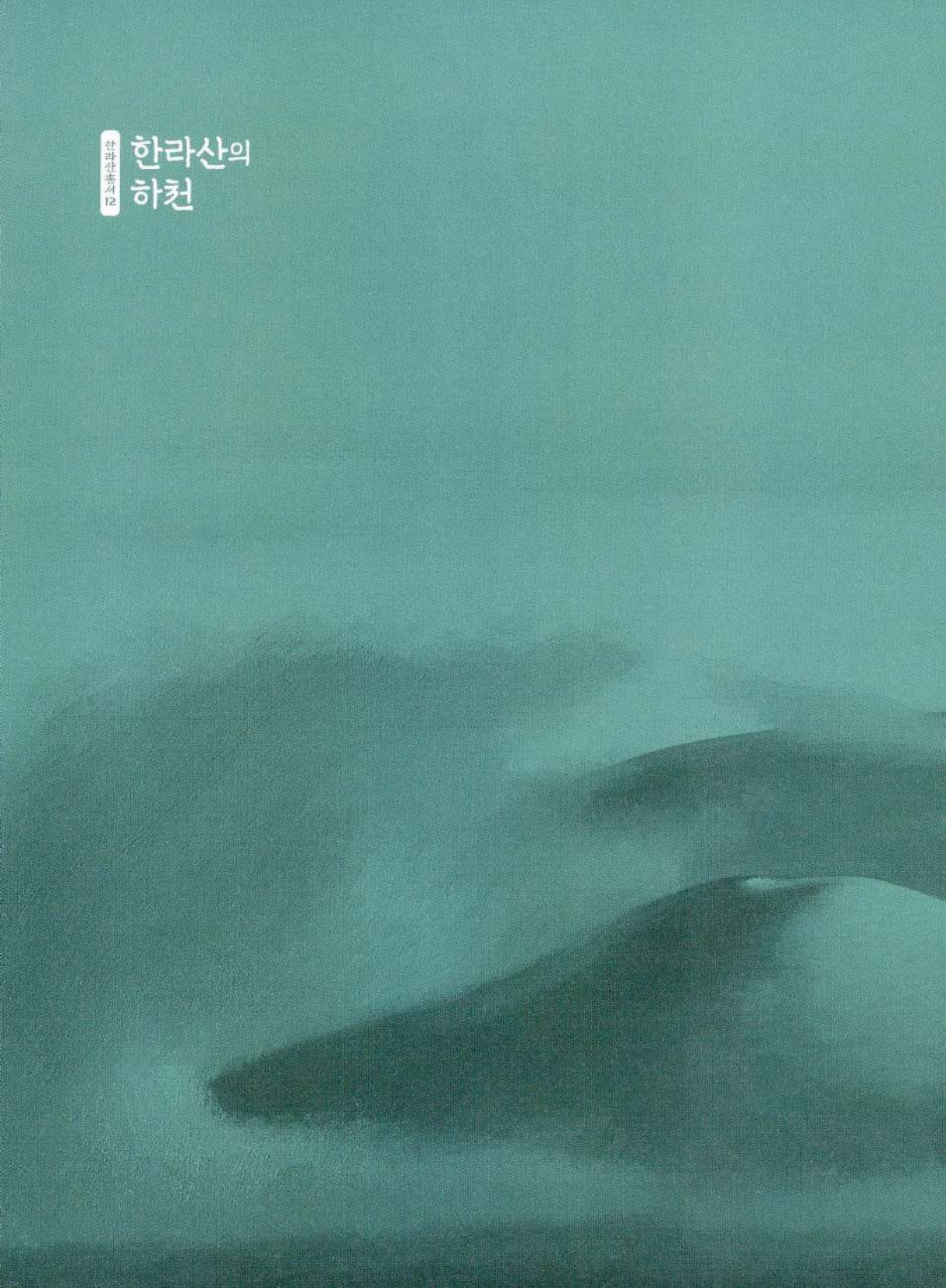
3. 천미천	215
4. 창고천	218
5. 한천	221
6. 금성천	225
7. 연외천	228
8. 도순천	230

제5장 삶의 공간으로서의 하천

1. 생활공간으로서의 하천	240
바위그늘 집터	240
감산천의 수로	241
생활용수	241
2. 유희적 공간으로서의 하천	243
한천 용연-병담범주(屏潭泛舟)	243
방선문-신선, 기생과의 놀이	246

정소암 화전놀이	249
3. 신앙적 공간으로서의 하천	250
효돈천의 신앙	250
감산천의 신앙	253
4. 창조공간으로서의 하천	255
방선문의 마애시	255
전설의 창조	258
색인.....	262

한라산의 하천



제 1 장

한라산 하천의

자연적 특성



여 백

1. 한라산 하천의 분포

하천은 구배를 가진 일정한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하천의 물길은 하도라고 부른다. 하천은 지표에 떨어진 빗물이 모여 흐르면서 지표를 침식시키고, 침식된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하도의 바닥과 측면에 있는 물질을 침식시키고 모래와 자갈 등의 물질을 운반하며, 하류역에서 이들 물질을 퇴적시킨다. 하천은 강우에 의한 지표침식과 침식물질의 운반과 퇴적에 의해 형성되므로 지형, 지질, 식생, 토양의 특성에 따라 하천의 형태와 분포 등이 결정된다.

제주도에는 길이가 다양한 여러 하천이 분포한다. <그림 4-1>은 인공적인 배수로가 많이 설치되기 이전인 1990년대에 제작된 국가수치기본도로 작성한 제주도 하천의 분포도이다. 국가수치기본도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총 하천길이는 1,907km이다(제주도, 1997). 이 가운데 실폭 하천은 4.5%인 86.3km, 세류는 32.9%인 626.5km, 건천은 62.6%인 1,194.3km로 분석되었다.

제주도에는 하천길이가 비교적 긴 지방하천이 60개 분포하며, 이 가운데 26개 하천이 제주시, 34개 하천이 서귀포시에 각각 분포한다(국토교통부, 2020). 하천 구간 중점에서 최상류지점인 발원지(시점)까지의 거리를 유로연장이라고 하는데, 60개 지방하천의 총 유로연장은 801.49km이다. 하천법령에 의해 지정된 하천 기점과 종점과의 거리는 하천연장이라고 하는데, 지방하천의 총 하천연장은 616.48km이다. <그림 1-2>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망도로 작성한 제주도의 지방하천 구간이다. <표 1-1>에 지방하천의 유로연장, 유역면적, 시점과 종점 등을 수록하였다. 제주시 동쪽의 삼수천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천을 배열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소하천은 전부 82개로 제주시에 35개, 서귀포에 47개 하천이 각각 분포한다(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2013). 소하천으로 지정된 총 하천연장은 225k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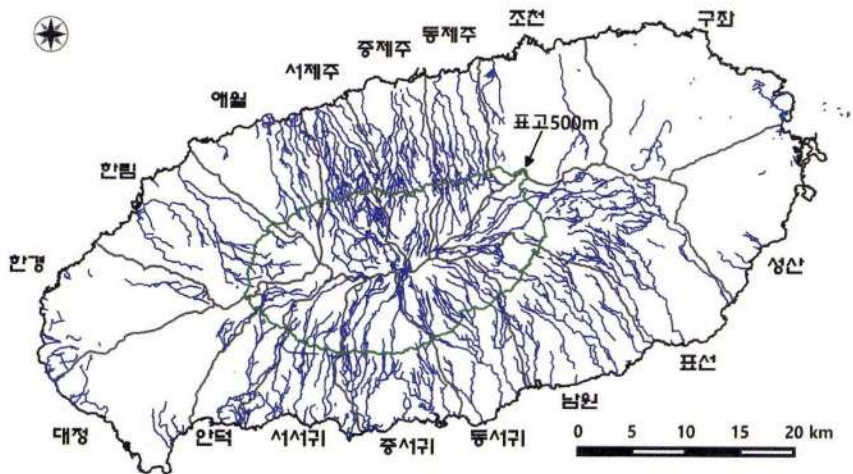


그림 1-1. 제주도의 하천과 16개 구역 분포 • 회색 선은 구역의 경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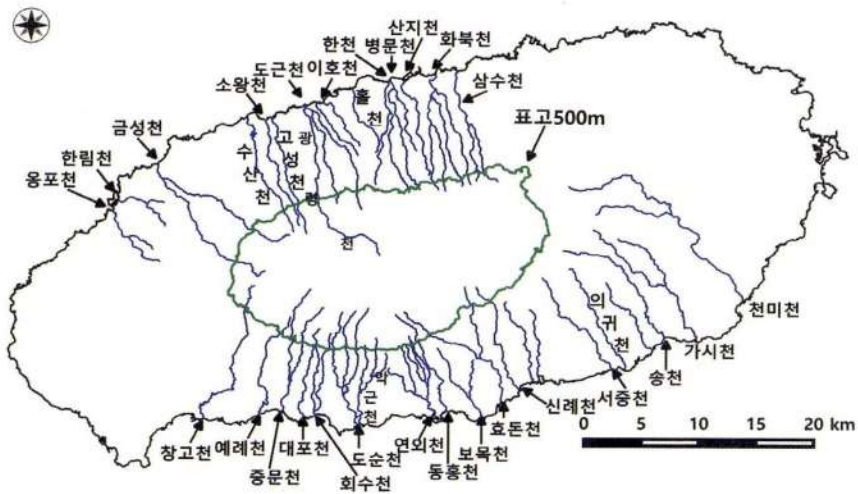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도의 주요 하천(지방하천 구간)

제주도의 하천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림 1-1>과 같이 제주도를 16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수자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부지역의 조천유역, 구좌유역 및 성산유역과 서부지역의 한정유역과 대정유역에는 하천이 거의 없는 반면 북부와 남부지역에는 하천이 밀집되어 있어 뚜렷한 분포차를 보이고 있다.

하천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하천밀도가 있다. 유역 내 본류와 지류를 합한 총 길이를 유역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하천밀도를 비교하면, 제주도 북부 유역(서제주, 중제주 및 동제주)과 남부 유역(서서귀, 중서귀 및 동서귀)의 하천밀도는 0.19~0.27로 높게 나타난다(제주도, 2013). 하천밀도가 0.1 이하인 유역은 서부유역의 한림(0.0906), 한경(0.0355), 대정(0.0399)과 동부유역의 구좌(0.0245)와 성산(0.0283) 그리고 북부유역의 조천(0.0497)이다.

표 1-1. 제주도 지방하천 현황

하천명	분류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 ²)	종점하폭 (m)	시점		종점	
					시	읍면동	시	읍면동
삼수천	삼수천	14.00	18.65	42	제주	용강	제주	삼양
대룡소천		9.00	3.70	16	제주	용강	제주	봉개
화북천	화북천	20.06	50.80	50	제주	양평	제주	화북
방천		16.37	22.67	49	제주	영평	제주	화북
조천		12.00	5.50	23	제주	아라	제주	아라
부록천		12.32	9.44	36	제주	용강	제주	화북
산지천	산지천	13.47	11.69	54	제주	아라	제주	건입
병문천	병문천	19.48	22.68	74	제주	오라	제주	용담
독사천		7.25	5.90	42	제주	오라	제주	삼도
한천	한천	20.18	36.69	41	제주	오라	제주	용담
토천		10.03	6.80	8	제주	오라2	제주	오라
흘천	흘천	7.30	5.00	13	제주	오라	제주	도두

하천명	분류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 ²)	종점하폭 (m)	시점		종점	
					시	읍면동	시	읍면동
이호천	이호천	8.11	5.02	19	제주	노형	제주	이호
원장천	원장천	8.20	3.89	100	제주	노형	제주	이호
도근천	도근천	15.71	75.08	193	제주	해안	제주	해안
어시천		13.81	10.27	23	제주	해안	제주	외도
광령천		18.70	12.00	64	제주	외도일	제주	외도일
고성천	고성천	13.25	12.52	18	제주	애월	제주	애월
소왕천	소왕천	13.83	10.26	35	제주	애월	제주	애월
수산천	수산천	13.67	20.11	19	제주	애월	제주	애월
금성천	금성천	20.14	70.47	82	제주	애월	제주	애월
어음천		15.80	26.93	29	제주	애월	제주	애월
한림천	한림천	12.28	27.14	40	제주	한림	제주	한림
귀덕천		8.92	11.68	18	제주	한림	제주	한림
용포천	용포천	15.56	23.29	42	제주	한림	제주	한림
문수천		5.62	2.95	14	제주	한림	제주	한림
창고천	창고천	23.35	46.36	70	서귀포	안덕	서귀포	안덕
예래천	예래천	14.88	16.02	45	서귀포	색달	서귀포	상예
중문천	중문천	13.00	25.93	66	서귀포	색달	서귀포	중문
색달천		13.00	17.80	39	서귀포	중문	서귀포	중문
대포천	대포천	8.32	4.39	9	서귀포	중문	서귀포	대포
회수천	회수천	11.07	10.64	64	서귀포	대포	서귀포	대포
동회수천		9.99	4.94	20	서귀포	대포	서귀포	하원
도순천	도순천	17.85	38.70	51	서귀포	하원	서귀포	강정
고지천		11.50	11.56	38	서귀포	강정	서귀포	도순
궁산천		14.74	9.46	30	서귀포	도순	서귀포	강정
악근천	악근천	16.17	21.74	65	서귀포	강정	서귀포	강정
영남천		6.00	5.54	10	서귀포	영남	서귀포	강정
세초천		8.50	1.56	17	서귀포	영남	서귀포	강정
연외천	연외천	11.12	21.11	77	서귀포	서홍	서귀포	서귀
서홍천		4.34	1.25	10	서귀포	서홍	서귀포	서홍
생수천		7.723	2.66	23	서귀포	서홍	서귀포	서홍

하천명	분류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 ²)	종점하폭 (m)	시점		종점	
					시	읍면동	시	읍면동
호근천	연외천	8.57	10.11	23	서귀포	호근	서귀포	서흥
원제천		5.00	4.61	25	서귀포	호근	서귀포	호근
동홍천	동홍천	12.10	9.16	34	서귀포	동홍	서귀포	서귀
보목천	보목천	9.00	13.83	15	서귀포	상호	서귀포	보목
상호천		7.00	3.79	14	서귀포	상호	서귀포	토평
효돈천	효돈천	15.74	48.54	67	서귀포	상호	서귀포	하효
영천		13.37	19.33	21	서귀포	상호	서귀포	상호
신례천	신례천	17.35	27.54	72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종남천	종남천	10.20	7.68	21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전포천	전포천	7.70	6.99	17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서중천	서중천	22.43	31.20	28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의귀천	의귀천	18.05	35.39	68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신흥천	신흥천	10.57	15.98	46	서귀포	남원	서귀포	남원
송천	송천	19.55	26.20	32	서귀포	표선	서귀포	표선
가시천	가시천	20.19	36.12	38	서귀포	표선	서귀포	표선
안좌천		12.67	14.12		서귀포	표선	서귀포	표선
천미천	천미천	40.56	128.36	60	서귀포	조천	서귀포	조천
진평천		15.32	28.72	30	서귀포	표선	서귀포	표선

출처: 국토교통부(2020) 한국하천일람(2018. 12. 31. 기준)

하천밀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반암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 침식에 강한 경암이나 투수율이 높은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저밀도 하계가 발달한다. 이는 하천이 하도를 파고 유지하려면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므로 강수의 집수면적이 넓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암석의 투수율이 극히 낮으면 강수량의 대부분이 단시간에 지표수로 유출되므로 비교적 고밀도의 하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권혁재, 1999).

제주특별자치도(2013)에 제시된 암상에 의한 수리지질 단위를 보면, 하천 발달이 미약한 동부와 서부지역은 투수성이 큰 현무암류가 넓게 분포하며, 하천이 잘 발달한 북부와 남부지역은 현무암류보다 투수성이 작은 조면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또한 동부와 서부지역은 강우를 지하로 잘 통과시키는 투수성 지질구조로 알려진 곳 자왈이 다른 지역보다 넓게 분포한다.

지형을 보면 하천이 밀집한 북부와 남부지역은 지표경사가 가파르며, 하천이 거의 없는 동부와 서부지역은 완만한 특징을 보인다. 하천을 형성하는 지표면 침식의 에너지는 수리경사에 비례하는데, 수리경사는 지표경사에 비례한다. 따라서 지표경사가 상대적으로 큰 북부와 남부지역은 지형적으로 하천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제주도 하천은 한라산 정상과 해안까지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천의 유로연장이 짧고, 하천에 물을 공급하는 유역면적이 작은 특징을 보인다. <표 1-2>와 <표 1-3>은 각각 국토교통부(2020) 자료로 작성한 지방하천의 유로연장과 유역면적이다. 지방하천 60개 가운데 유로연장이 10km 이하인 하천은 18개, 10~15km 범위의 하천은 22개, 15~20km 범위의 하천은 13개로 대부분의 하천이 유로연장 20km를 넘지 않는다. 천미천을 비

표 1-2. 제주도 지방하천의 유로연장

유로연장	하천 수
5km 미만	2
5~10km	16
10~15km	22
15~20km	13
20~25km	6
40.56km	1
계	60

표 1-3. 제주도 지방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천 수
10㎞ 미만	21
10~20㎞	16
20~30㎞	12
30~40㎞	5
40~50㎞	2
50~60㎞	1
70~80㎞	2
128.36㎞	1
계	60

못하여 화북천, 한천, 금성천, 창고천, 서중천, 가시천 등 7개 하천만이 20km 이상의 유로연장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은 한라산의 동쪽으로 흐르는 천미천으로 유로연장이 40.56km에 달한다.

60개 지방하천의 총 유역면적은 1,218.46㎢이다. 이 가운데 37개 하천은 유역면적이 20㎢를 넘지 않으며, 20~40㎢ 범위의 하천도 17개로 나타나 전체 하천의 90%가 유역면적 40㎢를 넘지 않는다. 유역면적 40~80㎢ 범위에 속하는 하천은 창고천(46.36㎢), 효돈천(48.54㎢), 화북천(50.80㎢), 금성천(70.47㎢), 도근천(75.08㎢) 등 5개에 불과하다. 유역면적이 가장 큰 하천은 천미천으로 128.36㎢에 달해 제주도 하천 가운데 유일하게 유역면적이 100㎢를 넘는다.

2. 한라산 하천의 유출

제주도 하천 구간의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많은 양의 강우가 발생할 때는 강우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어 1~5일 정도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연중 물이 흐르는 상시하천 구간으로는 도근천 지류인 광령천 상류에 위치한 어리목 계곡과 효돈천 지류인 영천의 돈내코계곡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도근천, 옹포천, 창고천, 중문천, 강정천, 연외천과 같은 하천의 해안 인근 구간도 상시하천 구간이다.

하천 유출의 발생과정

하천 유출은 유역에 내린 비와 눈이 지표류, 중간류, 지하수흐름의 형태로 하천으로 이동하여 하천을 따라 표고가 낮은 유역 밖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다.

강우는 식물이나 건물 등의 표면을 적신 후에 그 일부가 토양 표면을 침투하여 지하로 이동하게 된다. 강우 중에서 토양으로 침투되는 양을 가리키는 침투율은 토지 피복 상태, 토양의 물리적 특성과 수분량, 강우의 강도 및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질 토양의 산림에서는 시간당 25mm가 침투될 수 있지만 점토질 토양의 산림에서는 침투율이 시간당 수 mm에 불과하다. 사질 토양이라도 농경지로 이용되는 경우 침투율이 산림지역보다 작아진다.

단위시간당 강우량인 강우강도가 침투율보다 높은 경우 강우 일부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못하고, 경사진 토양 표면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러 하천으로 이동하는 지표흐름의 일종인 호튼(Horton) 지표류가 발생한다. 하천 부근 토양이 침투된 물에 의해 포화되고, 포화대의 수위가 토양 상부 표면까지 상승하게 되면 강우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 침투되지 못한 물은 포화지표류의 형태로 하천으로 이동한다.

토양에 침투된 물의 일부는 투수성이 작은 토양 층위 또는 토양과 암반의 경계면에 축적되어 일시적인 포화대를 형성한다. 경사진 사면에서는 포화대의 물이 하천으로 이동하는 중간류(지표하류라고도 함)가 발생한다(그림 1-3).

그림 1-3. 한라산 1100고지에서 중간류로 이동한 물이 유출되는 지점(2018. 06. 09.)



한편, 토양에 침투된 물의 일부는 증발산이 발생하는 식물뿌리지대를 통과한 후에 지하로 계속 이동하여 지하수가 부존되어 있는 포화대인 대수층에 도달하게 된다. 대수층에서 지하수는 표고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하천, 용천, 바다로 유출된다. 바다로 유출된 물은 증발되어 최종적으로 대기로 이동하게 된다. 하천 유출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런 물순환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하천을 통한 물의 유출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구분한다. 직접유출은 강우 후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지표류, 중간류, 하도에 내린 강우에 의한 유출이다. 기저유출은 강우 후에 시간적으로 지연된 유출로 지하수흐름에 의한 유출을 가리킨다.

제주도 하천 구간의 대부분이 평상시에 건천인 이유는 하천으로 연중 물을 공급하는 기저유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천 구간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강우가 내릴 때에만 지표류나 중간류의 유출에 의해 하천으로 물이 공급된다. 건천 구간에는 하천과 비슷한 표고에 지하수 대수층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으로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하에 투수성이 양호한 화산암이 분포하여 하천 부근에 부유지하수 형태의 대수층이 형성되지 않고, 하천보다 더 깊은 지하에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및 상위지하수 형태의 대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 부근에서는 하천과 비슷한 표고에 위치한 대수층에서 하천으로 지하수가 공급되어 연중 물이 흐르는 상시하천 구간이 출현한다.

하천 유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는 선행강우량, 강우 특성, 토양 특성, 토지 피복 상태 등이 있다. 강우 특성으로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빈도 등이 있고, 토양 특성으로는 침투율, 토양과 기반암 사이 두께, 토양의 수분 보유 특성 등이 있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30년간(1986~2015년) 자료로 계산한 연강수량은 1,299.7mm이다(국토교통부, 2016). 강수량은 지표에 내린 눈과 비의 양, 즉 적설량과 강우량을 합한 양이다. 제주도의 20년간(1998~2017년) 자료로 계산한 연강수량은 2,162mm이다(제주도, 2018). 자료의 기간

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주도의 강수량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1.6배 정도 많다. 제주도에서는 표고가 높아질수록 강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고 500m 이상 한라산 지역은 표고가 낮은 해안이나 중산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강수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유출량을 계산하는 미국 SCS 유출곡선지수법에서 직접유출량을 발생시키는 정도는 토지피복과 토양에 의해 결정된다. 한라산의 주요 식생인 산림은 직접유출량을 적게 발생시키는 토지피복에 해당한다. 이 방법에서 토양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한라산에는 침투율이 커서 직접유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토양유형(A형과 B형)이 주로 분포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3).

한라산은 강수량이 많고 강수강도가 크기 때문에 강수 측면에서 보면 강수량 대비 하천 유출량의 비율인 유출률이나 유역 단위면적당 유출량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부분 산림인데다 토양 침투율이 크기 때문에 토지피복과 토양 특성 측면에서 보면 강수량 대비 유출률이 작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한라산에서의 하천 유출

한라산의 하천 구간 대부분은 직접유출에 의해 하천으로 물이 공급되므로 많은 강우가 발생할 때에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연중 물이 흐르는 상시하천 구간은 광령천 상류 어리목계곡과 도순천 상류 영실계곡이 대표적이다.

한라산에서의 하천 유출은 광령천, 천미천 및 한천 상류에서 조사되었다. 한라산 만세동산 부근 표고 약 1,600m의 1차수 유역에서 관측한 결과를 보면, 유역에 발생한 강우에 의해 형성된 호튼형 지표류나 포화지표류가 주로 우곡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김태호·다나카, 2004). 이 관측유역은 광령천 최상류에 위치하며, 제주조릿대와 초본류가 우점한 소유역이다.

유출의 시간적 특성과 토양 포화대의 수위 등을 분석한 결과 우곡으로 물을 공

급하는 강우유출은 호튼형 지표류나 포화지표류와 같은 빠른 유출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157일의 관측기간(2004년 4월~9월) 동안 발생한 강우량은 3,074mm이며, 이 가운데 27.6%인 850mm가 유역에서 하천으로 흘러나갔다. 관측기간에 하천 유출은 74일간 발생했으며, 1일 유출량은 0.02~92.4mm이었다. 강우량의 14.2%(437mm)에 해당하는 물이 대기로 증발산되었고, 58.2%(1,790mm)가 기반암을 통과하여 지하로 이동하였다(안중기·김태호, 2006).

어승생오름의 침식곡에서는 빠른 유출보다 기저유출에 의해 하천에 물이 공급되고 있다. 이곳은 광령천 상류에 위치하며, 서어나무와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유역 면적 5.1ha의 소유역이다. 관측기간(2007년 4월~11월) 내내 유출이 발생했는데, 기저유출은 4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가 10월 이후에 감소하였다. 관측기간의 총 강우량(3,128.5mm)에서 빠른 유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태풍 나리에 따른 호우로 관측이 일시 중단되었던 9월 13일까지 137일 동안 유역에서 발생한 강우량은 총 2,053mm이며, 20.7%에 해당하는 424.9mm가 유역에서 하천으로 흘러나갔다. 강우량의 23.4%(480.8mm)에 해당하는 물이 증발산되었고, 55.9%(1,147.3mm)에 해당하는 물이 기반암을 통과하여 지하로 이동하였다(안중기·김태호, 2008).

어승생오름 부근에 위치한 어리목계곡은 광령천 상류의 하천 구간으로 강우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도 물이 흐르는 상시하천 구간이다. 하천 인근 절벽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물은 강우가 지하에 침투하여 형성된 지하수의 일종이다. 어리목계곡 등을 통해 상시 흐르는 물은 어승생저수지에 집수된 후에 증산간 지역의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한라산 서산록의 1100고지습지 가운데 제주시 구역에 위치한 습지는 하천 유로에 형성된 습지이다. 광령천 상류의 하천 구간에 해당하며, 습지를 함양하는 유역 면적은 0.153km²이다. 수위를 관측한 총 145일 동안(2018년 5월~10월) 2,804mm의 강우가 발생했으며, 이 기간에 하천 유출은 11회 발생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하천 유출은 강우 중에 또는 강우 종료 2~3시간 이내에 발생했으며, 강우 종료 1~2일

동안 지속되었다. 관측기간에 수위는 하상 퇴적층 위로 최대 31cm까지 상승하였다. 하도에는 치밀한 점성토층이 분포하여, 제주도의 다른 하천과 달리 물이 장기간 저류되고 초본류가 생육하는 독특한 수문경관을 형성한다(그림 1-4).

그림 1-4. 광령천 상류 1100고지습지에서서의 하천 유출(2013. 02. 0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4)는 한라산 동산록의 천미천 상류에서 발생한 하천 유출량을 교래4교에서 관측하였다. 교래4교 기준으로 유역면적은 30.4km²이며, 유역의 주요 토지피복은 산림이다. 약 6년 3개월의 관측기간(2008년 3월~2014년 6월)에 하천 유출은 총 61회 발생했으며, 하천 유출의 지속시간은 2일 이내로 짧았다. 대부분 유역 평균강수량이 80mm를 넘는 경우에 하천 유출이 발생하였다. 관측기간 중 유역 평균강수량의 0.1~46.7%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그림 1-5).

그림 1-5. 천미천 상류 교래4교 지점의 하천 유출(2008. 08. 22)



한천 상류에 위치한 탐라교에서 1990~1992년 동안 관측된 하천 유출 결과에 의하면 연강우량은 3,328mm이며, 이 가운데 20.7%가 하천을 통해 유출되었다(제주도와, 1993). 적은 비가 내리는 평상시에는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2~5일간 유출이 발생했으며, 강우량이 많은 6~9월에 주로 발생하였다.

해안 및 중산간 지역의 하천 유출

해안 및 중산간 지역은 농경지와 시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라산보다 크고 토양의 침투율이 작기 때문에 강수량 대비 유출률이나 유역의 단위면적당 직접유출량이 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하천 유출은 한라산에 비해 많이 조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요약하였다.

북부지역의 한천과 남부지역의 강정천, 연외천, 중문천, 창고천의 해안 부근에서 2001~2002년 관측된 하천수위에 근거하면 하천 유출은 대체로 강우량이 40mm 이상일 때 발생했으며, 하천 유출이 지속된 기간은 2~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2003). 또한 문덕철 외(2005)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북부지역의 외도천, 서부지역의 용포천, 남부지역의 강정천과 연외천의 해안 부근에서 관측된 하천수위를 분석하였다. 홍수 유출은 강우가 집중되는 5~9월의 하절기에 주로 발생했으며, 2003년에 발생한 홍수 유출은 11~14회였다. 홍수 유출의 지속시간은 평균 8~46시간이었다.

천미천 중류에 위치한 성읍3교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하천 유출은 2009년 4회, 2010년 9회, 2011년 8회로 3년간 총 21회 발생하였다. 하천 유출의 지속기간은 1~4일간이었다. 관측기간에 평균강우량 60.5~275mm인 강우가 21회 발생했으며, 강우량의 16.7~42.7%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김재방, 2012).

양성기·김동수(2015)는 북부지역의 화북천, 한천, 병문천, 광령천과 동부지역의

천미천에서 태풍 등에 의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유출량을 CCTV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화북천 별도교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회 발생했으며, 평균강우량 73.5~340.8mm의 6.5~31.4%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한천 한천교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회 발생했으며, 평균강우량 82.6~802.1mm의 13.5~45.4%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병문천 오봉교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9회 발생했으며, 평균강우량 78~678.5mm의 3.1~27.1%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광령천 외도정수장 부근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9회 발생했으며, 평균강우량 74~910.4mm의 10.3~45.8%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천미천 성읍교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회 발생했으며 평균강우량 53.7~432.9mm의 9.7~34.2%에 해당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었다.

3. 한라산 하천의 지형

하도 및 하계 특성

하천은 하도의 구성물질에 근거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하도가 기반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암반하천으로, 자갈이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자갈하상하천과 모래하상하천으로 부른다. 동일한 하천일지라도 구간에 따라 하도 구성물질이 다르므로 하천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 상류역에서는 하상과 하안에 기반암이 드러나므로 암반하천의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하류로 내려갈수록 하도 구성물질이 세립화되어 중하류역에서는 자갈하상하천으로, 더 하류역에서는 하상이 모래로 덮여있는 모래하상하천으로 변화한다.

암반하천은 주로 상류역에 출현하므로 산지하천이라고도 불려 중하류역에 출현하는 충적하천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하천은 대부분 산지하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해안 지역에 놓인 최하류역에서도 하상과 하안에 기반암이 드러난 하도가 출현하므로 제주도 하천은 전 구간이 산지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한반도의 하천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그림 1-6). 하천 구간에 따라서는 하상이 자갈로 덮여있는 자갈하상하천도 출현하나 이런 구간은 하류로 길게 이어지지 않으며, 하상을 덮고 있는 퇴적물이 많지 않은 탓에 하상 도처에 기반암도 드러나 전체적으로 산지하천의 성격이 강하다(그림 1-6).

위치에너지가 큰 상류역을 흐르는 산지하천은 하방침식을 활발하게 진행하므로 깊은 V자형의 단면을 지닌 협곡을 만들기 쉽다. 한라산에서도 한천의 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 광령천의 Y계곡과 천아계곡, 효돈천의 산벌른내와 서산벌른내 등 도처에 협곡이 발달한다. 협곡지대에는 곡벽에서 떨어진 대형 암괴들이 하상을 덮고 있는 장소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수직절리가 발달한 층상구조의 용암류가 곡벽을



그림 1-6. 효돈천 최하류역의 기반암 하도(좌)와 한천 중류역의 자갈과 기반암이 혼재하는 하도(우)



그림 1-7. 광령천 천아계곡의 거대 암괴로 덮여 있는 하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절리를 따라 분리된 암괴들이 하상에 떨어져 쌓인 결과이다. 특히 거대 암괴가 떨어진 장소에는 이들 암괴와 상류에서 내려온 암괴가 뒤엉켜 암괴더미를 만들어 암괴하상하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그림 1-7).

한라산 하천의 하도 가운데 병문천이 흐르는 구린굴 구간은 제주도 하천의 유로 발달과 관련하여 눈길을 끈다(그림 1-8). 한라산 북사면에 소재하는 구린굴의 천장이 함몰되고, 동굴 지상을 흐르던 병문천이 동굴 안으로 유입되면서 442m 길이의 구린굴 가운데 73m 구간이 유로로 바뀐 곳이다. 구린굴 유로의 평균 폭과 높이는 각각 447cm 및 501cm이며, 벽면은 용암선반이 발달한 전형적인 용암동굴이나 바다에는 암반하천 특유의 하상지형이 나타난다(김태호·안중기, 2008).

제주도에서는 유로 발달에 용암동굴의 존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정수·손인석, 1991; 제주도, 1998). 용암동굴의 천장이 무너지면 동굴 구간은 협곡 형태의 유로로 바뀌게 되므로 용암류와 용암류 사이의 경계를 따라 발달하는 유로뿐 아니라 용암류 중앙을 지나는 유로에도 차별침식을 일으키는 절리와 용암동굴의 분포가 중요하다. 용암동굴은 지하수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유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린굴의 유로 구간은 아직 동굴 천장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하유로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하류 쪽 입구와 막장 사이의 구간에서 볼 수 있듯이 침식작용으로 천장이 전부 제거되면 일반적인 지상유로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구린굴은 지하의 용암동굴이 지상의 유로로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천유역은 본류하천과 이에 합류하는 수많은 지류하천으로 이루어져 일종의 네트워크가 출현하는데 이를 하계망이라고 부른다. 하계망을 구성하는 하천은 일련의 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위계를 갖고 있으므로 하천차수를 구분하여 유역의 지형, 지질, 수문 특성을 보여주는 하계망 분석이 가능하다(권혁재, 1999).

제주도의 17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계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유로연장이 가장 긴 천미천을 비롯하여 한천과 효돈천 등 3개 하천만이 5차수 하천에 해당한다. 나머지 14개 하천은 전부 4차수 또는 3차수 하천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하천차수가



그림 1-8. 구린굴의 병문천 유로 구간

낮다. 발원지로부터 첫 번째 합류점까지 최상류 구간이 1차수 하천에 해당하며, 이후 같은 차수를 지닌 하천끼리 만나면 그 하류 구간은 차수가 높아진다. 따라서 제주도의 낮은 하천차수는 하천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김미령, 2003).

유역에 분포하는 1차수 하천의 수도 비슷한 규모의 한반도 하천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하천밀도와도 관련된 1차수 하천의 수는 유역 내 지표유출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제주도의 하천유역은 수직절리가 발달한 용암류가 클링커층을 경계로 쌓여있어 높은 투수성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1차수 하천이 적은 저밀도 하계가 출현한다.

동일한 하계에서 차수 간 하천 수의 비율을 분기율(bifurcation ratio)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하천 규모에 무관하게 대체로 분기율이 낮다. 5차수 하천인 경우에도 천미천 3.0, 한천 2.7, 효돈천 2.7로 모두 분기율이 3 이하에 불과하다. 저밀도 하계의 특징은 하천차수가 낮아져도 해당하는 하천의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낮은 분기율에도 잘 나타난다(김미령, 2003).

하계망은 하천유역의 지질구조와 지형을 반영하여 공간상에서 특정한 패턴, 즉 하계모양을 만든다. 제주도에서는 지질구조보다는 기복과 지표경사 등 지형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데, 섬 중앙에 고도가 높은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요 하천은 한라산 산정 부근에서 발원하여 해안 지역으로 흘러내린다. 따라서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섬 중앙에서 사방으로 하천이 뻗어나가는 전형적인 방사상 하계모양이 나타난다(그림 1-1).

또한 하계망을 구성하는 지류하천은 대부분 중상류역인 한라산 산록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하류역에서 본류에 합류한다. 본류하천뿐 아니라 지류하천도 지표경사에 지배되어 한라산 산록에서는 최단거리의 유로를 만들기 때문에 본류하천과 지류하천이 나란히 흘러내리는 평행상 하계모양도 볼 수 있다(그림 1-1).

중상류역의 하천은 산록의 비교적 급경사면을 따라 직선상으로 흘러내리며, 평탄한 하류역에서도 한반도의 충적하천과 같이 범람원지대를 곡류하며 흐르지 않는다. 용암류와 용암류 사이의 경계 또는 용암류에 발달한 절리와 용암동굴을 따라 유로가 출현하므로 제주도 하천은 직선적인 평면형의 직류하도를 만들기 쉽다. 따라서 하천이 곡류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곡률도(sinuosity)는 1.1~1.3에 불과하여 그 값이 1.5를 넘어 곡류하도로 분류되는 한반도의 하천과는 차이가 크다(강상배, 1980).

침식지형

폭포는 하천 종단면에 출현하는 경사급변점으로 유수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일찍부터 주목받은 대표적인 하천의 침식지형이다. 제주도의 해

안 지역에는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및 천제연폭포 등 다수의 폭포가 출현하여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다(그림 1-9). 건천이 대부분인 제주도의 지역성을 고려하면 평소에도 낙숫물이 발생하는 이들 폭포는 친수공간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 오름 못지않게 지역을 대표하는 지형경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 1-9. 서귀포의 정방폭포



제주도는 지형발달사적 관점에서 유년기 지형으로 분류되므로 하천에 경사급변점이 출현하기 쉽다. 특히 현무암질 용암류가 쌓여 만들어진 한라산의 산록에 해당하는 중상류역은 물론 하류역에서도 용암류 사이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경사급변점이 잘 발달한다. 따라서 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급류와 폭포가 출현하므로 제주도 하천은 계단과 같은 종단면형을 보인다.

제주도의 모든 하천에 폭포가 발달하고 있지만, 한라산의 동서쪽 산록을 흐르는 천미천, 서중천, 창고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경사인 남북쪽 산록을 흐르는 한천, 병문천, 광령천, 효돈천, 신례천 등에 더 많이 분포하고 규모도 더 크다. 이들 폭포는 폭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용암류의 특성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다(김태호, 2012).

조면암질 용암류 지역에는 폭포벽이 단일 용암으로 구성된 폭포가 만들어지기 쉽다. 현무암질 용암류 지역에는 복수의 용암이 폭포벽에 층상 단면을 만드는 폭포가 잘 나타나며, 용암의 침식 저항력에 따라 단면 형태가 달라진다. 폭포벽의 상위 용암이 하위 용암보다 암반강도가 작고 절리가 많아 빨리 후퇴하면 계단형 폭포가 만들어지는 반면, 하위 용암이 저항력이 작아 후퇴속도가 빠르면 폭포벽 상단이 돌출한 폭포가 만들어진다. 특히 하상에 두꺼운 클링커층을 지닌 아아용암이 분포하면 하부의 클링커층이 빨리 후퇴하고 상부의 용암은 클링커층의 모암(帽岩) 역할을 하므로 전형적인 상단 돌출형 폭포가 출현한다. 용암의 성질이 비슷하면 대체로 후퇴속도에도 차이가 없어 수직형 폭포가 만들어진다(그림 1-10).

한라산 하천에 발달한 이들 경사급변점은 평소 낙숫물이 없는 탓에 폭포로 인식되지는 않으나 높은 단애면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우천으로 유수가 발생하면 색다른 경관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이 찾게 된다. 서귀포시 서쪽을 흐르는 약근천의 영도폭포는 높이 약 50m에 달하는 단애면에 폭포수가 출현하면 장관을 이룬다. 제주도의 비경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낙수현상의 희소성 때문에 신비의 폭포 또는 행운의 폭포로 불리고 있다(그림 1-11).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지하천에서는 유수가 운반하는 토사에 의한 파쇄와 마모



그림 1-10. 복수의 용암층으로 구성된 병문천의 수지형 폭포

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하상에는 마식작용을 받아 매끄럽게 깎인 넓고 평탄한 반석(盤石)과 원형의 소(沼)가 만들어진다. 한반도에서 반석지형은 화강암 분포지역의 산지하천에 잘 나타나는데, 창고천 하류역의 안덕계곡에도 평탄한 하상이 발달하여 반석이 펼쳐진 하곡의 경관을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에는 용암류 표면에 발생하는 거북등 모양의 절리가 차별적인 굴식작용과 마식작용을 일으키므로 소지형이 잘 발달한다. 소는 제주도의 모든 하상에 흔하게 나타나므로 주목받는 침식지형은 아니지만, 넓고 깊은 소에는 효돈천의 남내소, 악근천의 냇길이소, 광령천의 진달래소처럼 이름이 부쳐지고 독특한 형태의 소는 랜드마크로 활용된다(그림 1-12). 예를 들어, 한천 중류역의 향소, 창끝소, 관관소, 애기소, 강이소 등은 오라울레길의 주요 랜드마크이며, 광령천 중하류역의 오



그림 1-11. 우천으로 단애면에 폭포수가 출현한 영또폭포



그림 1-12. 효돈천의 남내소(좌)와 한천의 판관소(우)



그림 1-13. 한천 중류역 하상에 발달한 원형 포트홀(좌)과 그루브(우)

해소, 들렁귀소, 장소도 등도 무수천 8경으로 지정되어 있다.

폭포벽에서 떨어지는 유수는 높은 수압과 빠른 유속으로 마식작용과 굴식작용 뿐 아니라 공동현상(cavitation)도 일으켜 폭포벽 앞에 소의 일종인 폭호를 만든다(그림 9). 그러나 천지연, 정방연, 천제연 등 소수의 폭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폭호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으므로 낙숫물이 없는 폭포와 마찬가지로 친수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지는 않다.

한라산 하천의 하상과 하안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마식지형으로 포트홀(pothole)과 그루브(groove)를 들 수 있다(그림 1-13). 우리말로 돌개구멍이라고도 부르는 포트홀은 유수가 운반하던 자갈이 하상의 갈라진 틈에 들어가 와류와 함께 회전운동을 하면서 원통형으로 깊게 파놓은 지형이다. 따라서 거북등 모양으로 절리가 조밀하게 발달해 있는 한라산 하천의 용암류 하상에는 이들 절리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포트홀이 나타난다(윤문현, 2012). 그루브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상에 길게 파인 홈 모양의 지형으로 포트홀이 선상으로 이어져 만들어지기도 한다.

퇴적 및 습지지형

산지를 벗어난 한반도의 충적하천은 상류로부터 운반해온 토사를 중하류역과 하구에 퇴적시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등 일련의 충적지를 만든다. 반면에 제주도의 산지하천은 해안 지역의 하류역에서도 침식작용이 탁월하므로 주목할 만한 퇴적지형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하류역의 일부 장소에 운반하던 토사를 하상에 떨어트려 소규모의 퇴적지형인 하중도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분·합류가 활발한 망류하도(braided channel)에는 분기한 유로에 둘러싸인 다수의 하중도가 발달하는데, 한반도에서는 낙동강 하구에 발달한 삼각주에서 을숙도, 명지도, 대저도 등 다수의 하중도를 볼 수 있다. 또한 토사 운반



그림 1-14. 효돈천 하류역의 하중도 맹살

량이 많은 한강 하류역에도 여의도와 밤섬을 비롯하여 현재는 매립과 유로변경으로 사라진 장자도, 난지도, 잠실의 부리도 등 다수의 하중도가 발달한다.

제주도의 하천은 평소 유수가 보이지 않는 건천이므로 천미천과 한천의 중류역에 발달한 사례처럼 하중도를 인지하기 어려우나 효돈천과 신례천 하류역에 형성된 하중도 맹살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14). 제주도의 하중도는 유수에 운반되던 토사가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뿐 아니라 용암류지대의 지질구조선을 따라 유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분·합류가 발생하여 만들어진 사례도 나타난다.

한편, 육지생태계와 수생생태계가 혼재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지닌 습지는 지표면에 물이 저류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제주도는 투수성이 큰 화산성 지질



그림 1-15. 광령천 상류역에 발달한 숨은물뱅디습지

로 인해 표면유출은 물론 표면저류도 쉽지 않아 습지가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국지적일지라도 지표류가 흘러가는 경로에 집수와 저류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장소가 있으면 습지가 출현하여 생태계의 활력소를 만들고 있다.

습지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목적으로 1971년에 체결한 람사르협약에 의해 생물지리학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 동식물종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도에 는 물영아리오름습지를 시작으로 물장오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동백동산습지, 숨은물뱅디습지가 람사르협약 습지로 연이어 등재되어 제주도 습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1100고지습지와 숨은물뱅디습지가 지표류의 경로에 형성된 습지이다. 한라산의 서산록 표고 1,100m와 980m에 각각 소재하는 1100고지습지와 숨은물뱅디습지는 오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모양의 매우 완만한 사면을 경유하는 광령천과 색달천의 최상류 유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지습지이다(그림 1-15).

선홀에 소재하는 동백동산습지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생태계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자왈지대에 발달한 습지이다. 투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용암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용암류의 미기복과 치밀한 용암류 암반 표면의 불투수성이 결합하여 만들어져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유형의 습지이다. 주 습지인 먼물깎을 비롯하여 동백동산 일대에 소재하는 다수의 습지는 호우 시 발생하는 지표류의 유로를 따라 점점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습지는 수면에 직접 떨어지는 빗물뿐 아니라 우곡을 통해 유입하는 지표류와 용암류의 암층 경계를 따라 유입하는 중간류에 의해서도 함양되고 있다(안중가·김태호, 2015).

참고 문헌

- 강상배, <제주도 남·북사면지형의 비교연구>, 《지리학연구》 5, 1980, 157-179.
-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 2016.
-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2018. 12. 31. 기준)》, 2020.
- 권혁재, 《지형학》, 법문사, 1999.
- 김미령, 《제주도 하천의 하계망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재방, 《천미천유역의 물수지 해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태호, <용암류 특성에 의한 제주도 폭포의 유형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2012, 129-140.
- 김태호·다나카유키야, <한라산 아고산대 조면현무암 소유역의 유출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1(4), 2004, 1-10.
- 김태호·안중기, <한라산 구린굴의 천장 함몰로 인한 병문천의 유로 변경>, 《대한지리학회지》 43(4), 2008, 466-476.
- 김태호·안중기, <제주도 스킨리온의 유출특성: 어승생오름 소유역을 사례로>, 《한국지형학회지》 15(2), 2008, 55-65.
- 문덕철·양성기·고기원·박원배, <제주도 주요하천의 기저유출량 산정>, 《한국환경과학회지》 14(4), 2005, 405-412.
- 안중기·김태호, <한라산 아고산 초지대 소유역의 물수지>, 《대한지리학회지》 41(4), 2006, 404-417.
- 안중기·김태호, <제주도 단성화산 소유역에서의 강우의 분배: 한라산 어승생 오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2008, 212-223.
- 안중기·김태호, <제주도 중산간지대의 지표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문지형학적 접근>, 《한국지형학회지》 22(1), 2015, 17-27.
- 양성기·김동수, 《제주형 하천유출 관측의 신시대》, 도서출판 문, 2015.
- 윤문현, 《제주도 한천 포트홀의 지형학적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정수·손인석, <제주시 3대 하천지대의 지질구조와 지형발달>, 《제주대학교 해양연보》 15, 1991, 45-60.
- 제주도, 《중산간지역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 종합조사》, 1997.
- 제주도, 《제주·애월도폭 지질보고서》, 1998.
- 제주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Ⅲ)》, 2003.
- 제주도·건설부·한국수자원공사,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199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3~2022)》,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보완] (2013~2022)》, 2018.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지하수영향조사서》, 2014.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추진현황》, 2013.

한라산의 하천



제 2 장

한라산의 주요 하천



여 백

1. 한라산과 하천

화산섬 제주도에는 한라산체를 발원지로 하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다. 제주의 하천은 경사가 급한 남북에 발달한 데 비해 경사가 낮은 동서쪽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 웅장하고 경관이 수려한 급경사의 하천 밀도가 높은 반면에, 한림과 한경 등 제주시 서부지역과 제주시 동부지역인 조천·구좌, 서귀포시 성산지역은 하천 발달이 저조하다.

도내에는 연중, 전 구간 물이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상류에서 유출하다가도 땅속으로 잠수해 버리거나 상류에서는 건천인데 해안 부근에서 다시 솟아올라 흐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시 산지천과 광령천, 천지연을 끼고 있는 서귀포시 연외천을 비롯해 강정천(도순천), 돈내코계곡(효돈천), 제주시 옹포천은 ‘물의 하천’이라고 할 만큼 용출량이 풍부하다. 특히 수자원이 풍부한 이들 하천은 도시 중심부나 유명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의 가치를 배가시키고 있다.

제주민들은 하천에 많은 문화와 역사유적을 남겼고 이곳에서 식수를 해결했다. 그래서 제주의 하천에는 선인들의 체취가 진하게 묻어난다.

하지만 제주의 하천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 심한 생채기가 나고 있다. 하천 정비라는 목적으로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하천 정비는 집중호우 때 범람하자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일자형으로 굴곡을 펴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일부 하천은 아예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기도 했다. 상가건물 터로 복개됐던 산지천을 복원하면서 제주도민들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했다.

하천 파괴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으로 하천의 화산지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 버렸다. 결국 홍수기에는 배수로

로, 갈수기에는 오염된 하수도 역할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제주의 하천에 대한 기록은 1936년 일제강점기에 전국 하천의 길이와 명칭을 정한 ‘조선하천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1982년에 제주도지사가 준용하천을 고시한 데 이어 지금은 지방2급 하천으로 분류돼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주의 하천 명칭은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하천령’에 의한 것이다.

지금의 하천 이름은 대부분 행정구역상의 이름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지역의 정서와는 괴리되는 측면이 많다.

하나의 하천에는 여러 갈래의 지류(1, 2, 3...)들이 일정 구간에서 합류하는데 보통 분류와 지류의 하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천 지명을 얘기할 때 혼동되기 십상이다. 일례로 서귀포 색달천의 경우, 하천의 큰 줄기인 본류가 중문천이고 상류 제1지류는 색달천인데 하천의 공식 명칭은 색달천으로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명은 본류가 아닌 제1지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라일보 한라산생태학술탐사팀이 1998년 12월부터 2003년까지 약 5년간에 걸친 탐사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다. 탐사에는 취재진과 지질, 동·식물, 인문지리, 민요·설화, 수자원, 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탐사는 한라산체에서 발원하는 하천 중에서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두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탐사는 본류를 중심으로 하구에서 발원지까지 전 구간 도보로 이루어졌다. 하천의 발원지는 지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탐사가 진행된 시기를 고려할 때 최근의 상황과도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지방2급 하천으로 고시된 하천은 모두 60개이다. 고시된 하천에 국립공원 구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 60개 하천의 총 연장은 603.70km이다. 하천이 끝나는 하구 종점을 기준으로 지역별 하천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삼수천·대룡소천(봉개동), 화북천·방천·부록천(화북동), 조천(아라동), 산지천(건입동), 병문천·한천(용담동), 독사천(삼도동), 토천(오라동), 흘천(도두동), 이호천·원장천(이호동), 도근천·어시천·광령천(외도동), 고성천·소왕천·수산천·금성천·어음천(애월읍), 한림천·웅포천·문수천(한림읍).

▶서귀포시

연외천(천지동), 서홍천·생수천·호근천(서홍동), 원제천(호근동), 동홍천(서귀동), 보목천(보목동), 상호천(토평동), 효돈천(하효동), 영천(상효동), 예래천(상예동), 중문천·색달천(중문동), 대포천·회수천(대포동), 동회수천(월평동), 도순천·궁산천·악근천·영남천·세초천(강정동), 고지천(도순동), 신례천·종남천·전포천·서중천·의귀천·신흥천(남원읍), 송천가시천·안좌천·천미천·진평천(표선면), 창고천(안덕면).

2. 제주시의 주요 하천

광령천(무수천)

광령천은 제주시 외도동과 애월읍의 경계지역을 가로지른다. 하천의 종점은 제주시 외도동이다. 광령천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머리가 없는 나라 해서 무수천(無首川), 물이 없는 건천이라는 뜻의 無水川, 지류가 수없이 많아 無數川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계곡에 들어서면 근심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無愁川으로, 또 외도와 도평 인근 주민들은 무수천을 외도천이라 부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천을 곧잘 무수천으로 기억한다.



그림 2-1.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령천 발원지

이 하천은 행정적으로는 1936년 1월 이후 광령천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광역단체의 관리대상 하천인 지방2급 하천 60곳 중 하나이다.

광령천은 국립공원 외곽 지역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하천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제주도가 고시한 기준으로 보면 광령천의 기점은 애월읍 광령리이며 종점은 제주시 외도동이다. 이 기준으로 할 때 하천연장은 18.3km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까지 포함시킬 때 광령천의 연장은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통상 25km 내외로 기록되고 있다. 이 역시 광령천 본류의 거리만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광령천 전체 길이로 단정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류 이외에 광령천으로 통하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지류들까지 합치면 무수천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천이기 때문이다.

광령천은 Y계곡을 발원지로 하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Y계곡 발원지는 한라산 정상 서북벽과 장구목 일대로, 실질적으로는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된다 해도 무리가 없다.

이보다 조금 하류인 볼래오름 서북쪽과 영실 북쪽, 만수동산(만세동산), 사재비오름, 망체오름 일대에서 발원하는 크고 작은 지류들까지 합류한다.

만수동산에서 이어진 한라계곡은 어리목 하류, 1100도로 한밭교 하류에서 본류인 Y계곡과 합류하고 또 다른 소지류들은 해발 700m 부근 천아오름 수원지 부근에서 합류, 대천을 이루며 하구로 향한다.

대천을 이룬 광령천은 갖가지 비경을 뿜내며 ‘진달래소’와 광령 8경을 지나 외도다리 바로 위에서 도근천까지 아우른다.

광령천은 대부분의 구간이 건천이면서도 물이 흐르는 구간이 비교적 긴 하천으로 유명하다. 도내 하천이 연중 유량이 없고 강우기 이외에는 건천인 점을 감안할 때 광령천은 도민들에게 귀중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광령천 상류 두 갈래의 Y계곡은 양쪽 모두 연중 용출하여 어승생수원지에 저장돼 도민들의 젖줄이 되고 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용출지점은 탐사 결과 ‘춧대

바위' 맞은편의 계곡 능선 상류 해발 1,500m 지경에서 확인된다. 이 샘물은 어승생수원지 취수보로 통한다.

하류로 이어지면서 '치도'를 거쳐 진달래소, 고냉이소, 진소, 외도수원지 직전의 검은소 등에서 물이 고여 있는 정수지대를 이루며 곳곳에서 용출한다. 다시 외도수원지에 이르러서는 지표면 위로 현류하면서 월대, 외도다리로 이어진다.

그림 2-2. 광령천 진달래소



진달래소는 그 웅장함이 극치를 보여준다. 콤파스로 둘러놓은 듯 대형 원 모양을 띠고 있는 진달래소는 지름이 약 70m에 이르고 좌우 직벽의 높이도 50m가 넘는다. 깎아지른 듯한 직벽은 절묘한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으며 소(沼) 전체가 마치 천장 없는 대형 체육관을 연상케 한다.

광령천은 국립공원관리구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Y계곡과 한라계곡은 모두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구역은 해발 700m 지경까지 이어진다.

서북류하던 광령천은 이후 제주시 해안동과 애월읍 광령리를 경계로 광령교에 이르고, 동·서 사라마을을 중간지점을 거쳐 도평동, 외도동 ‘참오랭이’, 월대로 이어진다.

이들 마을들은 광령천과 그 지류인 하천에 흐르는 물을 찾아 터전을 정한 설촌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광령마을은 선사 시대부터 주민들이 살아 온 제주의 가장 오랜 마을 중 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 지역에는 고인돌 수십 기가 집단으로 분포돼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광령천과 더불어 살아 온 마을 주민들은 ‘광령 8경’과 월대 등에서 풍류를 즐기는데 하천과 밀접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류에는 조공포, 수정사지와 같은 유적도 남아 있다.

병문천

병문천(屏門川)은 하천 양쪽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병문천 하구에 해당하는 병문하수펌프장 서쪽 일대는 지금처럼 복개되기 전만 해도 병풍을 연상할 정도로 비교적 깊은 계곡을 이루었다.

조선 말기 조련군의 집합장소였다는 데서 ‘병문내’라 했던 것이 차차 와전돼 ‘병문내’라 호칭했었다고도 한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병문천은 제주읍 오동리에서 발원하여 제주읍 삼도

리를 경유해 입해(入海)하고 밀물 때는 물이 나오다가 썰물 때면 마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 2-3. 병문천 하구 복개 현장



제주도는 1982년 도내 준용하천(도 관리대상 하천, 현재 지방2급 하천)을 지정, 고시하면서 병문천의 길이를 12km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 길이는 해발 1,530m 지점의 병문천 발원지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 외곽지역 오라동(335번) 일대에서부터 하구인 용담동까지만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 병문천 길이와는 차이가 있다.

병문천은 해발 1,530m, 1,500m, 1,460m 지점 세 갈래에서 시작된다. 발원지 동남쪽 지점에 천미천을 발원시킨 '흙붉은오름'과 마주하고 있다. 병문천을 잉태한 세 갈래 계곡은 해발 1,000m 부근에서 하나의 줄기로 합류해 본류를 이룬다.

그림 2-4. 제주시내권 병문천



해발 800m 일대에 발달된 구린굴을 통해 하천의 형성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하천 한복판의 구린굴 입구는 천장이 무너져 내린 함몰지구가 완연하다. 지금도 누수에 의한 침식과 균열 현상으로 하천화가 진행되고 있다. 구린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하류에서도 함몰지대로 추정되는 깊은 웅덩이가 10여 곳 확인된다. 병문천이 하천화되기 이전에는 천장이 있는 동굴지대라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다.

병문천은 관음사 야영장과 오등동을 지나 삼도동, 용담동 복개구간으로 이어진다.

병문천 복개는 탐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동했다. 1986년 말 탐동 매립 면허가 발부된 이후 계속돼온 면허에 대한 불법성 논란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1990년 병문천 복개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도민들은 (주)제주해양개발과 (주)범양건영이 추진한 탐동매립 사업을 환경 파괴라며 반대했고, 매립이 기정사실화됐을 때는 매립한 땅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때 제주도 당국과 제주시가 제시한 방안이 바로 병문천 복개사업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제주시가 이 사업을 제시한 이유는 병문천에 더러운 물이 흐르고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덮어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복개한 부분을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시 탐동문제해결범도민회는 매립 자체가 환경파괴였는데 그 대가로 또 하나의 환경파괴를 제안한 꼴이라며 반대했지만 묵살됐다.

이런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복개사업은 1993년 초부터 시작됐다. 사업구간은 병문천 하류에서 종합경기장 인근 서광로 오라교에 이르는 2,058m, 사업비는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탐동이익환수라는 거센 구호와 논쟁의 산물인 병문천 복개사업은 하천 일대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천의 원형을 잃어버림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부끄러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수천,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병문천 하류의 멋스러움과 바위들은 사라졌고 그 위를 콘크리트가 덮어버렸다.

복개된 병문천 하류에는 더 이상 새들이 찾아와 지저귀지 않는다. 하천 바위 틈새로 피어나던 풀꽃과 비가 오면 개울을 이루던 모습도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 이것이 1990년대식 도시개발의 모습이었다.

한천

한천은 한라산을 기점으로 제주 제일의 하천이라 할 만하다. 한천은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돼 제주시 탐동 서쪽 용연에 이른다. 한천은 수려한 경관과 수자원, 역사유적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천에 대한 기록으로는 조선 시대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耽羅志)』에 이르길, “한내(大川)는 주성 서쪽 2리경에 있다. 하류로 흘러가 끝나는 곳이 한두기이다. 한내의 아래쪽은 용수라 하는데 깊어서 밑이 없고 길이는 백 보 정도 된다. 가물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다.

한천의 명칭에 대한 기록은 이규성 목사가 1709년에 그린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並書)>에도 나타난다. 여기에도 한천을 대천(大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한천은 ‘한라산의 혈’을 이어주는 혈맥으로 회자된다. 선인들은 한라산의 혈맥이 한천 상류 장구목과 삼각봉, 개미등을 따라 제주대학교 뒤편 산천단 인근 삼의양오름에서 한 번 멈춘 뒤 동으로 원당봉, 서쪽으로는 도두봉으로 연결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옛 ‘제주牧’이 서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한천은 하류 용담을 거슬러 오라동, 오등동을 가로지른다. 한천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004년 말 현재 용담1동 9,180명, 용담2동 1만 7,413명, 오라동 5,775명, 오



그림 2-5. 한라산 정상 한천 발원지

등동 1,553명 등 3만 3,921명이다.

한천 유역엔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하구 용연은 달밤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수많은 전설과 제주민들의 풍류가 깃든 곳이다.

용연에서 남쪽으로 400여m 지점에는 통일신라 시대인 고대 탐라국의 제사유적으로서, 고대 탐라 후기의 문화와 당시 생활상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용담동 유적지가 자리잡고 있다. 조금 거슬러 종합경기장 일대의 오라동에 이르면 조선 순조 때 목사 한응호의 선정을 기리는 거사대가 서 있다.

오등동의 방선문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의 자취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명소이다. 조선조 목사와 시인, 묵객, 풍류객들이 계곡에 피어난 영구춘화를 즐기며 한시와 마애명을 30여 곳 기암괴석에 새겨놓아 더욱더 유명한 곳이다.



그림 2-6. 한천 탐라계곡의 이끼폭포

특히 이곳은 백록담에서 이어지는 신선사상이 전해지는 매우 이색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방선문은 오라골프장을 가로지른다.

상류 발원지 부근에 이르면 산신제 터와 연대가 설치되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선인들은 국왕의 명을 받아 한라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터가 백록담 북쪽 모퉁이 한천 발원지이다. 그 바로 아래 동쪽에 우뚝 솟은 왕관바위는 육지부에 연락을 취했을 연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계망(河系網)은 하천의 본류와 그에 합류하는 지류를 이루는 하천의 망을 일컫는다. 하계는 본류와 지류의 합류 상태 등에 따라 수지상(樹枝狀), 격자상(格子狀), 평행상, 방사상(放射狀) 등으로 분류하는데, 한천은 바퀴살 모양으로 중심에서 그 주위 사방으로 내뻗는 형태의 방사상수계를 이루고 있다.

한 유역 안의 수계에 있어 최상류에 있어서 전혀 지류를 가지지 않는 제1차수, 둘 이상의 1차수가 합류하는 2차수, 또 몇 개의 2차수가 합류하는 3차수라고 할 때, 한천의 하천 차수는 4차수까지 추적된다.

한천 유역은 매우 복잡한 하계망을 보이는데 특히 중류 열안지오름과 상류 탐라 계곡 일대 하계망이 매우 복잡하다. 하계밀도는 하류에 이룰수록 미약하다.

한천은 한라산 정상 북벽 일대에서 발원하는 동탐라와 장구목과 삼각봉에서 발원한 서탐라 등 두 갈래로 나뉘어 많은 지류들과 합류하면서 하구 용연으로 이어진다. 하구에 이르기까지 왕관바위와 삼각봉, 삼단폭포, 방선문으로 이어진 주위 경관은 제주를 대표할 만한 비경들이다.

제주 화산섬에서 동서 해안지역과 남북사면은 매우 다른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 동서사면에는 하천의 발달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천폭이 넓고 바다로 유유히 흐르는 하구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한라산의 남북사면에 형성된 한천(제주시)과 효돈천(서귀포시)은 깊은 V자형 계곡을 이루고 있다.

한천이 발원하는 한라산 정상 북벽은 풍화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백록담 북벽의 수직절벽으로 된 U자형 계곡의 벽면은 현재도 조면암의 표면 풍화로 한 꺼풀씩 하부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풍화작용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 훗날에는 북벽과 서북벽 자체가 대부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한라산 북사면의 백록담 아래로 형성된 ‘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은 한천의 상류가 되고 있다. 발원지 주변 지형은 깊은 계곡과 함께 조면암의 봉우리와 빙하성 능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백록담 북벽과 왕관릉, 장구목 계곡에서 탐라계곡이 발원하며, 삼각봉과 큰두레왓에서 서탐라계곡이 발원하고 있다. 이 두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개미목 능선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 능선상에 관음사코스의 등반로가 개설되어 있다.

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은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직선상으로 발달한다. 계곡에는 수많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높은 고도차를 극복하고 있으며 탐라계곡의 이끼폭

포, 비단폭포와 같은 곳에서는 많은 양의 계곡수가 용출하여 흐르고 있다. 능하오름 옆에서 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이 합류하여 여전히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북진한다.

오라골프장 주변 하천 바닥에서 형성된 아치형의 방선문은 일종의 용암교의 형태를 하고 있다. 방선문은 두꺼운 용암류의 하부에 발달된 수평으로 깨진 틈들이 형성된 판상절리가 하천수에 의해 연속적으로 침식을 받음으로써 한 장씩 무너진 결과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천 하류 지역에 해당되는 오라동 주변에서도 하천의 모습은 여전히 고지대 상류 계곡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건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경사가 심한 화산지형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아름다운 하천 바닥의 암반 모습은 호우시에 고지대로부터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는 많은 양의 하천수와 함께 이동해 온 큰 암석 덩어리들이 연속적으로 하천 바닥의 암반을 마모시킨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한천 하구인 용연은 두께 10여m의 매우 두꺼운 용암류로서 하천 좌우현 벽에는 수직절리가 특징적으로 발달해 있다. 용연 하구의 형성은 용암류에 발달된 수직절



그림 2-7. 한천 하류 오등동 일대의 계곡 비경

리가 절리면을 따라 무너져 내리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내 대부분의 하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어서 아쉬움을 준다. 한천의 풍부
한 용천수는 그래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낸다.

한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이곳 용천수는 크게 용진각물과 용진굴물로 대표된다.
해발 1,500m 인근에서 용출하는 용진각물은 삼각봉 밑에서 용출하는 용진굴과
합류하면서 그 양이 크게 불어난다. 용진굴물의 1일 용출수는 360여 톤(1999년 5월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 조사)에 이른다. 탐라계곡을 적시는 이 용천수는 2km 넘게 이
어지면서 곳곳에 그림 같은 폭포수를 빚어내고 있다.

화북천

별도천(別刀川)으로도 불리는 화북천은 제주시 동부지역의 대표적 하천이다. 화
북천은 유역에 많은 문화 유적을 끼고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깊다.

화북은 옛 제주의 관문인 화북포구가 있는 지역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
고 있는 곳이다. 진성과 비석거리, 해신사, 연대, 전통 와가(瓦家) 등이 화북에 자리잡
고 있다. 하천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그 주변에 풍성한 자취를 남겨놓은 것이다.

화북포구는 제주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포구로 조선 시대 조천포구와
함께 제주의 관문이 되었다. 영조 13년(1737년)에 항만이 불완전하여 풍랑이 일 때
는 항내에서 파선되는 일이 잦아 목사 김정이 몸소 돌을 지어나르는 등 앞장서서 방
파제와 선착장을 축조했다. 조선조 500년 동안 많은 유배인과 3읍 수령이 왕래했
던 곳이다.

화북포구에 있는 해신사(海神祠)는 해신을 모신 사당으로, 지방기념물 22호이다.
순조 20년(1820)에 한상묵 목사가 해상활동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화북포 해안에
사당을 짓고 매년 정월 보름에 해신제를 지냈다.

화북진성은 화북1동에 남아 있는 성터로, 숙종 4년(1676) 겨울에 최관(崔寬) 목사가



그림 2-8. 화북천 하구

진영을 설치하여 돌레에 성을 쌓았다.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두 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그중 서쪽 성문은 포구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 안에는 군기고와 객사, 망양정이 있었고, 그중 객사는 환풍정(喚風亭)이라고도 하였다. 현재 화북포구 동쪽 동마을복지회관 옆에는 화풍대(和風臺)라는 표석이 남아 있는데, 옛날 화북포구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던 곳으로 보인다.

화북동 비석(碑石)거리에는 지금도 13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주로 목사들의 치적을 기리는 공적비로 제주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화북마을에 세워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화북은 ‘애랑’이가 술한 관원들과 이별했던 공간으로 묘사된 《배비장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제주도기념물 23-9호인 화북연대는 통신시설 발달 이전에 화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용담동 수근연대와 동쪽으로는 조천연대와 연락을 취했던 곳이다. 지금의 연대는 2001년에 복원된 것이다.

화북천 하구 해안에는 제주외항개발사업이 한창이다. 국제자유 시대를 맞아 제주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2001년 말 착공된 이 사업은 공사기간이 19년인 대역사이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9년 제주항은 8만t급 1척, 2만t급 2척 등 5,000t톤급 대형선박 7척을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 거점 물류항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화북천 하구 연안의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동북아 중심 항만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미항 건설이라는 두 가지의 목



그림 2-9. 화북천 중류 판상절리

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별도봉과 사라봉 사이에는 별도봉 알오름이라고 하는 조그만 오름이 끼어 있다.

이 오름은 층리가 잘 발달된 수리쇄설성 퇴적층으로 되어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서 약 7~8m의 두께로 20m 구간에 걸쳐 소규모로 노출되어 있다. 바로 이 퇴적층 속에 박혀 있는 화강암의 덩어리가 제주도의 지하 깊은 곳에는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었다.

(강순석 박사, 제주지질연구소장)

이 화강암은 경상도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중생대 불국사 화강암으로서, 이로부터 제주 화산체의 밑바닥은 한반도와 같은 불국사 화강암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강 박사는 덧붙였다.

별도봉 동쪽을 끼고 있는 화북천 하구는 두 갈래이다. 제주도 내 대개의 하천이 하구에 이르러서는 한 줄기로 합쳐져 바다로 이어지는 데 비해 특이한 하구 구조라 할 수 있다. 화북천 하구는 원래 두 갈래이지만 호우 때 하수펌프장 일대 범람 우려로 하구 한쪽 갈래가 인위적으로 매립돼 지금은 한 갈래만 확인할 수 있다.

《탐라지(耽羅志1653)》에는 화북천을 가리켜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나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면 급히 흘러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록은 화북천 전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하류는 물이 비교적 풍부한 친수 공간이다.

바다와 만나는 하구 일대는 건천이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 오현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면 용출수가 풍부한 친수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화북천의 하류지역은 원형이 상당히 훼손돼 있다. 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벼랑과 나무, 그리고 바닥에는 깊은 웅덩이와 저절로 다듬어진 자연석이 깔려 있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산지천

산지천은 한천·병문천과 더불어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이다.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만 해도 제주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했던 ‘물의 하천’이며 제주의 역사와 수많은 사연이 녹아 흐르고 있다. 한때 복개로 인해 시궁창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건물과 복개 구조물이 철거돼 하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사라졌던 승어와 은어가 돌아오고 제주시민들의 새로운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산지천(산지내) 하구의 옛 모습은 빛바랜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만 남아 있다. 초가 지위로 갯가 지형에 따라 작은 배를 대었고 사람들이 이동했던 자연포구였음을 어렵잖이 짐작할 수 있다. 벌거벗은 채로 벗들과 먹감던 추억과 아낙네들이 빨래하고 허벅지로 물을 길어 나르던 정겨운 풍경이 있던 곳이 바로 산지내였다.

해안으로 길게 뻗은 동·서부 두 방파제와 각종 대규모 항만시설, 빌딩 숲을 이룬 현제의 모습에서 옛 산지천 포구를 떠올린다는 것은 어찌면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산지 하구였던 용진교 일대는 탐라 개벽설화에 나오는 건돌개(健入浦) 터이다. 고대 탐라 시대 교통항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1897년부터 기선이 취항하면서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주 교통항으로 발전하였다. 굽주린 백성을 구제한 사회복지가로 이름을 날린 김만덕의 객주 터도 산지포구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용연, 외도월대, 방선문 등 성 밖의 명소를 제외한다면 제주의 명소는 대부분 산지천을 끼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금산(禁山)이다. 제주성 북성 문턱에서 막바로 바다에 낭떠러지를 이루며 우뚝 뻗은 이 언덕에는 제주 특유의 난대림이 우거져 오랫동안 입산이 통제되면서 ‘금산’이란 이름이 생겼다. ‘영주십경’의 하나로 꼽는 ‘산포조어’는 바로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산지천 하류는 1960년대 후반 도시화의 물결을



그림 2-10. 산지천 하구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복원공사할 당시 모습

타고 일부 구간이 복개되고 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복개 구조물이 노후되고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복개 구조물이 철거되고 복원을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우여곡절이 있었다. 상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산지천의 옛 공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시민 다수의 바람을 꺾지는 못했다.

결국 산지천은 동문교에서 하구 용진교 간 474m 구간에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끝에 시민들의 쉼터로 돌아왔다.



그림 2-11. 산지천 주변 목관아지

산지천 복원 구간과 연결된 곳이 도내 최대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이다. 하구의 복원과 남수각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동문시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대식 대형할인매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전통의 재래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삶의 체취가 묻어나는 여전히 정겨운 곳이다.

시장을 벗어나면 상류는 몇 년 전 정비된 남수각 수해상습지이다. 주변 무허가 건물들도 대부분 철거된 모습이다. 이 일대는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가장 최근의 물난리는 1999년 7월 가옥 170동이 침수된 사례가 있다. 이후 제주시는 190억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들여 동문교~오현교 남수각 일대 하천을 정비하고 주변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켰다. 또 단골 민원이었던 이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해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꾀

하고 있다.

남수각 일대는 제주도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제주성지이며, 제주성 남수문이 있던 터가 바로 남수각이다. 성 안에는 조선 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언사로 부임했던 다섯 분을 배향했는데, 바로 오현이다. 충암 김정 선생과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들이다.

오현교를 벗어나면 하구와는 달리 하천은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깊은 절벽과 집채만 한 바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곳은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산지천 하류는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를 끼고 있다. 오현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적 제134호로 지정된 삼성혈을 비롯해 제주도민속자연사



그림 2-12. 산지천 하류 금산수원지

박물관, 신산공원, 제주도문예회관이 모여 있다.

산지천 변에 이 같은 명소가 자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 일대와 산지천 하구까지 연결해 문화관광벨트화하는 구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도심 한복판에 연중 마르지 않는 산지천의 용출수를 확대 재현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제주경찰서를 지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제주시 일도2동 제주학생문화원과 수운공원 일대는 비록 하상은 정비돼 원형이 훼손됐지만 비교적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도시계획 지구로 정비돼 하천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하천의 오염원이 차단돼 있다. 하천 내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산지천은 옛 목석원과 삼의양오름 오른쪽으로 이어진다. 화북천과 더불어 산지천에도 일제강점기에 구축한 진지동굴이 집단 분포해 있다. 해발 440~480m 일대에서 진지동굴로 보이는 인공굴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천 상류 지점인 산천단 일대는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이 집단 주둔했던 장소로 알려진 곳이며, 당시 일제 방어진지로서 대규모 진지동굴이 구축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북천의 진지동굴과도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천은 깊은 V자형 구조를 보이다가 발원지가 가까워지면 완만해지고 발원지에 이르면 결국 평지의 모습을 띤다. 해발 570m쯤 되는 지점이다. 주변은 목장지대이고 관음사, 산록도로와 닿아 있다.

금성천

제주시 서부지역의 대부분의 하천은 곡폭이 좁고 곡의 발달이 미약하여 하천의 길이가 짧은 게 특징이다. 일명 정자천(亭子川, 絁子천, 정지내, 정짓내)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천도 곡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폭우가 내릴 때는 일사천리의 격류가 되나 맑게 개인 수일 후에는 잡초가 무성한 건천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하천 길이가 15km 이상 되는 비교적 긴 하천이다.

금성천은 성곽 터를 비롯한 많은 역사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애월 금성리와 봉성리·어음리, 한림 귀덕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하천으로 주민들에게는 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성천의 지형도상 발원지는 해발 710m이다. 그러나 직접 답사해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한대오름 해발 900m 지경에서 발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곡두(谷頭) 부근의 실개천과 같은 수많은 지류가 모여 본격적인 계곡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며 고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발원한 수많은 소하천들이 하류로 이어지면서 계속 합류하는, 복잡한 하계밀도를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점에서 발원한 하천은 검은들먹오름과 다래오름 일대에서 계곡 방향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괴오름과 폭낭오름 주변에서 발원한 또 다른 주류가 새별오름(새별오름)과 이달오름을 거쳐 비로소 애월읍 어음2리 해발 220m 지경에서 한대오름 줄기와 합류한다.

이어 봉성리 구물동 선운정사 하류에 이르러 어음천과 만나 해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성천은 이렇듯 상류에서 수없이 많은 줄기들이 잇따라 합류, 복잡한 하계밀도를 보이다가 하류에 이르러 대천을 이룬다.

새별오름(曉星岳, 眞星岳)은 금성천 유로(流路)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서북 방향으로 이어지던 금성천의 유로가 새별오름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북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금성천의 유로와 지형·지질도 주변 오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하천의 발원이 오름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류의 복잡한 하계밀도가 주변 오름군(群)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상 상당 면적이 상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오름에서 비롯된 흑색화산회토로 덮여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

금성천은 하류에 이르러 애월읍과 한림읍을 경계 짓고 있지만 애월읍 주민들과



그림 2-13. 금성천 하구

더욱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역 마을이 하류 금성리를 비롯해 봉성리(구물동, 화전마을 포함), 어음12리 등 애월읍에 집중돼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주민들은 하천에서 샘솟는 용출수와 빗물을 저장, 귀중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받았으며 목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천수는 때로는 범람원이 돼 엄청난 재앙을 부르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곳곳에 당신(堂神)들을 모셔 자연에 순응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금성천 유역 곳곳은 아직도 삶의 애환과 역사 흔적들이 배어난다. 4.3의 상흔과 화전마을 자취, 목호의 제주지배를 종식했던 새별오름 전적지 등은 그 사례들이다.

4.3 당시 쌓였던 성(城)의 잔해는 물론 상류에서는 피난생활의 흔적으로 보이는 움막 터들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봉성리(어도리), 화전마을, 발이오름 등은 4.3의



그림 2-14. 금성천 중류 마을과 연못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다.

금성천 상류에서 확인되는 화전 경작은 43의 발발로 중산간 마을이 소개되고 1968년 화전정리법이 제정돼 법으로 금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화전민들의 주거지가 남아 있으며 그들의 활동무대였던 드넓은 초지와 공초왓이 선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금성천 중류에 위치한 애월읍 봉성리는 재산무장대와 토벌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마을이다. 1949년 12월 17일(음) 새벽 재산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이 불타고 주민 30여 명이 희생됐다. 아침에는 해안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산사람들과 내통했다며 마을주민 수 명을 끌고 가 처형했다. 이러한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150여 명이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마을 이름 때문에 궂은 일이 많이 생긴



그림 2-15. 금성천 발원지 일대 계곡

다 하여 어도리(於道里)였던 마을 이름을 43 이후 봉성리(鳳城里)로 바꾸어 버렸다.

봉성리 신명동은 43으로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다. 1948년 11월, 군경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에 태워졌다. 봉성리 주변의 자이동, 월각동, 화전동 등 6~7개의 자연마을도 이때 없어졌다. 봉성리 본동으로 소개되었던 자연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마을 대신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마을이 신명동인 셈이다.

금성천 본류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음1리 하천변에 43 당시 쌓았던 성의 잔해가 있다. 발이오름과 금성천 사이의 참나무숲에 있었던 자연마을 ‘북케초남밭’ 역시 43으로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지난 1993년에는 발이오름 동굴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토벌작전에 의해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라산 밀림으로 접어드는 금성천 상류 주변에는 43 당시 피난생활의 흔적으로 보이는 움막 터들도 여러 곳 눈에 띈다. 피난민들은 혹한의 한라산에서 추위와 토벌대의 눈을 피해 땅을 파고 움막을 지어 원시인 같은 은거생활을 해야 했다. 피난민들의 은거지는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천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 금성천 상류에 해당하는 검은들먹오름과 한대오름 서북측 언저리에는 한림읍과 애월읍 주민들이 집단 피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웅포천

웅포천은 한림읍 중심을 가로지른다. 제주도 서부지역의 대부분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인 데 반해 웅포천은 제주도 서부지역 최대의 용천수를 자랑하는 하천이다. 건남내(乾南川), 월계천(月溪川)이라고도 불린다.

동쪽으로 한림항, 서북쪽엔 천혜의 절경과 황금어장인 비양도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웅포천 하구가 바다와 맞닿아 있다. 시원하게 뿜려 있을 하구는 바다를 가로질러 해안도로를 내는 바람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웅포리의 옛 이름은 ‘독개’이다. 너럭바위로 이루어진 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림읍지》(1999)는 독개의 유래에 대해 “후미저 들어간 독처럼 평평잡한 뱃자리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적고 있다. 강순석 박사는 “새끼줄 구조가 잘 발달된 현무암질 용암류가 웅포 하구에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독특한 지질구조는 해안도로 개설로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바로 옆에는 ‘소파우코지’(소파위코지)라는 곳도 있다. 웅포마을의 중심 뱃자리인

‘독개’의 북풍막이 구실을 하는 곳으로 저절로 둥그렇게 생긴 물웅덩이다. 조선 총독 부 시절에는 전복을 살려두는 자리였다고 한다. 일종의 전복양식을 했었던 곳이다.

옹포천은 연중 용출하는 풍부한 수량 때문에 최적의 공장 입지조건을 갖췄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수품 통조림 공장과 양조장, 전분공장, 식물공장 등이 입지하여 제주도 서부지역의 최대 공업지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는 하구 주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낡은 건물만이 당시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지역 소주업체인 한라산 제조공장이 옹포천 하구에 위치하여 그 명맥을 잇고 있다.

해안도로에서 200m쯤 상류 옹포교(橋) 인근까지 해수와 용출수가 교차한다. 박한철 전 옹포리장은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옹포교 아래 수심이 용출수로 인해 1m 이상을 유지했었으나 지금은 발목에도 모자란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이곳에서 은어와 장어를 잡았던 기억도 떠올렸다. 옹포천 하구는 시간이 갈수록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옹포천 변에는 한림정수장이 위치해 있다. 하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다. 동명리 마을에 있는 이 정수장은 한림과 애월, 한경 등 제주도 서부지역의 젖줄이다. 시설용량이 1일 취수량 2만 6,000여 톤, 정수량은 2만 4,000여 톤에 달한다. 급수 인구도 1만 800여 가구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명리 정수장 일대 ‘마구물’과 ‘조물’ 두 갈래의 용천수를 가리켜 쌍계수(雙溪水)로 불렀는데 이 물이 옹포천으로 합류했었다고 한다. 수량이 매우 풍부한 데다 물이 워낙 맑고 차가워 발을 담그기조차 어려웠다고 하니 가히 짐작할 만하다. 지금은 정수장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옹포천은 쌍계수 부근 일대에 용출하는 수원지로 항상 풍부한 수량을 이루어 하구에는 예로부터 제조업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옹포천 하구에서부터 명월대에 이르기까지 하천 대부분 구간이 ‘하천정비’로 원형을 잃어버렸다. 옹벽이 쌓이고 바닥은 준설돼 하천을 무색게 하고 있다.



그림 2-16. 명월대



그림 2-17. 명월 팽나무군락

동명리는 한림읍 중앙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한림읍의 상수원이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감귤과 양파가 중요한 소득원을 이루고 있다.

동명리는 고대마을 터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림리에서 금악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약 1km 정도 올라간 지점의 도로 양쪽 경작지 일대에서는 유적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동명리 유적은 지난 1986년과 1998년 보고된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00년~기원 전후한 시기)의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발견된 유물로는 무문토기편과 방추자, 어망추의 토제유물과 마제석부, 석착 등의 석제유물이 있다.

동명리에는 월계 진좌수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회자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여 년 전에 태어난 명의로,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신의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이 마을 원로인 양만생 옹은 현재 한림정수장 옹포천 바로 서쪽에 그가 기거했던 곳이 남아 있다고 전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길 없다. 진좌수에 대한 조명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옹포천 상류에는 제주도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명월대와 팽나무군락지가 있다. 이 하천의 명성을 더욱 빛내주는 명소들이다.

제주도기념물 제7호인 명월대(明月臺)는 조선조 말 이 지방 유림들이나 시인 묵객들이 어울려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예전 반촌(班村)인 이 마을은 맑고 고운 시냇물과 더불어 명월대가 한결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이 거의 말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대(臺)는 마을을 끼고 있는 명월천 하상 중앙에 팔각형의 석축을 3단으로 쌓고 그 위에 원형의 반석을 만들었다. 명월대 바로 아래에는 석교가 있는데 지난 1985년 태풍 '키트'로 유실돼 복원됐다.

명월대는 하천 양쪽에 길게 늘어진 팽나무군락과 어우러져 더욱 일품이다. 명월 팽나무군락지에는 수백 년생 팽나무 60여 그루와 푸조나무·산유자나무·호랑가시나무 등 노거수가 밀집해 있어 웅장한 풍치를 자랑하고 있다.

팽나무는 제주도 내 오랜 마을에는 정자목(亭子木)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명월의

팽나무는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월대와 팽나무 군락지의 수려한 경관은 옹포천의 대대적인 정비공사로 그 명성이 바래고 있다. 옹포천은 팽나무군락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구간을 정비, 하천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국은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농경지와 가옥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위험지구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당위성을 들고 있다.

대대로 이어져온 하천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모습을 후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하천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한 선대들의 잘못을 호되게 질책하지는 않을까.

3. 서귀포시의 주요 하천

효돈천

한라산 북사면을 대표하는 하천이 한천이라면 효돈천은 한라산 남사면을 대표하는 산남 최대의 하천이다. 효돈천의 옛 이름은 호촌천(狐川)이었다. 고려 충렬왕 26년(1300년) 지금의 하례지역은 도내 14개 현의 하나인 호촌현(후에 狐兒縣으로 개칭)의 중심지였다. 호촌천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1861년 김정호가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비슷한 시기의 <동여도(東輿圖)>에도 지금의 하례지역을 호촌으로, 하천은 호촌천, 하류의 포구는 호촌포구, 예촌봉은 호촌봉으로 각각 표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호촌이라는 지명은 1899년 제작된 《제주군읍지》중 제주지도에 상·하례리라는 지명과 함께 호촌봉도 예촌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다만 하천을 경계로 효돈과 하례리 양 지역이 나뉘는 데다 역사적으로 효돈지역 못지않게 하례마을도 하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기 때문에 효례천으로 부르자는 주민들의 주장도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래전부터 하례리에서는 효돈천을 효례천으로 불러 왔고 하례와 효돈을 잇는 다리 이름도 ‘효례교(孝禮橋)’임을 거론하며 효례천이 아닌 효돈천이라는 명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효돈천 주류는 서북벽과 서벽, 남벽 등 한라산 정상 of 거의 절반을 발원지로 하고 있다. 효돈천의 규모를 능히 가늠케 한다. 이 주류는 방애오름을 사이로 웅장한 규모의 서산벌른내와 산벌른내를 거쳐 미악산 상류에서 합류, 돈내코로 이어진다. ‘벌른’은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갈라놓거나 깨트린 상태를 뜻하는 제주어이다. 산벌른내는 바로 한라산을 갈라놓은 하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얼마나 계곡이 깊



그림 2-18. 효돈천 하류의 폭포

고 넓으면 ‘한라산을 별른 내’라고 했을까.

효돈천의 하계(河系)는 미악산 상류(해발 610m)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는 도보탐사와 항공탐사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된다. 정상에서 발원한 두 갈래의 효돈천은 서귀포시 중심부를 향해 수직으로 뻗다가 바로 미악산 상류부에서 한 갈래의 주류로 합류한 이후 이내 급격하게 오른쪽(동남방향)으로 휘돌고 있다. 미악산의 화산분출활동이 효돈천의 유로를 바꿔놓은 것이다. 미악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효돈천은 돈내코와 상호하효하례리를 거치지 않고 미악산 화산분출 이전에 형성된 고(古) 하천을 따라 서귀포 중심부로 관통했을 것이란 추적이 가능하다.

유로를 바꾼 효돈천은 돈내코 계곡을 거쳐 상호동 침오름 상류에서 다시 합류한다. 정상에서 발원한 주류와 합류한 계곡은 백록계곡(선돌계곡)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주류이다. 합류지점에 이르러 계곡은 더욱 넓고 웅대해진다.



그림 2-19. 돈내코 원앙폭포

효돈천은 남원읍 하례리 지역에 위치한 걸서악을 만나 남쪽으로 유로를 바꾸면서 하류 해안 ‘쇠소깍’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된 효돈천은 해안에 이르는 동안 주변에 많은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서귀포시와 남원읍을 끼고 있는 효돈천 유역에는 9개 마을이 들어서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하효와 신탄령, 토평, 서상효, 동상효, 법호촌, 웃법호촌, 입석동이 그것이고 남원읍 지역에는 하례마을이 자리해 있다. 이들 지역에는 3,900여 세대에 1만 3,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효돈천과 더불어 동고동락해 왔다. 하류는 주로 효돈과 하례리 주민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해안 쇠소깍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긴소, 웃소, 댕물, 남내소 등 크고 작은 소(沼)들이 이어진다. 주민



그림 2-20. 효돈천 산벌른내의 비경



그림 21. 효돈천 상류는 노루가 집단서식하는 공간이다.

들은 이곳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주민들은 예로부터 돈내코와 백록계곡의 용출수를 식수로 이용해왔다. 하천변에서 감귤 등 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효돈천의 풍부한 하천수를 양수기로 끌어다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이른바 물맞이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다.

효돈천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 중에서도 영천관은 서귀포시가 간직한 몇 안 되는 문화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관아 터로, 도내 술한 관아 유적 중에서도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발굴과 복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영천관은 그 주변에 영천사지와 기생의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는 예기소, 사철 물이 그치지 않는 계곡과 울창한 난대림 속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문화 관광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례 지경에는 한때 도 전역에 비석을 공급했던 채석장이 확인됐다. 채석이 이루어졌던 현장에는 지금도 비석 잔해가 곳곳에 남아 있으며 깎인 절벽 암석이 난대 활엽수림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내 거의 모든 하천은 건천(乾川)이다. 그래서 많은 하천들은 빼어난 경관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준다. 효돈천도 엄밀한 의미에서 건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그림 2-22. 효돈천 발원지인 남벽 부근

어느 하천보다 하천수가 풍부하고 곳곳에 폭포수를 빚어내고 있어 건천임을 무색케 한다. 도내에서 으뜸가는 하천계곡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중에서도 돈내코와 백록계곡, 민가 인근에 발달된 갖가지 소들은 효돈천이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해발 1,680m의 백록샘은, 한라산은 물론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샘으로 바로 효돈천의 한 줄기이다.

효돈천의 수자원은 선돌계곡(백록계곡)과 돈내코계곡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이른바 물 좋기로 소문난 이곳이 있었기에 효돈천의 명성을 빛낼 수 있었다. 하나같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대 사이로 한여름에도 얼음같이 차고 맑은 물이 그칠 줄 모르고 용출하는 모습은 대부분 건천인 계곡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선돌계곡은 해발 575m 지점에서 용출, 남서교 상류 선도암 부근에 이르기까지 맹렬한 기세로 용암으로 뒤덮인 하상을 흐르고 있다. 용출지점 하류에는 간이취수장이 설치돼 있으며 입석동과 하례리의 일부 주민들이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돈내코계곡은 해발 385m 지점에서부터 용출한 하천수가 울창한 천연림을 뚫고 흐르면서 돈내코계곡을 대표적인 생태휴식관광지로 부각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 두 지점의 용출수는 침오름 앞에서 하나로 모여 효돈천 하류로 이어진다. 계곡은 상호와 효돈, 하례리 마을을 끼고 크고 작은 소(沼)를 빙어내며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뽐낸다.

동홍천

동홍천은 정방천으로도 불린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정방하폭(正房下瀑)’으로 유명한 정방폭포를 하구에 거느리고 있는 하천이다. 정방폭포에서 바라보는 해안 풍광은 한 폭의 그림이다. 동쪽으로부터 쏜섬(쑤섬)과 문섬, 새섬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면에 배치돼 있다.

옛 사람들의 감흥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와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지》,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는 정방폭포의 빼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글이 실려 있다.

원진 목사가 읊은 시 한 구절도 그런 예찬송의 하나이다.

절벽 낭떠러지에 채색안개 걷히니 / 나는 문득 폭포가 하늘가에 걸린 것을 보았네 / 은하수는 바로 큰 바다로 떨어지는데 / 8월의 뗏목 위에서 나도 신선을 닮고자 하네

정방폭포는 빼어난 경치와 함께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진시황에게 바칠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남동녀 500명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



그림 2-23. 동홍천 하구 정방폭포

인 한라산을 찾아왔던 서복(徐福)과 관련된 전설이 그것이다. 진시황과 서복의 불로초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로 치부되었으나 향토사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 역사적인 사실로 점차 규명되고 있다.

정방폭포 상류 정방수원지 상류 50m 지점(일주도로변 서신교에서는 20m 하류)에는 폭포를 거느린 커다란 소가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냉이소’라고 불린다. 폭포는 높이가 5m쯤 되며 그 아래 물웅덩이는 원통형 모양으로 직경이 10m가 넘는다.

동홍천 하류 일주도로변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귀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산남지역의 많은 원로들이 서귀중학교가 배출한 인물들이다. 1936년 5월 개교해 1950년 서귀농업중학교로 개편되었고, 1951년 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령에 의해 서귀중학교로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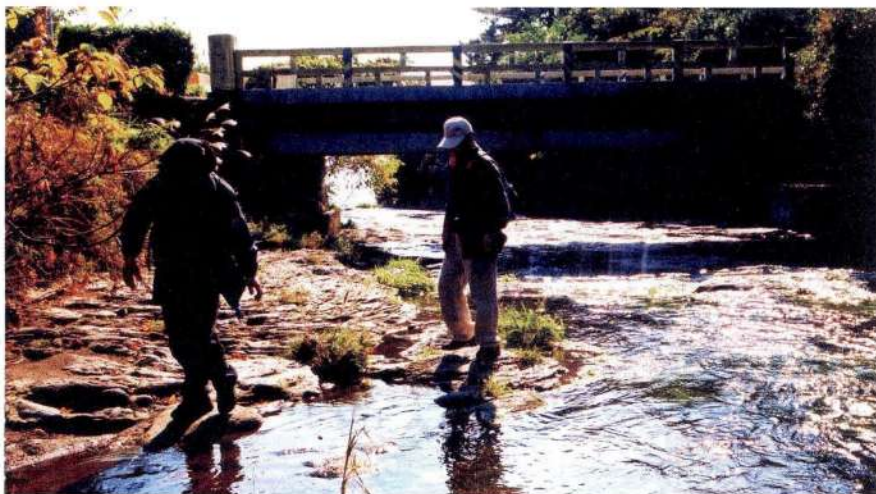


그림 2-24. 동홍천 하류에는 친수공간이 많다.

동홍천은 주민들에게는 ‘애리내’·‘애릿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애린내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래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하천 주변에 애기무덤과 골충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대신로(일호광장에서 동홍동으로 이어지는 길)는 구덕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던 아주 좁은 길로서 그 길도 ‘애린내길’이라고 불리었다 한다.

애린내라는 명칭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발을 일구러 왕래하다 보면 죽은 아기를 애기구덕에 들고 와서 하천 부근에 묻고 그 위에 애기구덕을 얹어 놓은 광경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었다 하면서 하천 부근에 묘를 쓰는 것과 연관지어 지명이 유래된 것이 아닌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옛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무덤들이 있던 자리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일부에서는 동홍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아랫내’·‘애릿내’ 등으로 불린다는 설도 있다.

정방천의 주류인 서귀포시민회관 일대는 복개돼 외형상 하천의 흔적이 사라졌다. 시민회관 일대를 벗어나면 빼곡하게 들어찬 주택가 사이로 정방천의 흔적이 유

지되고 있을 뿐이다.

중앙동을 지나 동홍동사무소에서 중산간도로를 따라 서쪽 150m 지점에 동홍교가 있다. 바로 그 아래에 5월 장마 때 천둥 치고 난 후 구멍이 터진다는 ‘산뒹물’·‘산지뒹물’·‘산지천’이 자리잡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지명과 유래이다. 제주시에 최근 복개하천이 복원된 산지천과 이름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인연도 깊다. 유래에 따르면 제주시 산지천을 ‘큰딸’이라 불렀으며 겨울에는 딸이 친정에 가기 때문에 여름에만 솟아난다고 하였다.

동홍천 상류는 마을권을 벗어난 목장지대이다. 서귀포지역 최대 목장지대인 금성목장이 있는 곳이다. 동홍천 상류는 아직도 하천화가 진행되는 흔적들이 엿보인다.

하천은 미악산에서 서쪽 직선 방향에 이르면 급격히 좁아진다. 폭이 5m 이내로 어떤 곳은 나무들로 빼곡히 채워져 1m 안팎에 불과한 곳도 있다. 발원지에 가까운 동홍천 상류는 미악산 서쪽을 휘감아 복서진하고 있다.

미악산 동쪽에는 효돈천이 자리잡고 있다. 한라산 서벽과 남벽에서 발원한 효돈천은 산별른내와 돈내코를 거쳐 효돈 쇠소각으로 이어지는 대천이다.

강순석 박사는 동홍천과 효돈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효돈천은 원래 한라산 정상부에서 발원하여 직선상으로 흘러 서귀포시의 ‘애이리내’(동홍천)로 이어져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왜 효돈천이 중상류에서 오른쪽으로 휘돌아 흘러 멀리 효돈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연속적인 용암류의 분출이 하천의 유로를 결정하였고, 해발 450m의 중산간지대에 자리잡은 미악산의 화산분화활동은 효돈천의 유로를 가로막아 효돈천을 오른쪽으로 발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을 다시 풀다면 미악산의 화산분출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효돈천은 돈내코와 상호·하효·하례리를 거치지 않고 미악산의 화산분출활동 이전에 형성된 고(古)하천을 따라 동홍천 주류인 서귀포 중심부를 관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외천

서귀포에서 바라본 한라산은 그 품에 70리의 꿈을 껴안고 있다. 지난날 웅기종기 초가가 들어섰던 자리, ‘돌빌레왓’의 자리에 아담하게 가꾸어진 전원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서귀포시의 색깔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곳이 천지연이고 그 하류에 살포시 자리잡은 항구가 바로 서귀포항이다.

서귀포를 수전포(水戰浦)라고도 했는데 항구가 매우 넓어 절벽을 의지하면 수백 척의 배를 감춰 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연외천의 하구는 바로 서귀포항이다. 또 서귀포항 맞은편에 버티고 서 있는 무인 섬인 새섬(일명 조도)이 하구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형태이다. 한때 허허벌판이었던 새섬은 지금은 울창한 소나무림으로 변했다.



그림 2-25. 연외천 하구 서귀포항 전경

천지연과 서귀항으로 연결된 하천의 정식 고시된 명칭은 연외천(淵外川·지방2급)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연외천은 서홍동에서 발원해 천지동 해안으로 이어지며 주류 하천의 총연장은 9km이다.

연외천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서로 다르다. 연외천(서홍동, 서귀동), 생수천·서홍천(서홍동), 호근천·원제천(호근동), 그리고 천지연 폭포 상류 연외천과 호근천이 합류하는 곳에서는 '선반내'(畝반내)로 불린다. 지류까지 합치면 연장은 30.2km에 달한다는 게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항공에서 위성 촬영한 연외천의 하계망을 보면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는 하천 지명만큼이나 실핏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연외천 하구 유람선이 있는 곳은 고둥이 잘 잡히는 곳이라 하여 '문다두리코지'라 불렸던 곳이다. 또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고래공장 터로 일본인들의 포경산업 전진기지였다. 고래공장 터 서쪽 해안 절벽지대가 바로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이다.

서귀포층은 신생대 제4기(플라이스토세) 초기(약 164만 년~73만 년 전)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다. 1923년 일본인 고생물학자인 요코야마 박사에 의해 최초로 연구조사된 이후 지난 1995년 강순석 박사(현 제주지질연구소장)가 이곳에서 77종의 패류화석을 분류하여 보고했다.

약 100만 년 전 당시의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서귀포층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으며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층의 화석을 연구해야만 가능하다. 서귀포층의 연구에 의해서만 당시 동북아시아의 고환경 연구가 가능할 만큼 서귀포층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강순석 박사)

서귀포의 자랑인 천지연도 연외천 하류에 있다. 연간 국내·외 관광객 150여만 명이 찾는 곳. 기암절벽이 하늘을 가릴 듯이 치솟아 있다. 그 절벽에서는 하얀 물줄기



그림 2-26. 솜반내

가 무지개 빛을 뿜으면서 쏟아져 내린다. 계곡 양쪽에는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선계(仙鼎)가 있다면 이곳을 일컬었으리라.

천지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모두 세 곳이나 된다. 난대림지대(379호)와 담팔수 자생지(163호), 무태장어 서식지(27호)가 바로 그것이다. 단일 지역에서 세 곳이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천지연 일대는 1980년대 들어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4년 전국소년체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상가가 조성되고 대규모 주차장이 정비됐다. 천지연 하류에 있던 무허가 건물도 상당수 철거됐다.

천지연 계곡 중앙에 있었던 서귀포수력발전소와 호텔(부림장) 터는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194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수력발전소는 1970년대 초 제

주.한림발전소의 전력공급량이 늘기 전만 해도 서귀포 일대에 전력을 생산해 공급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천지연으로 이어지는 하천 줄기 중에는 ‘하논’이라는 비경이 감춰져 있다. 하논은 논이 많아 ‘대답(大畓)’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형 분화구일 뿐만 아니라 수만 년 전 고환경의 비밀이 숨어 있는 퇴적층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곳이다. 생태학자들은 이곳을 생태복원해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 사람들은 천지연폭포 상류 하천을 가리켜 솜반내(선반내)라고 부른다. 연중 용출수가 흐르는 이 곳은 물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여름철 시민들의 냉수욕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솜반내 일대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됐다. 걸매공원이 그것이다. 솜반내와 옛 선일포도당 공장 일대에 조성된 걸매공원은 연중 흐르는 풍부한 용출수와 하천, 울창한 난대 상록활엽수림, 야생 조류가 풍부해 생태공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다리 쪽에 이르면 솜반내의 용출량은 절정을 이룬다. 서홍다리에서 연외천은 합류한다. 한쪽은 호근동에서 내려온 줄기이고 다른 한쪽은 서홍동사무소 옆을 지나쳐 남류하는 연외천 본류이다.

서홍다리를 거슬러 호근동 방면은 연외천 본류에 비해 훨씬 많은 수량을 용출하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맑고 풍부한 수량을 간직한 연못들을 가리켜 ‘종남소’·‘웃솜반내’·‘도암소’라 부르며 미역을 감고 더위를 식혔다.

그러나 용출량은 갈수록 줄어 옛 솜반내의 명성도 잃어가고 있다. 콘크리트로 둘러쳐진 용출 지점 곳곳이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채 메말라 있고 물이 흐르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다.

연외천 주류의 발원지가 가까워지면 계곡은 지면과 거의 평탄면을 이룬다. 대개의 하천이 그렇듯이 발원지에 가까워지면 이내 계곡의 모습을 감춰버린다.

도순천

강정은 예부터 ‘일강정(一江汀)’으로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쌀이 귀한 제주지역에서 이곳 강정에서 생산되는 쌀 품질이 제일 좋다는 평가에서 유래된 말이다. 밭벼에서 나온 쌀마저 맛보기 힘들었던 시절에 ‘나룩’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 지역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일강정은 이런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다.

강정의 자부심은 이런 논에서 솟아났고, 그 바탕에는 사철 흐르는 강정천(옛날에는 加內川, 또는 加來川이라고도 불렸다)이 있기에 가능했다. 강정천의 공식 하천명은 도순천이다. 벼농사가 성행했던 강정천 하류에는 선사 시대 유물이 집중분포한다. 유물산포지는 ‘썩은섬’에서 월평동 ‘동물개’에 이르는 10만여 평의 면적을 자랑하며 산남 일대에서 가장 넓은 유물산포 범위를 갖고 있다.



그림 2-27. 도순천(강정천) 하구

물 좋기로 소문난 강정 하구는 매년 여름철이면 몸속까지 차갑게 느껴지는 계곡 물을 벗삼아 은어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하구의 조금 위쪽에 강정취수장이 있다. 강정취수장은 지난 1971년 시설용량 5,000t 규모로 1차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 이래, 1981년부터 현재 상태인 2차 공사로 이어졌다. 강정천의 1일 취수량은 2만 7,000t이다. 1993년 보조수원으로 개발된 악근천의 물을 추가로 공급받아 이 일대에서만 하루 3만 5,000t이 취수되고 있다. 9만 명에 가까운 서귀포 시민 중 70%에 이르는 5만 7,000여 명이 강정물을 식수로 먹어 왔으니 서귀포의 생명수나 다름없다.

취수장 상류에는 ‘넛길이소’가 위치해 있다. 강정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난날 일강정(一江汀)의 꿈을 키워내고 다시 미래로의 제일강정(第一江汀)의 꿈을 빚어내는 곳이 바로 강정천 넛길이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넛길이소는 주위의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소를 에워싼 주위의 절벽이 일품이다. 주민들은 폭포와 암벽, 은어, 깨끗한 물 등 네 가지가 길상(吉



그림 2-28. 도순천 하류 넛길이소

相)이라 하여 ‘넋길이소’로 불렸다고도 전한다.

우회도로 제2도순교에서 하류 200m 지경은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도순천은 하류에서는 강정천이라 불리지만 이곳 도순지역의 지명에서 하천지명이 고시됐다. 제2도순교 방면이 영실로 향하는 주류이고 동북쪽으로 이어진 하천은 녹나무 자생지로 이어진다. 도순천(강정천)의 분수령이 된 곳이다. 도순 주민들은 이 합류지점을 ‘거린내’라 부른다.

녹나무 자생지는 제3도순교 주변에 위치해 있다. 이곳 녹나무 자생지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16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은 도순천 상류에 있는 마을이다. 이 하천의 발원지인 영실의 행정구역이 바로 하원이다. 영실은 하원동 산1번지이다.

하원에는 귀중한 역사·문화 유물들이 많아 관심을 끈다. 제주 선인들은 샘이 흐르거나 물이 있는 곳에 터전을 정하고 그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빚어냈다.

서귀포 우회도로 탐라대학교로 통하는 세거리 서측에 위치한 법화사와 강정천 두 주류 사이에 있는 왕자묘는 하원마을뿐 아니라 제주의 중요한 역사·문화유적으로 손꼽힌다.

법화사(法華寺)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水精寺), 삼양동 원당사(元堂寺)와 더불어 제주지역의 대표적 사찰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고려 원종 10년(1269)~충렬왕 5년(1279)까지 중창된 기록이 있는 명문기와가 출토돼 이 시기에 크게 번창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교세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여 16~17세기에는 사찰의 명맥만 유지되다가 18세기에는 터만 남게 되었다. 이때부터 찬란했던 불교문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1914년 도월(道月) 선사가 폐사된 법화사 터에 포교소를 설치했으나 한국전쟁 당시 모슬포육군훈련소 제3숙영지로 사용되면서 절터는 더욱 훼손되었고, 1960년쯤 숙영지로 사용됐던 일대의 초가를 헐어내고 정지 작업 중 직경 80~120cm의 주초



그림 2-29. 도순천 중류 법화사지에 복원된 구품연지

석(株礎石)과 거대한 지대석들이 발견돼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해주었다.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1982년부터 모두 8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1987년에 지금의 대웅전이 복원됐고 구품연지(九品蓮池)의 존재가 확인돼 1,600여 평 규모로 복원됐다.

법화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하원동 분묘군’이 있다. 일명 ‘왕자묘’라 불리는 분묘로, 영실에서 발원한 강정천 두 주류의 사이 해발 200m 지경 나지막한 능선상에 위치해 있다. 묘가 위치한 곳은 이곳 지명으로 ‘웃간장’이라 하며 마을 주민들에 의해 ‘왕자골’이라 불린다. ‘웃간장’의 ‘간장(間場)’은 대정현 관아의 8소장(八小場) 간에 위치해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분묘 3기가 남북으로 연결된 이 묘들은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인지, 아니면 원(元)의 양왕자(梁王子)와 관련된 분묘인지를 놓고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여전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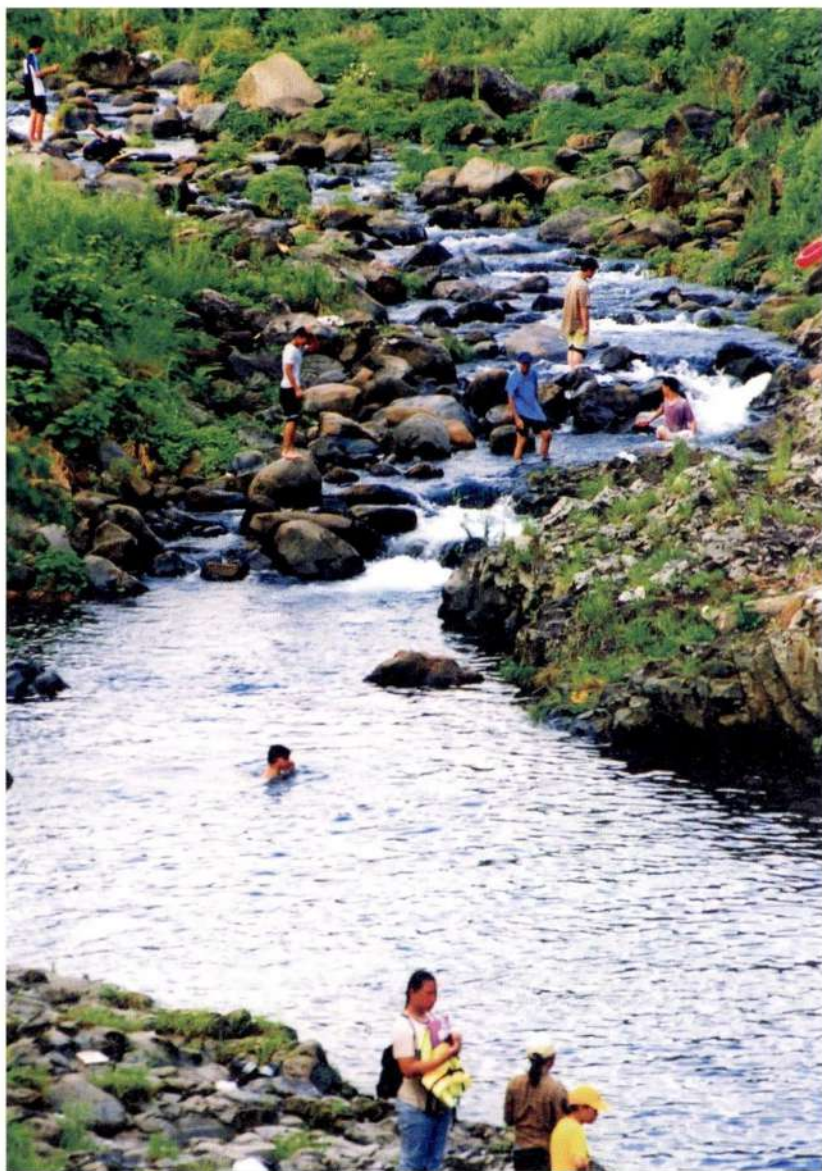


그림 2-30. 강정천 하류는 친수공간이다.

왕자묘는 일제강점기에 심한 도굴로 인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이후 현재 문화재당국에 의해 복원된 상태이다.

도순천 변 법정악 일대에는 삼림욕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이 조성돼 있다. 1995년 개장한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숲 자체가 휴양림이기도 하지만 삼림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 유전자보존림이라 할 만한 영실 소나무림 등반로 옆 계곡은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간 반갑지 않은 생명수이다. 이 하천은 영실계곡에서 시작됐다. 바로 도순천의 발원지이다.



그림 2-31. 도순천 발원지 영실

제주의 대표적인 비경을 간직한 영실은 종전까지 알려졌던 계곡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도내 최대 규모의 분화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화산지질학계의 권위자로, 현장 답사에 참가했던 부산대 윤성호 교수는 “영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구 중앙에 거대한 돔을 갖춘 분화구”라고 강조했다.

용암절벽이 파노라마처럼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절벽 상단에는 갖가지 군상들이 호령하듯 버티고 서 있다. 바로 오백나한이다. 절벽 틈으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용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직 절벽에는 진녹색의 부처손이 다닥다닥 붙어 절벽과 고락을 같이하고 있다.

도순천은 결국 영실 병풍바위 일대 해발 1,600m 부근에서 발원해 남서류하다 강정하구로 이어지고 있다.

영실 서북쪽 불래악 남쪽 기슭에는 국성재를 지냈던 존자암이 있으며, 영실 동쪽에서는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수행굴’의 존재가 확인됐다. 수행굴의 발견은 존자암과 더불어 제주 불교유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화두를 던졌다.

중문천

중문천은 현대 제주관광의 효시격인 중문관광단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제주에서 경관이 빼어나기로 소문난 3대 폭포(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계곡에 있는 천제연 3단 폭포이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한 공식 하천 지명은 중문천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성천’·‘베릿내’·‘천제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2-32 중문천 하구 베릿내포구

성천포구(星川浦口)는 중문동 베릿내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미역이 많이 생산되던 곳으로 테우와 고기잡이배들을 정박시키고 폭풍 재난을 막는 데 계곡을 끼고 있는 성천포구는 안성맞춤이었다.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던 이곳은 어민들이 1970년대 말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뿔뿔이 흩어져 추억 속의 마을이 되었다.

성천포구 사람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이곳엔 개밭과 레저바람을 타고 마린파크와 요트장이 들어섰다. 베릿내어촌박물관은 천제연폭포의 계곡물이 바다와 만나는 포구에 ‘별이 내리는 내(川)’라는 뜻의 베릿내마을 옛 모습을 복원시켜 놓은 것이다.

성천포의 근간은 베릿내오름(성천봉)이다. 베릿내오름은 천제연폭포가 바다와 만나는 하구 부근에 분화한 기생화산체이다. 베릿내오름 앞쪽에는 논농사를 짓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에 논농사가 가능했던 데는 대정군수 채구석의 공이 있었다. 1907년부터 2년 동안 베릿내오름 남쪽에 5만 여 평의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자, 일주도로변 1단 폭포에서부터 이곳까지 수로를 만들어 옥도를 만들었다. 현재 그를 가리는 기념비가 천제연 1단 폭포 옆에 세워져 있다.

계곡 곳곳에서는 용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천제연계곡은 1단 폭포와 웃소, 2단 폭포와 알소, 3단 폭포와 진소 및 가래소를 이루는 특수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계곡 양변에는 상록수림이 잘 발달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림 2-33. 천제연 삼단폭포 중 하나

천제연 난대림지대는 1993년 천연기념물 제378호로 지정됐다. 천제연 계곡에는 도지정문화재 제14호인 담팔수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녹나무·산유자나무·구실잣밤나무 등의 난대식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희귀종인 솔잎란이 분포하고 있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매우 큰 난대림지대이다.

하지만 1단 폭포 하단부의 병풍처럼 둘러싸인 주상절리가 교량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제로 1단 폭포의 전면에 발달된 주상절리들은 1겹 내지 2~3겹으로 하단부가 떨어져 나가 상부의 주상절리 기둥만이 폭포 전면에 매달려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천제교에서 제2천제교 간 700m 지점은 하천폭이 넓고 용암류의 큰 바위들이 산재해 있다. 천제교에서 상류 150m 하천 서쪽에는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마치 서귀포 해안에 있는 외돌개를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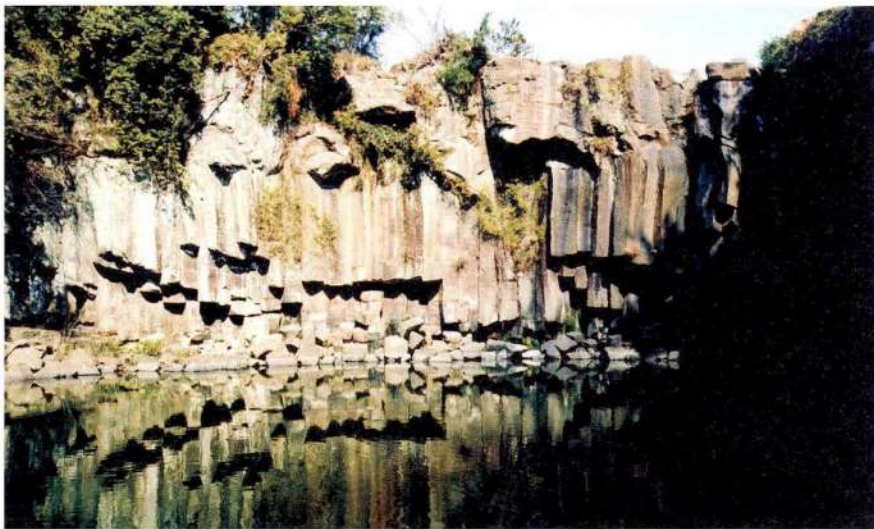


그림 2-34. 천제연폭포의 주상절리

이 일대는 우기 때를 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지만 1단 폭포에서 200m 올라간 곳에 ‘천지연 구멍’이라는 샘이 있다. 천제연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구멍’은 여름철에 천등과 함께 비가 많이 내리면 샘이 솟아나는 데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심이 적당하며 수영하기에 적합하여 중문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 물이 흘러 내리면 옷소에 폭포를 이루어 천제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천제연 폭포의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한다.

천제연 1단 폭포에서 상류 쪽 400~500m쯤 지점에는 ‘울리소’라고 불리는 매우 풍취가 빼어난 곳이 자리잡고 있다. 냇바닥이 매끄럽고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어 오리떼가 이곳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로 위에는 선인들이 원시 생활을 했던 다람쥐굴이 있다. 냇가의 동쪽 절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굴로



그림 2-35. 중문천 하구

다람쥐가 많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됐다. 현재는 이곳에 중문마을 본 향신을 모신 큰 당이 있다. 궤 안에 제단이 놓여 있다.

1단 폭포 상류 북쪽 약 1,130m 거리에 있는 중산간도로 교량이 동·서를 잇는 중문교이다. 중문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웃넷도’라고 불렀다.

중문교를 지나면 하천 서쪽에 그릇의 덮개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다. 그래서 ‘두깨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또한 물고기가 입을 벌린 머리 모습을 해서 ‘두어(頭魚) 물’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다. 비교적 출입이 쉬운 곳으로 냇바닥이 암반으로 넓게 흠을 이루어 많은 물이 고여 예로부터 부근에 살았던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다.

‘두깨물’에서 100m 북쪽에서 중문천은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상류에서 두 줄기로 남류하던 하천이 이곳에서 하나로 모여 천제연폭포와 성천포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중문마을에서 북서쪽으로 2km 정도 거리에 있다. 주민들은 이 부근에서 동·넋내와 서·넋내가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가른내’라 부른다. 주변에는 구실잣밤나무가 울창하다.

천미천

천미천은 제주의 하천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도 긴 하천이다. 이 하천의 유역은 제주시 동남부지대와 조천읍, 구좌읍을 거쳐 표선면과 성산을 경계에 걸쳐 있다. 하천 주변에는 오름이 집중 분포해 있으며, 이들 오름은 천미천의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천미천은 본류 이외에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은 지류를 아우른다. 크고 작은 형태의 수많은 하천을 거느리다 보니 우기 때면 하천의 집수 역할로 빗물이 일시에 몰려 범람이 잦기도 하다. 성읍민속마을과 신천, 신평, 하천리는 그 대표적인 마을들이다.



그림 2-36. 천미천 하류

1861년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대동여지도>에는 제주지역 하천과 오름의 지맥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 특히 천미천(蓋老川)은 줄기가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돼 있어 실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에는 천미천을 개로천(蓋老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도에 따라서는 介路·介老川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천미천의 하구 마을인 하천리(下川里)가 천미촌(川尾村)으로 불리기도 했다.

천미천은 돌오름·어후오름·물장을 등 여러 갈래에서 발원한다. 천미천 하류의 하천은 그 폭이 약 100m에 달하지만 발원지는 불과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개천의 형태이다. 지형도상에서의 천미천은 손바닥 손금 모양, 혹은 나뭇가지 모양을 닮았다. 이른바 수지형(樹枝形) 하천으로 분류된다.

나뭇가지 모양의 하천인 천미천은 큰 물줄기를 이루는 본류로 이어지기까지 60여

개의 하천과 합류한다. 이들 크고 작은 형태의 지류들이 본류로 모여 거대 하천이 형성된다. 천미천을 하류(해안~성읍2리 입구)와 중류(성읍2리~교래4거리 돛배오름 일대), 상류(돛배오름~발원지)로 분류할 때 중류지역의 하계망이 매우 복잡하다. 이 지역에서만 하천이 50개 가까이 생성, 천미천 본류로 합쳐진다. 특히 산굼부리 주변 제동목장 일대와 성읍2리 마을 부근이 가장 복잡한 하계밀도를 보인다. 이에 반해 성읍2리 마을에서 해안 저지대를 잇는 하천 본류지역에서는 하계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천미천은 하천변 오름의 형성과 그 화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오름을 빼놓고는 천미천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천미천에 영향을 준 오름은 대략 상류 17개, 중류 23개, 하류 4개 등 40여 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돌오름, 어후오름, 불칸디오름, 물장울, 개오리오름, 돛배오름, 물чат오름, 말чат오름이 천미천 상류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름들이다. 중류는 산



그림 2-37. 영주산 인근 사행천

굼부리, 부대악, 부소악, 비치미오름, 개오름,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천(大川)을 이루는 본류에 해당하는 하류는 영주산과 남산봉, 달산봉이 하천지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오름들은 하천의 생성원인이 됐거나 하천의 유로를 바꿔 놓았다. 특히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들은 하천을 겹겹이 피복하는 역할을 했다.

천미천은 일반적으로 형성시기가 늦어 아직도 하천화가 진행되는 하천으로 분류된다. 이런 징후는 곳곳에서 목격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측방침식과 하천의 범람이다.

천미천은 실개천이 모여 하천과 계곡을 잉태시켰고 수십km를 내달려 마침내 바다와 만난다. 천미천은 한라산 돌오름에서 발원해 제주시 봉개동과 조천읍, 구좌읍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우회해 표선면과 성산읍을 경계로 남류(南流)한다.



그림 2-38. 물장울



그림 2-39. 천미천 상류 절벽지대

마을과 하천 간에 거리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주시 봉개동을 비롯해 조천읍 교래리, 구좌읍 대천동, 표선면 성읍1·2리, 하천리, 성산을 신평리, 신천리 등 8개 마을이 천미천 유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대부분 하천을 경계로 양쪽에 위치해 있어 설촌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이 중에서도 조천읍 교래리와 표선면 성읍·하천리, 성산을 신평·신천리가 대표적이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천미천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같이해 왔다. 호우 때면 도내 최대 범람지역이어서 가옥은 물론 애써 가꾼 농경지와 작물

들이 한꺼번에 빗물에 잠기거나 쓸려 내려가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도 주민들은 오늘날까지 수백 년 세월을 인내하며 마을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오고 있다.

천미천 주변 곳곳은 도내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은 역사·문화유산과 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도내 최대 역사·문화·관광지인 성읍민속마을이 천미천을 끼고 있다. 목장지대인 성읍2리를 거슬러 대천동은 동부관광도로와 비자림 및 산굼부리를 잇는 교통 요충지이다.

산굼부리를 지나면 설촌유래가 700여 년이 되며 한때 중산간 최대 마을로 그 세가 컸던 교래리가 위치해 있다. 4·3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조천·함덕

리로 이주해야 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니월드와 돌문화공원이 들어서서 등 역사문화·생태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중천

서중천은 감굴의 고장을 따라 흐르는 제주 동남부의 주요 하천 중 하나이다. 동남부권에서도 주로 남원을 지역을 관통한다. 남원리와 태흥리, 의귀리, 한남리가 서중천 하류 주변 마을들이다.

서중천은 한남리에서는 한남천, 의귀리에서는 의귀천으로도 불린다. 한라일보 탐사팀이 이 구간을 탐사할 때에는 역사적인 한일월드컵이 열렸다.



그림 2-40. 하천이 정비되면서 원형을 잃어버린 모습

서중천은 제주도 지정 2급 하천이다. 국립공원 외곽 하천관리구역은 남원읍 한남리 산2-1번지에서 남원읍 태흥리와 남원리를 거쳐 해안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12.01 km이다. 그러나 이 시발점이 곧 서중천 발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탐사 결과, 서중천은 한라산 해발 1,280m 일대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고 있다. 흙붉은오름은 제주시 동부 화북과 거로마을을 관통하는 화북천도 발원시키고 있는 오름이다. 서중천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남쪽을 연결시키는 하천을 발원시킨 것이다.

서중천 발원지는 한 곳에 한정돼 있지 않다. 여러 갈래에서 발원한 실핏줄 같은 줄기가 모여 비로소 본류를 형성하고 있다. 발원지에는 샘물이 용출하고 있다. 이곳은 치성터로도 알려져 있다. 화구 깊숙이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따라 하천이 발원하고 있다. 선인들은 이곳 샘물로 목욕재계하고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얻게 된다고 믿어왔다.



그림 2-41. 말 방목지(남원읍 의귀리 일대)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한 서중천은 한라산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동남 방향의 유로를 보인다. 물오름 앞 성판악휴게소 인근에서 시작된 여러 작은 주류들이 본류와 합류하고 여기에 성판악에서 시작된 주류가 다시 모이고 있다.

숯터널 인근 동수교를 지나 해발 420m 부근에서 서중천은 성판악 인근에서 뻗어나온 주류와 만나 가파르게 남류하다가 남원을 한남리와 의귀리 경계 지점인 해발 100m 상류에서는 다시 태흥과 남원 해안을 향해 두 갈래로 갈린다.

특히 서중천 5·16도로변 해발 700~800m 일대는 수많은 실개천이 얹혀 복잡한 하계망을 띠고 있다.

서중천을 얘기할 때 의귀리의 말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탐사팀은 서중천을 탐사하면서 제주의 마(馬)문화를 새삼 되새기는 기회를 얻었다. 서중천변 의귀리는 현마공신 김만일의 족적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제주의 역사는 마정(馬政)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적 조건이 말 기르기에 적합해 원(元)이 몽고마를 전래해 섬을 목장화한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제주는 국내 최대의 말 공급지로서 기능을 다하였다.

영조 임금이 제주도를 일컬어 ‘국마의 부고(府庫)’라고 일컬었으며, 제주목사 이형상은 “섬(제주도)에 일은 마정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이다. 제주에서 말 공급은 조선 태조 3년에 100필을 바친 것을 시작으로 태종 10년에는 600필을 바친 것으로 《태종실록》이 전하고 있다.

특히 제주마와 관련한 현마공신 김만일(1550~1632)의 족적은 뚜렷하다. 임진왜란으로 중앙정부가 전마 부족에 시달리던 중 김만일은 정부 요청으로 여러 차례 말을 진상했다. 선조 때 정의현 의귀리 출신의 김만일은 사목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선조 33년과 광해군 12년에 전투마 500필과 300필을 각각 바침으로써 현마공신의 호와 오위도총부 부총관직(정2품)을 제수받았다.

이 같은 공로로 감목관에 임명되고 그 후손이 이를 대대로 세습하는 등 제주목장사에 이름을 날렸다. 남원을 의귀리 서중천변에 위치한 ‘반디기밭’ 일대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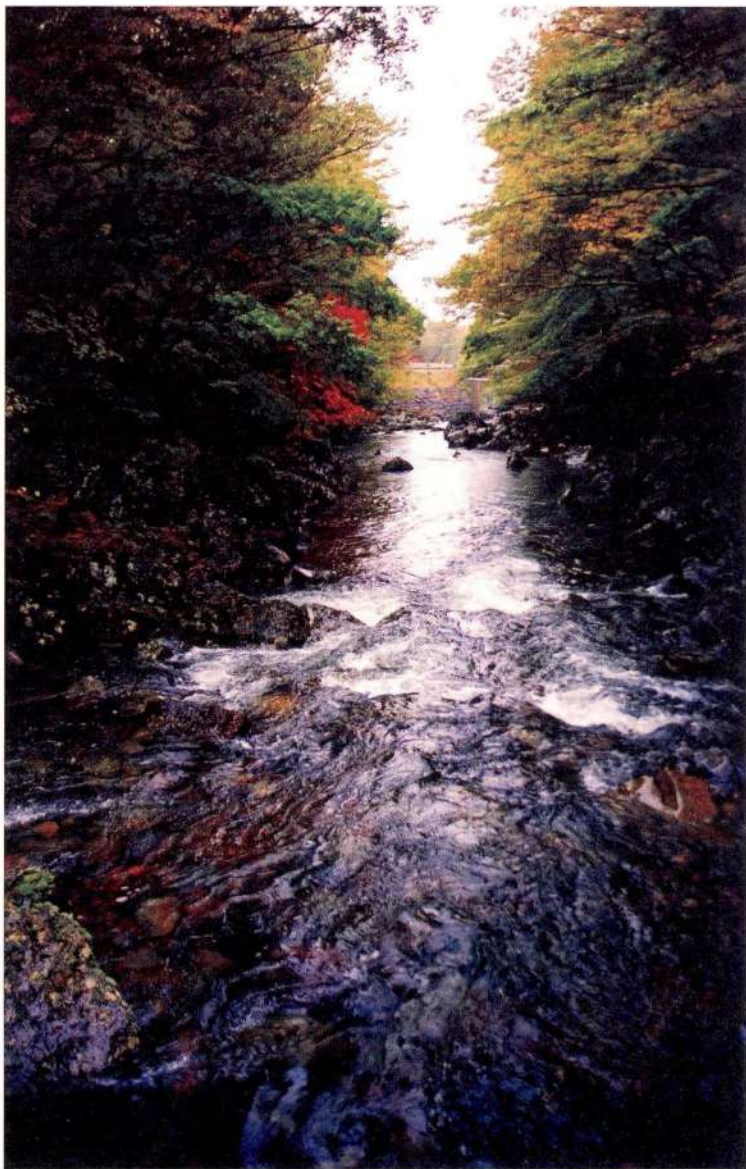


그림 2-42. 5·16도로변 서중천



그림 2-43. 서중천변 동수악

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마문화가 이처럼 제주역사에 핵심영역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문화자원화하는 노력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충분한 역사적 사료와 제주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의 행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김만일가의 무덤에 있는 동자석이 도굴꾼에 의해 훼손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동국대 남도영 교수는 “제주의 소중한 마문화 유산은 시급히 발굴, 복원, 보호되어 후손에게 참되게 전승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비’라는 이름 아래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사업의 문제는 서중천 탐사와과정에서도 재연됐다. 하천정비가 재해예방에 치중한 나머지 하천보호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원형을 깨부수는 정비가 과연 친환경적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등이 하천정비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시각에도 우리 시대 우리 손에 의해 자연유산인 하천은 야금야금 잠식되며 제모습을 잃고 있다.

신례천

신례천은 남원읍 하례리와 신례리 경계를 가로지른다. 서귀포 효돈천 돈내코계곡과 더불어 전 구간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효돈천은 하구를 기준으로 신례천 바로 서쪽에 위치한 하천이다.

신례천 하구 일대는 ‘공천포’(公泉浦, 貢泉浦)로 알려진 신례2리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이다. 공천포는 마을 지명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그림 2-44. 신례천 하구의 공천포구

칼칼 솟는 샘이 많아 남원읍과 산남지역은 물론 제주섬 제일이라고 할 만큼 명성이 자자했다. 검은 모래사장과 그 한가운데에서 사철 솟는 ‘영등물’, 신례천 하구 삼각주 인근에 있는 ‘산이물’, 롯데공장 부지가 있는 ‘물난발’ 등 마을 한복판과 바닷가 등 마을 어디에서나 용천수가 솟았다.

하구의 폭이 무려 100m나 된다. 바로 앞쪽 해상에는 지귀도가 손에 잡힐 듯하다. 이곳 주민들은 넓고 평평하게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암반지대를 가리켜 ‘밥주리 빌레’라고 불렀다. 확실치는 않지만 밥주리새(참새)들이 떼를 지어 이곳에 자주 몰려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주위 일대를 내가 끝나는 곳이라 하여 ‘내각’이라고 부른다.

하구와 바로 맞닿은 곳에 대규모 삼각주가 형성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 주민들이 속칭 ‘명살’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남북 200m, 동서 약 30m, 면적 3,000여 평이나 되는 이 삼각주에는 주택은 물론 과수원과 체육시설까지 들어서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하천 내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다.

삼각주 서쪽 콘크리트 포장다리 아래는 ‘산이물’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물이 워낙 깨끗하고 차가워 식수로 활용됐으며 여름철에 몸을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다. 예전에는 장어와 많은 은어가 서식했으나 지금은 은어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장어는 멸종되었다.

공천포의 풍부한 용천수가 점점 그 자취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잇따른 지하수 개발로 용천수의 수위가 줄어 어떤 곳은 아예 물이 솟지 않고 흘러도 그 양이 급격히 줄었다. 어떤 곳은 오염 피해를 받기도 했다. 하천의 용천수도 아예 모래와 자갈로 뒤덮였고 여름철 큰 내가 칠 때를 빼곤 이젠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공천포 주민들과 이 마을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있다.

지형도 상의 신례천 발원지는 모두 5곳이다. 그 가운데 해발 1,750m 진달래밭 일대가 가장 고지대 발원지이다. 또 두 발원지가 사라오름과 성널오름 일대에 위치, 오



그림 2-45. 신례천 중류 5·16도로변 4.3유적지

름이 하천 발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신례천에서도 나타난다.

탐사팀은 5곳의 발원지 가운데 진달래밭과 사라오름, 성널오름 일대 등 모두 4곳을 직접 확인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가지하천들이 본류로 연결되고 있다.

발원지를 떠난 신례천은 보리악과 논고악, 대한농장에서 분수령을 이룬다. 보리악은 진달래밭과 사라오름 일대 등 4곳에서 발원한 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보리악 일대의 하상은 그래서 독특한 경관과 지질 특성을 보여준다. 성널오름 일대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줄기는 논고악에서 유로를 틀고 있다.

두 개의 줄기로 형태를 달리한 신례천은 다시 5·16도로를 지나 신례리 대한농장 하류에서 비로소 하나로 합쳐져 공천포 하구로 이어진다. 신례천이 신례리와 하례리 주민들 사이에 효돈천 다음가는 대천으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런 하계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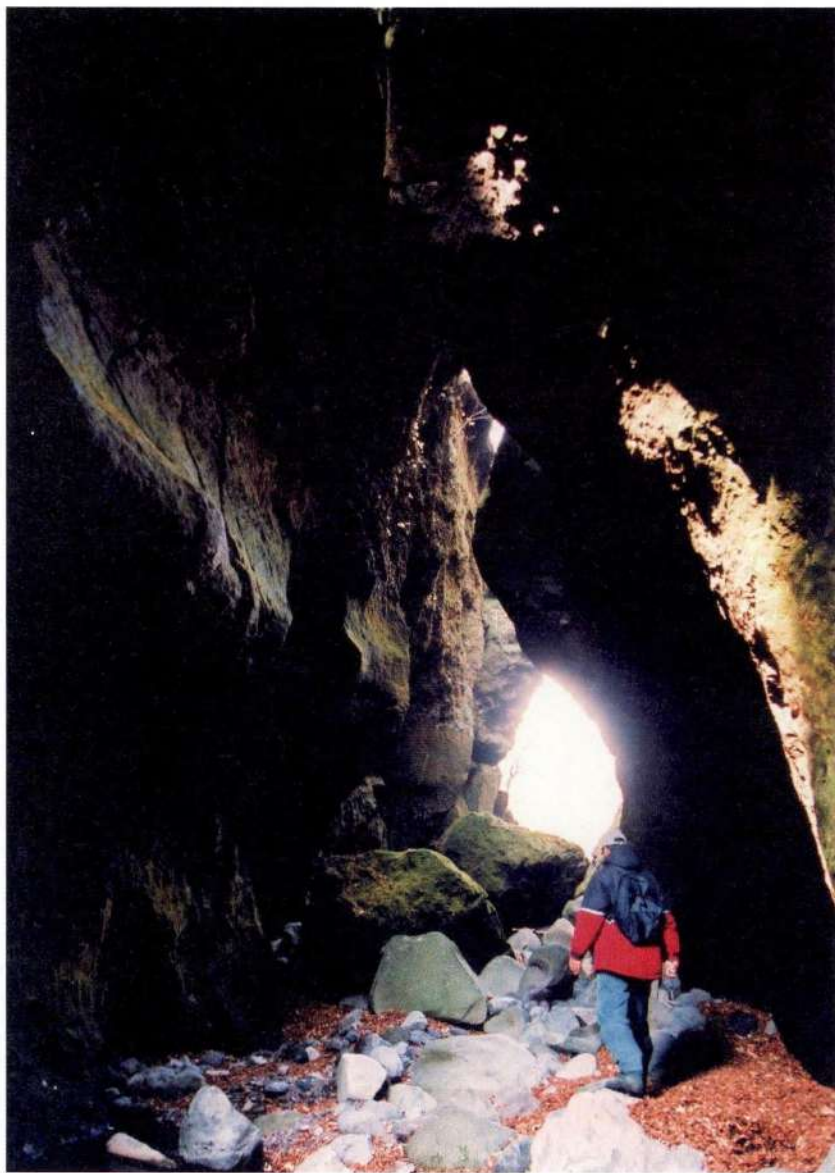


그림 2-46. 보리악 인근 V자형 협곡

신례천 중류에는 수악계곡 인근에서 43 당시 토벌에 나섰던 경찰들의 주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을 동원해 돌담으로 성을 쌓은 이 주둔소는 3,000평 면적에 초소 등을 갖춰 43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한천이 탐라계곡으로 불리는 것처럼 신례천을 얘기할 때 수악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오름의 하나인 수악의 이름을 빌려 명명된 이 계곡은 수악 상류 5·16도로를 거슬러 보리악 일대를 아우른다.

수악계곡에 이르면 계곡은 더욱 깊어지고 보리악 근처는 그 높이가 100m가 넘는다. 심곡이 아닐 수 없다.

백두산 입구의 천연림인 ‘지하삼림(地下森林)’ 지대에 있는 좁은 협곡을 수악계곡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보리악을 직접 관통해 수악계곡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협곡이다. 제주도 내 하천 유로상에서 기생화산체인 오름을 직접 관통해 형성된 대표적인 하천이다. 이 협곡지대는 하천 폭이 불과 1m 남짓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수의



그림 2-47. 성판악 절벽지대

힘에 의해 형성된 이 협곡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다. 여전히 하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강순석 박사는 “이 지역의 하천에 형성된 협곡지대는 일단 송이층을 뚫고 형성된 하천이므로 좁은 협곡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신례천 발원지 중 한 곳은 산정화구호로 유명한 사라오름이다. 제주도의 오름들 중에는 산 정상부의 분화구가 물로 채워진 오름들이 10여 개 분포하는데 그중에서도 사라오름 산정화구호는 단연 압권이다.

성널오름(성판악) 또한 신례천 발원지 중 한 곳이다. 쌍둥이 화산체인 이 오름은 이 일대에 산재하는 기생화산 중의 맹주라 할 만하다. 산 중턱에 암벽이 널 모양으로 둘러 있는 것이 마치 성벽처럼 보인다 해서 명명됐다.

성널오름 상류는 넓은 소나무림을 형성하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그보다 상부지역은 구상나무림이다. 이 일대의 구상나무림은 세계에서는 유일한 순림지대로 우리가 영원히 아끼고 보존해야 할 자산이다.

창고천

창고천은 하류에서 안덕면과 상예동을 경계 짓고 상류에 이르러서는 애월읍과도 접해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하류의 화순, 대평을 비롯해 감산, 창천, 상창, 상천, 광평 등 7개 마을이 접해 있으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화전마을도 창고천 유역 마을로 포함할 수 있다. 서귀포시 동 지역은 상예동이 창고천에 바로 접해 있다. 창고천 유역에는 세 지역 9개 마을이 분포해 있다.

창고천은 유역 주민들에게 귀중한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했으며 간직하고 싶은 갖가지 추억이 깃든 곳이다. 때로는 재해로 물이 넘쳐 흘러 귀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기도 했던 쓰라린 공간이기도 했다. 1985년 당시 태풍 ‘키트’가 논밭

을 유실시키고 목숨을 앗아간 사실은 아직도 주민들의 가슴을 찔러내리게 한다.

창고천은 역사·문화유적과 많은 전설이 깃든 공간이다. 하류 안덕계곡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함께 계곡의 물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 선인들이 대역사를 펼쳤던 현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일대 6만여 평의 계단식 농전은 제주에서는 드물게 쌀밥을 먹게 했던 논농사가 이뤄졌던 곳이다.

화순 지경 도채비빌레 위에 세워진 김광종의 개척기념비는 이곳의 논농사를 가능하게 했던,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거대한 도수로 공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안덕계곡 상류 감산 지역 용바위 앞에는 하천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도수로 흔적도 남아 있다.

감산 지경 속칭 ‘닥밭당’ 상류에는 한천의 방선문과 용연 이외의 하천 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마애명문이 있다. 조선 영조 때 사간원 정언이었던 임관주의 오언절구가 음각되어 있다.

하류 곳곳에는 바위그늘 집자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이곳에서 선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좌혜경 박사는 창고내를 ‘문화의 보고’라고 평가한다. 군산·병악·반석(유반석, 무반석)과 같은 자연지형 전설을 비롯해 대(大)수로 개발에 얽힌 막산이 전설, 상류 지역 주민들이 촌락을 일구기 위해 고지대의 나무를 끊고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은 창고내 선인들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좌 박사는 “자연과의 조화 혹은 자연을 극복하고자 했던 지역민들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라고 가치를 부여했다.

창고천은 해발 980m에서 발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100도로변 삼형제오름 일대에 드넓게 펼쳐진 고산습원이 창고천의 발원지이다. 창고천 발원지 주변에는 크게 3개소의 고산습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00고지 탐라각휴게소 일대, 삼형제오름 북측 일대, 그리고 한대오름 동측 일대에 분포된 습지가 그것이다. 모두 고지대에 형성된 습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림 2-48. 안덕계곡



그림 2-49. 군산에서 바라본 한라산



그림 2-50. 창고천 하류



그림 2-51. 창고천 발원습지

창고천의 유로와 지형·지질도 주변 오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상류는 곡두(谷頭) 부근의 실개천과 같은 지류가 모여 남류(南流)하다 돌오름 상류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선회한다. 이어 봉성 화전마을 인근 빈네오름에서 방향이 다시 한번 꺾이면서 남류하고 돌오름에서 발원한 주류와 산록도로 위 광평마을에서 합류한다. 이처럼 상류의 하계밀도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중류는 비교적 완만하게 광평·상천·상창마을을 통과하고 있으며 하류 안덕계곡에 이르러 급경사를 이룬다. 군산과 월라봉을 잇따라 만나 서쪽으로 방향을 바뀌어 하구 ‘황개천’에 이르고 있다.

창고천 전 구간 중 하구는 매우 특이한 지질구조를 보여준다. 대포 지샛개와 예래 ‘갯각’ 주상절리를 연상케 하는 배개용암의 수축절리와 수증화산활동의 결과물인 대규모 퇴적층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퇴적층은 인근 군산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해 화산지질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으며 그 비경이 압권이다.

안덕계곡을 지나면 하상정비로 원지형이 훼손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완만한 하상은 빈네오름에서의 활발한 측방침식으로 다시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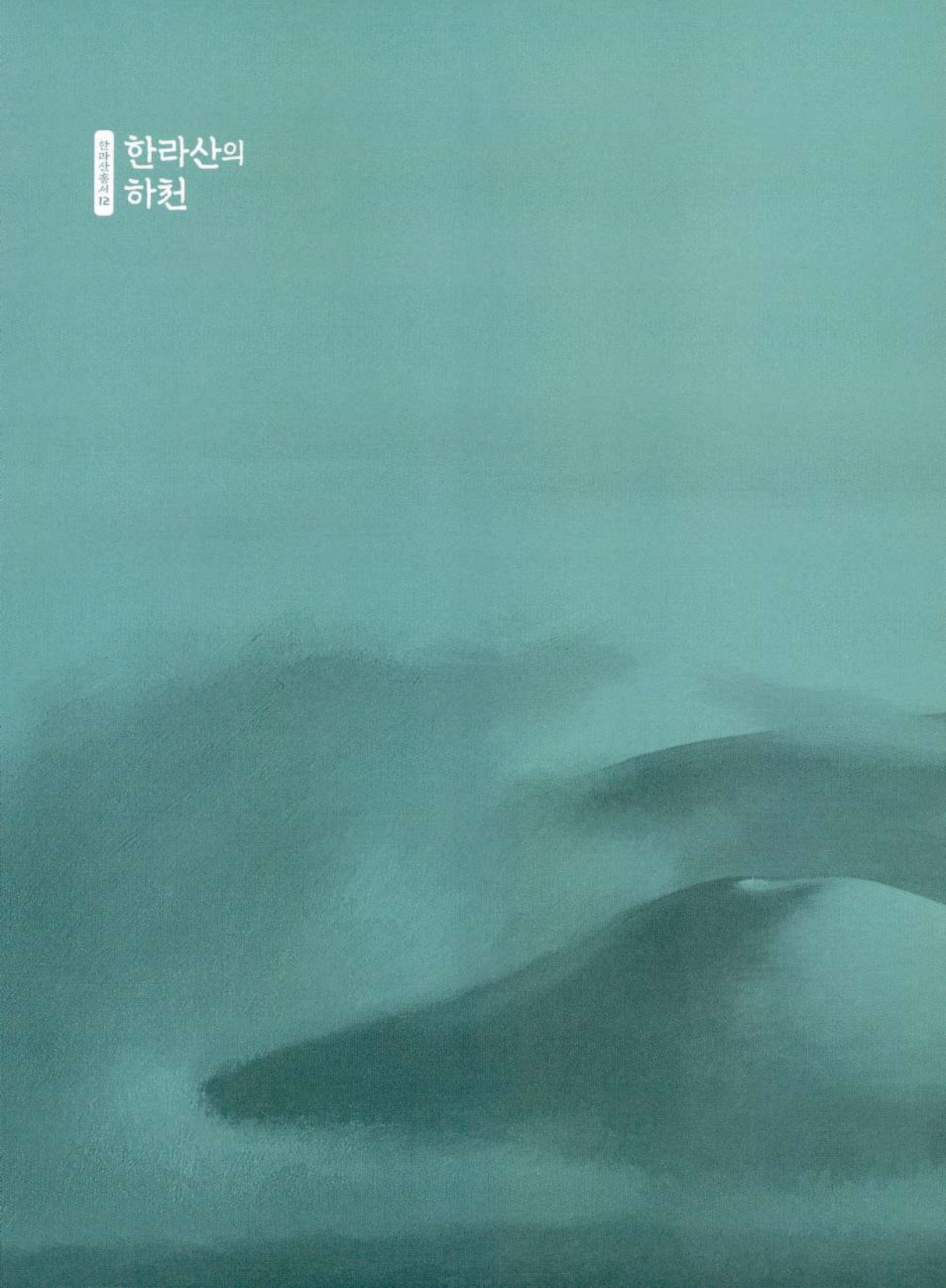
창고천은 전 구간에 걸쳐 수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발원지와 하류의 수자원이 독특한 곳이다. 3만여 평에 이르는 드넓은 고산습원에서 발원하는 특이한 지형인 데다 하류는 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이어져 있다.

창고천 하류의 풍부한 수자원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했다. 연못에는 수백 마리의 원앙이 관찰되고 한때 장어와 민물참게의 대표적 서식지로 이름을 날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안덕계곡에는 300여 종의 제주 자생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하수의 유입과 무분별한 개발로 천혜의 생태공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참게 서식지는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내수면 어업이 허용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계곡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개발은 계곡 암반에 위협을 주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주민들의 계곡 살리기는 실낱 같은 희망이다.

한라산
홍서 12

한라산의 하천



제3장

하천과 마을



여 백

마을이 들어서는데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 그중에 물은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무암과 화산회토로 구성되어 물이 쉬이 빠져버리는 제주도엔 강이 없다. 한라산에서부터 뿜어 내려온 깊은 계곡과 기다란 하천이 많지만 장마 때는 넘쳐흐르다 곧 말라버리는 건천(乾川)이다. 하지만 이 하천을 따라 곳곳에 용천수가 있고, 물이 흐르다 고인 물웅덩이(沼)가 있어 하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었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돈물’이라 일컫는 용천수는 섬의 바닷가 마을을 이루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하천은 마을 역사의 원류이며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가 되었다. 또,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고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하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의 역사와 그곳을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짚고자 한다. 대부분 자료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1. 광령천(무수천)

해안동(海安洞)



그림 3-1. 해안마을 전경

한라산에서 발원한 무수천은 해안동의 서쪽을 가르며 비로소 사람을 만난다. 해안동은 지형이 바다의 계와 비슷하고 정상이 평평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같이 마음의 평온함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해안(蟹安)’이라 붙였으나 후에 ‘해안(海安)’으로 표기를 바꾸었다. 500여 년 전 마을 북쪽에 이(李)씨가 터를 잡았던 ‘주루레’ 일대를 ‘묵은 가름’이라 하며, 그 후 송(宋)씨가 터를 잡았던 마을 남쪽의 ‘이승물’ 일대를 ‘새가름’이라 하였다. 오랜 마을 역사를 말해주듯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앞내’라 부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300년 넘는 수령의 나무들이 울창하다.

뿐만 아니라 보호수로 지정된 500년이 넘는 팽나무도 있다. ‘앞내’를 중심으로 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곳을 ‘베루왓’이라 부른다. ‘베루왓’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돌속물’이라는 물이 있다. 이렇듯 무수천 계곡은 사람과 가축들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고 울창한 수림을 남겼다. 특히 현재 해안마을의 가운데 있는 ‘듬돌거리 폭낭’은 해안마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500년이 더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왔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날엔 노동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쉼터를 제공했다. ‘듬돌’은 청년들이 힘을 겨룰 때 사용하기 위해 어느 마을에나 있었던 마을 공동의 놀이도구이니, 마을 사람들의 역사까지 훤히 꿰뚫고 있을 것이다.

43사건은 100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 숫자가 말하듯 해안동 사람들에게겐 참혹한 기억이다. 토벌대의 중산간 초토화작전에 의해 마을이 불태워지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일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 움막을 짓거나 깊은 산속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많이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43사건 당시 동동, 하동, 상동(‘리생이’) 등 세 개의 자연마을 중 약 80여 호가 모여 살던 가장 큰 규모의 ‘리생이’와 가장 작았던 ‘동동’(약 30호) 등의 마을이 사라져버렸다. 초토화 이후 1950년 하동을 중심으로 마을이 재건되었으나, 이 두 마을은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해발 200m 고지에 자리잡은 해안동은 마을에서도 멀리 해안선이 보이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 너른 산야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너른 초지를 이용한 목축이 성했던 곳이며, 축산의 고장임을 입증하듯 축산진흥원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오름의 만형 격인 어승생오름과 제주시민의 식수원 구실을 하는 어승생수원지도 해안동 지경이다. 모두 제주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어승생(御乘生)’은 왕이 타고 다닐 말을 키운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이 오름 일대의 너른 초지는 우수한 말을 키울 정도의 환경을 지녔다는 것이다. 어승생오름은 요즘 등산객의 발길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 등반로도 말끔히 정비되

어 있다. 그런데 등반객의 눈에 띄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이 이 오름에 상처처럼 남아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의 작전에 의해 구축한 갯도 진지가 어승생오름의 속살을 갉아 먹어버렸다. 인공적으로 굴을 파면서 내부를 미로처럼 파버린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제주도를 최후 거점으로 삼으려고 제주도 곳곳의 오름과 해안변 봉우리에 갯도 진지를 구축했다. 물론 그 살인적인 노역의 대부분은 제주도민의 몫이었다. 어승생오름의 갯도 진지는 태평양전쟁의 최후 저항진지인 제주도, 그중에서도 가장 최후의 저항기지로 삼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도 오름 정상에 오르면 당시 만들어 놓은 토치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어승생수원지는 제주도 물의 역사를 바꾼 곳이다.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구상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1971년 저수량 10만 톤이 넘는 저수지를 고지대에 완성함으로써 상수원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해안동은 축산과 밭농사에 의지해 살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 청정한 환경과 역사의 숨결이 배어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농경지 대부분이 감귤과수원으로 변했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지역 특성상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라마울(광령리(光令里)·도평동(都坪洞))

무수천을 광령천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광령리의 큰 마을은 직접적으로 무수천을 끼지 않는다. 하지만 사라마울은 무수천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마을이다.

모두를 헤아려보아야 20여 호 남짓한 곳이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처럼 가까운 곳이지만, 무수천 계곡을 끼고 동쪽 ‘동사라’는 제주시 도평동, 서쪽 ‘서사라’는 애월읍 광령리로 구분된다. 300여 년 전 서쪽에 제주 고(高)씨가 터를 잡고 동쪽에 경주 김(金)씨 등이 자리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때 축산이 흥하면서 제법 살 만한 곳이었지만 농사지를 땅이 부족하여 50가호를 넘어보지 못했다. 4·3사건은 그나마 명맥을 잇던 마을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이후 도로가 뱅뱅 뚫리던 시



그림 3-2. 도평마을 전경

대에도 웅장한 건설기계음은 사라마을을 비켜갔다. 덕분에 큰 길이 없는 이 마을엔 버스가 다닌 적이 없다. 동사라와 서사라를 잇는 다리 아래 하천에 한라산으로부터 흘러온 모래가 쌓였다고 ‘사라(紗羅)’로 불리었다는 이곳엔 그 혼한 마을회관조차 없다.

20여 호 집들이 웅기종기 들어선 ‘사라마을’에 들어서면 600년 수령의 해송, ‘흙뻗드르’의 샘물, 기암절벽 품 안에 안긴 홍룡사, 옛 올래와 거옥대를 볼 수 있다. 또, 마을을 가로지르는 무수천으로 내려가면 거울보다 더 맑은 물과 그 물을 감싸는 웅장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웬만한 가뭄엔 끄떡없는 무수천이 마을을 가로지르며 ‘얼택이소(沼)’, ‘들렁귀소’ 등을 만들었으니, 물이 귀하던 시절 마을이 들어설 조건은 타고난 곳이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그를 지키려는 듯 울창한 나무와 깎아지른 절벽이 늘어선 광령계곡을 지나 사라마을에 닿는다. 이 물은 외도동의 월대로 흐르며 또 하나의 쉼터를 제공한다. 제주의 하천은 마른 건천이라지만 웬만해선 끊이지 않고 졸졸 흐르는 계곡물의 깨끗함이 눈부시다. 보는 이의 찌든 마음까지 모두 빨아들여 근심을 잠재운다. 그래서 하천 이름이 무수천(無愁川)이다.

그림 3-3. 해안마을 전경



사라마울의 무수천변 왕대나무 빼곡한 곳에 흥룡사(興龍寺)라는 절이 있다. 동사라에서 보면 커다란 절의 누각이 보이지만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다. 이곳에 처음부터 흥룡사라는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용장굴사’라 불리는 자그마한 절이 있었다. 하지만 43 당시 초토화 작전의 화마는 사찰이라 해서 비껴가지 않았다. 잿더미로 변한 그 자리에 다시 절을 세우니 지금의 흥룡사이다. 제법 큰 불당과 제주의 토종굴인 ‘산물낭’이 절의 마당과 절을 포근히 감싸 안은 기암절벽의 바위틈에도 있어 그 운치를 더한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나는 굴을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전해진다. 또, 동사라의 무수천변에 있던 덕절은 43으로 초토화된 후 이제는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감굴과수원으로 변해버린 절터에는 식수로 사용했던 샘이 솟아올라 무수천으로 흐르고 있다. 그 조그만 암자에 석현이라는 큰스님이 기거했었는데, 그가 무수천변 바위에 새겼다는 ‘보광천(葆光泉)’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다. 이곳의 쓰라린 역사를 암각으로 뚜렷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평동(都坪洞)

도평동은 ‘신산’, ‘창오랭이’, ‘사라’, ‘상동’, ‘하동’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마을이다. 도평마을 서쪽으로는 무수천과 장군천이 있고 동쪽으로는 하운천이 있어 하천에 둘러싸인 곳이기도 하다. 그 중간에 평평한 지역이라 하여 ‘평대촌(坪垈村)’, ‘평디’라 불리던 마을 이름이 ‘도평(都平)’으로 바뀌었다.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림이 울창하고 기암괴석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훌륭한 경관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때문에 도평동의 빼어난 경치를 일컬어 ‘도평팔경(都平八景)’이라 했었다. 가로팽림(街路膨林), 고봉기암(高峰奇巖), 경굴생수(鯨窟生水), 와평명월(瓦平明月), 이비창송(耳鼻蒼松), 용장굴사(龍莊窟寺), 양지일천(양지일천)이라는 ‘도평팔경’이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이 마을이 지닌 경관의 아름다움을 짐작하게 한다.

빼어난 마을 인근의 아름다움과 달리 도평동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는 슬픔을 가

지고 있다. 그것은 43사건으로 인한 희생 때문이다. 1949년 1월 3일 산사람으로 위장한 토벌대의 함정토벌에 걸려 하원천변 속칭 ‘뒷밭’에서 15명, 외도지서 서쪽 밭에서 75명 등 90여 명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다.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사건인지라 지금도 그날은 마을의 대부분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명절처럼 느껴지는 날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 친지를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밭도 일구고, 가축도 돌봐야 했다. 모든 것이 녹록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몫까지 더하여 보란 듯이 살고자 했다. 그 결과 번듯하진 못했지만 가족을 지켜내고 마을을 지켜냈다. 특히 교통 불편은 언제나 골칫거리였다. 지금이야 도평마일로 가는 길이 사방팔방으로 넓어지고 새로운 길도 생겼지만, 예전에는 외도동에서 20~30여 분 발품을 팔아야 닿을 수 있었다. 마을의 위치가 바다를 낀 해안마을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간도로와 맞닿는 것도 아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 등의 교통편이 많지 않았다.

한편 도평마을은 매해 음력 7월 초정일(初丁日)에 포제를 지낸다. 반드시 입추가 지난 정일(丁日)에 하는데, 포제단은 마을에서 남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말끔하게 마련되어 있다.

외도동(外都洞)

제주시 동 지역으로는 서쪽 끝 마을인 외도동은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1702)〈한라장축〉에 ‘수정(水淨)’, ‘평대(坪代)’라는 이름으로 도근내개(都近川浦) 동서쪽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도근천과 외도천이 마을 사이를 흐르고 해안지대에 자리잡은 농어촌마을이었으나, 최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도심으로부터 인구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외도1동은 ‘우렁이(牛嶺)’, ‘절물’, ‘수정동’, ‘계명리’ 등 4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그림 3-4. 외도1동 우렁마을 전경

곳으로 제주 주호 시대의 생활터 유적과 유물산포지 2개소, 고인돌 9개소 등 많은 선사유적이 분포된 곳이기도 하다. 고려 시대인 1300년대 원나라에 의해 ‘수정사’라는 큰 절이 세워졌다가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외도1동은 서쪽으로 조부천을 경계로 애월읍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연대마을, 동쪽으로는 월대, 내도, 도평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외도2동은 도근천 하구 서부 해안에 자리잡은 월대마을과 연대마을을 말한다. 옛날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아 달 뜨기를 기다렸다가 시문을 읊곤 했던 월대천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하천이 바다로 이어지는 월대천에는 500여 년 된 팽나무와 소나무가 휘늘어져 있고, 밝은 달이 뜰 때는 이 풍광과 어우러져 물 위에 비치는 달빛이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이 월대천의 맑은 물에는 은어가 서식하고 있다. 도근천은 ‘조공천(朝貢川)’이라고도 일컫는다. 조공천 하류 바다와 만나는 포구

를 ‘조공포(朝貢浦)’라 했었다. 이는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가 항파두성을 근거지로 삼고 제주도에 주둔해 있는 동안 남해안 등지에서 보급품을 싣고 온 배가 들어온 포구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대 바로 하구에 있었다.

한편 조선 시대 왜적의 침입 시 연기를 피워 알렸던 ‘조부연대(藻腐煙臺)’가 있었던 곳은 마을 이름 자체가 ‘연대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서쪽으로 애월읍 신엄리에 있었던 ‘남두연대’와 동쪽으로 제주시 수근동에 있었던 ‘수근연대’와 서로 연기를 피워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 마을에는 이 밖에 망루대와 외도팔경의 하나인 ‘마이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 마을이어서 바다 밭을 가꾸는 데도 남달랐다.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에 야트막하게 돌을 쌓았던 원(垣)이 외도 바닷가에만 여섯 군데 있다. 특히 ‘연대원’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이중으로 원담을 쌓은 독특한 형태이다. 조부전을 경계로 애월읍과 인접해 있는 제주시 동 지역의 서쪽 끝 마을 연대마을의 서쪽 바닷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금밭도 간간이 볼 수 있다.

내도동(內都洞)

조약돌이 바닷가를 가득 메워 파도가 밀려왔다 조약돌 사이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독특한 ‘알작지’가 유명한 내도동은 자그마한 바닷가 마을이다. 이와 더불어 내도 바닷가에 있는 ‘도리코지’는 경관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중요한 곳이다. 용암이 바다를 향해 기세 좋게 뻗어가는 형상인 이곳은 먼저 흘러온 용암이 바닷속으로 솟구쳐 들어가며 기다란 다리 모양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흘러온 용암은 이 다리를 길 삼아 역시 바다로 향하는 특이한 지형이다.

내도동은 서쪽으로 도근전을 경계로 외도2동과 인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원장전을 경계로 이호해수욕장이 있는 이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옛 이름은 ‘도근내천(都近川)’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안도그내’라 했었다. 바다를 낀 마을이기

에 해녀 등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으며 산이 없고 땅이 비옥하여 집단농지가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 곳곳의 마을에는 방사용(防邪用)으로 돌탑을 쌓고 그 위에 새나 사람 혹은 짐승의 모양을 한 돌을 얹어, 답·탑·거옥대 등의 이름을 붙였다. 내도동에도 바닷가의 돌로 쌓은 돌탑 1기가 있다. 원래 ‘사각’과 ‘긋은 새’를 막기 위해 거옥대와 탑을 6기 세웠었는데 이제는 1기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2. 병문천

오등동(吾等洞)

1902년 이행량 목사가 정립한 문헌에 보면 오등동을 오등생리(梧登生里)라 하였고, ‘ㄱ다시’를 양다시촌(良多時村), ‘죽성(竹城)’은 대나무가 성벽을 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탐라계곡을 거쳐 흘러가는 하천이 갖가지 기암절경을 연출하여 영주10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瀛邱春花)’로 불리는 ‘방선문(訪仙門)’을 만들었다. 방선문은 이름 그대로 신선이 드나드는 문처럼 신비한 절경에 휩싸인 곳이며, 옛 선비학자들이 화색놀이와 시서예를 즐기던 곳이다. 또한 지금도 회자되는 옛이야기 ‘배비장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43사건은 오등동의 지형을 바꿔버렸다. 산신제를 지내던 산천단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죽성’은 ‘큰동네’, ‘새가름’, ‘새장밭’, ‘큰담밭’, ‘선들목’ 등 크고 작은 마을이 웅기충기 모여 이루어져 당시 오등리를 이루던 나머지 두 마을, 즉 ‘오드싱’이나 ‘ㄱ다시’보다 규모가 컸었다. 그러나 죽성마을은 43사건 당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불탄 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ㄱ다시’, ‘오드싱’도 불에 타 주민들이 피난길을 떠나야 했으나, 몇 년 후에 ‘오드싱’을 중심으로 재건하고 ‘죽성’과 ‘ㄱ다시’ 사람들도 이곳에서 생활했다. 또 몇 년이 흐른 후 ‘ㄱ다시’도 재건해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으나 토박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죽성’을 이루던 크고 작은 마을들은 끝내 돌아가지 못한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한편 조선 시대 오등동에는 ‘남학당(南學堂)’이라는 배움의 터가 있었다. 순조 34년(1834) 한응호 목사가 남서학당을 세웠는데, 오등동에 남학당을 세워 이 일대 학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것이다. 1846년 삼학당(三學堂)을 폐쇄하면서 한때 문

을 담았으나 1849년 곧 부활하였다. 남학당은 현종 때 이원조 목사에 의해 광양으로 이전하였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오라동(吾羅洞)

오라동은 시가지 중심 남쪽의 중산간 지대에 산재한 마을로 오라1·2·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라1동은 속칭 ‘모로넷가름’이라고 하며 한해를 끼고 있다. 마을 남쪽에 ‘내머리왓’이 있고, 오라2동은 ‘사평리(沙坪里)’, ‘연미(淵味)’, ‘동도노미(정실, 井實)’ 등의 자연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오라3동은 속칭 ‘중뎡이굴’이라고 하며 ‘월라(月羅)’라 기록하기도 한다.



그림 3-5. 병문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제주시 삼도1동(왼쪽)과 오라동(오른쪽)

오라동은 마을 이름에서부터 한천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오라1동은 ‘한내동 카름’이라 불리며 제주종합경기장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 있다. 또, 오라2동은 ‘한내서카름’이라 하며 사평마을, 연미마을, 정실마을, 동성마을 등이 속한다.

연미마을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문(文)씨에 의해 설촌된 마을이었으나,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풍수지리설에 따라 동네에 큰 연못을 팠다. 연미라는 마을 이름은 이 연못에서 연유한 것으로 물이 생수같이 깨끗하고 맛이 좋았다고 한다. 그 후 이 연못은 매립되고,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은 완전 소실되었다. 피난 갔던 사람들은 사건이 끝난 후 100여 호 정도가 돌아와 마을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하지만 연미마을에 인접했던 ‘어우눌’과 ‘해산이’ 등의 작은 마을들은 끝내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연미마을 남측에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민오름이 위치해 있고, 민오름 북측에는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치욕을 씻고 왜적에 항거하고자 뜻을 같이한 12지사의 애국정신이 서려 있는 조설대(朝雪臺)가 있다. 조설대는 한말인 1905년(광무光武 9) 이응호(李膺鎬)가 중심이 되어 선비들의 모임인 ‘집의계(集義契)’를 결성하고 구국을 도모하던 장소이다.

정실마을은 조선조 선조(宣祖) 때에 김해(金海) 김(金)씨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이 마을의 지형 때문에 ‘도래미’라고 불렸다. 또한 1910년께는 오늘의 제주시 오동동과 죽성 등 마을들을 한데 묶어 한북리(漢北里)라고 부른 적도 있었으나 한천(漢川)을 중심으로 동·서 간의 분쟁이 생겨 한천 서쪽 동네가 오늘의 정실 쪽으로 옮겨 왔다는 설도 있다. 정실 인근은 옛날 말을 키우기 위해 제주도를 12소장으로 나눌 때 4소장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그만큼 목장으로서의 입지가 좋은 곳이다. 정실마을을 가르는 하천변에 ‘옥련천’이란 샘이 있다. 이 샘물이 있어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에 정착하며 마을을 이루었으니 정실마을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옥련천’ 바로 위에는 생명의 근원인 이 샘물을 보호하려는 듯 정실마을 본향당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연미마을의 고 씨(高氏)에 따르면 “지금도 정실에 ‘고씨터’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으며 연미마을에 사는 고씨의 13대조가 여기 살았었다.”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이 마을의 설촌이 400여 년 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언하듯 이 마을에는 수령 400여 년으로 보이는 팽나무들도 많이 있다. 이 마을 역시 43사건 당시 소개령으로 폐동되었다가, 1960년대 초 12세대가 돌아오면서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차츰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1978년에는 제주시 중산간 마을로서는 처음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삼도동(三徒洞)

삼성신화에 의하면 모흥혈(삼성혈)에서 태어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세 신인이 동해의 벽랑국에서 떠나려 온 세 선녀와 배필을 맺고 정착생활을 위해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곳에 활을 쏘아 터를 정했는데, 부을나가 삼도리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오곡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 소와 말 등 가축을 기르며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도동은 남쪽으로는 오라1동, 동쪽으로는 소용내, 서쪽으로는 병문내와 경계를 지으며 이루어졌고 고대 탐라국 시대부터 제주의 행정 중심지였다. 또한 신석기 시대 이후 유물이 한천을 중심으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상에도 삼도동은 “탐라국 시대부터 대촌의 한 마을로서 대관관행 중심지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부사 판관 만호 등이, 조선 시대에는 목사 판관 좌수 향창이 기거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또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목을 감싸는 성을 쌓았는데 삼도동이 중심지였다.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가 제주를 다스리는 관청인 제주목관아가 삼도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삼도동에는 전통문화 유적지인 관덕정, 제주목관아지, 향사당 등이 위치해 있다. 제주시청 등 관청 시설이 외곽지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삼도동은 제

주도의 정치·경제·문화·행정의 중심지였다. 1983년 10월 1일 행정동 개편으로 삼도1동과 삼도2동으로 분동되었다.

병문천과 소용천을 끼고 형성되었지만, 도심지 하천이 대부분 그러하듯 삼도동의 하천도 전부 복개된 상태이다.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벚꽃이 장관인 전농로는 삼도동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자랑거리이며, 해안을 매립해 만들어진 탐동광장이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용담동(龍潭洞)

제주국제공항이 있어 제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용담동은 태초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라산이 솟아오르고, 백록담에서 두 줄기 큰 내(川)가 흘러 넘쳐, 다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용담동 지역에서는 청동기 및 초기 철기 시대(B.C. 10세기~A.D. 전후로 추정), 그리고 탐라 전기에 속하는 주호 시대(A.D. 500년) 무덤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1985년 1월, 당시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단에 의하여 용담2동에서 발굴된 옹관·석관묘에서는 철제 장단검, 화살촉, 철도끼, 마제석검, 홍옥 구슬 등의 부장품이 나온 바 있다. 용담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支石墓)에서도 돌화살촉·돌칼·돌도끼·토기 등이 나왔다. 특히 용담동 지역의 고인돌은 ‘한내(漢川, 大川)’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오랜 옛날부터 ‘한내’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순조 27년(1827) 제주향교가 광양에서 지금의 용담1동 298번지로 이설되고, 1920년을 전후하여 제주읍성 밖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차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록상 용담동 지역에서 설촌 역사가 가장 오래 곳은 ‘한내’와 ‘병문내’ 하류에 있는 ‘한두기(한대기)’이다. ‘용연’을 기점으로 동쪽을 ‘동한두기’, 서쪽을 ‘서한두기’라 한다. 처음에는 ‘한독(大甕, 大獨)’이라 하다가 마을이 커져 가자, 현재의

‘동·서한두기’ 지역을 통칭할 새로운 마을 이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웅기처럼 생긴 갯가의 마을이란 뜻으로 ‘대덕개·대독개[大甕浦]’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후 ‘용(龍)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용담(龍潭)’으로 개명했다. 이것은 ‘한내’ 하류에 있는 명승지인 ‘용연(龍淵)’에서 유래한 것이다. 용연은 예로부터 용궁의 사자들이 백록담으로 통하는 길이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한라산 정상 북벽에서 발원한 한천은 건천이지만, 한천의 맨 끝자락인 용연에는 샘솟는 물과 만조 때의 바닷물이 합쳐져 항상 물이 가득 고인다.



그림 3-6. 용연 하류에 자리잡은 동한두기(오른쪽)와 서한두기(왼쪽)

1955년 8월 13일 제주시 승격에 따라 병문천 서측과 한천 동측을 용담1동, 한천과 도두동 다호부락, 용두암을 연결하는 지역을 용담2동, ‘닥그네’(수근동)와 ‘어영마을’을 용담3동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용담1동은 오름이나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병문천’과 ‘한천’이라는 큰 하천이 둘이나 있다. 병문천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삼도1동과 용담1동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동한두기 바다와 만나는 건천(乾川)이다. 한천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용연과 동·서한두기 사이의 바다와 이어지는 건천으로 하류에는 한두기 포구가 자리하고 있다. 또, 한내에는 과거에 굿당이었던 ‘내왓당’이 있으며 ‘내왓당무신도(巫神圖)’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민속자료인 ‘서복신미륵’도 한천변에 있다.

시인 묵객들이 배를 띄워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달밤에 주연을 베풀어 시흥을 돋우었던 용연과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용두암은 지금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영주십이경의 하나인 ‘용연야범’은 최근 시민축제로 재현돼 또 하나의 문화를 일구고 있다. 또, 제주향교에는 수백 년 묵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 지역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이 생기고 확장되면서 용담3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카페거리 등이 있어 사계절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히 오가는 명소가 되었다.

3. 화북천

화북동(禾北洞)

“1270년 고려 원종 11년 경오 11월에 삼별초군이 탐라를 정벌하려 할 때 동제원(東濟院)에서 관군과 일전(一戰)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문헌상으로 알려진 화북경(禾北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 1300년(고려 충렬왕 6년 경자년) 제주에 10현을 설치할 때 제주를 동·서로 구분하여 이도(二道)를 설치하면서 서도에 처음 별도현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적어도 600여 년 이전부터 설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601년(선조 34년)《남양록(南壤錄)》의 기록에 ‘별도포(別刀浦)’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역의 명칭은 1600여 년까지 별도(別刀)라고 칭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화북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았을까? 청풍대(淸風臺) 동쪽 개인 소유 가옥을 허무는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 1646년(인조 24년)에 건축한 것으로 기록되어 350년 전에 화북에 사람이 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400여 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화북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북동은 예로부터 화북포구가 있어 제주의 관문 구실을 하였다. 화북포구는 조천포구와 더불어 목사가 부임할 때 임지로 들어오는 포구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화북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해신사’이다. 이곳은 목사가 직접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지냈던 곳인데,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매해 음력 1월 5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해신사뿐만 아니라 화북동엔 역사유적이 많다. 삼사석, 화북진성, 비석거리 등은 화북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주요한 유적이다.



그림 3-7. 별도봉에서 바라본 화북마을

화북동의 서쪽 끝에는 바다와 접한 별도봉이 자리잡고 있다. 이 별도봉의 북쪽은 바다와 맞닿아 있으며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별도봉 남쪽 기슭에는 화북천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 별도봉의 북쪽 바다와 동쪽 하천이 만나는 곳에도 ‘곤을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안곤을’, ‘가운데곤을’, ‘뱃곤을(동곤을)’로 나뉘어 70여 호의 마을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던 곤을동은 4.3사건 당시인 1949년 1월 4일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버렸다. 그날 젊은 사람들은 느닷없이 끌려가 희생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화북 큰 동네에 흩어져 살면서 숨죽이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커다란 희생을 치른 4.3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곤을동 사람들은 다시 마을 터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도 집담이며 오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곤을동 옛터에는 해원상생을 기원하는 방사탑과 잃어버린 마을 표석만이 남아 있다.

지금은 모두가 하나의 시가지로 바뀌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화북동은 맨 서쪽의 ‘곤을동’에서부터 ‘금산’, ‘청풍’, 그리고 맨 동쪽의 ‘장머들’까지 바다를 끼고 자연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화북동의 범위가 바닷가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의 중산간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화북2동으로 분리되는 ‘부록마을’, ‘황새왓’ 등이 그런 마을이다. 또, ‘거로마을’도 화북2동에 속한다.

‘부록마을’은 속칭 ‘부루기’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일대에 큰 사찰이 있어 ‘불전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불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불우(佛宇)란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1702년의 《탐라순력도》에는 마을 명칭이 부로(夫老)로 표기되어 있으며 1864년 《제주양씨세보》에는 ‘부록사동산(富祿寺童山)’이라는 표기도 등장한다.

거로마을은 《탐라순력도》 28도 중 제1도인 〈한라장축〉에 ‘거로(居老)’라고 표기되었고, 1700년대 말에 그려진 고지도에는 ‘거로촌(巨老村)’으로 표기되어 있다.

설촌 연대로 보아 거로보다는 부록에 먼저 사람이 살았으며, 부록에 살던 사람이 점차 거로 지경까지 내려와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마을 사람들이 제주성이나 화북포로 가는 ‘길가에 사람이 사는 곳’이란 뜻에서 거로(居路)라 하기 시작하여 오늘의 마을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거로와 부록마을의 형성은 약 900년 전 부록 지경의 맑은 샘터(속칭 절샘)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여 마을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4·3사건 때 마을이 전소되는 불행을 맞아 화북1동 및 제주시로 흩어졌다가 4·3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인 1954년부터 대부분 복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록마을보다 더 남쪽 산간에 형성된 마을이 황사평이다. 황사평(黃蛇坪)이란 지명은 뱀이 두꺼비를 포획하려 파리를 뜯는 형상에서 유래한다. 1896년경 오씨 성을 가진 이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1945년경 약 65호에 2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도군당·사장밭·장두모루·녹낭굴 등 자연마을을 합쳐 황새왓이라 통칭하던 이곳은 인구가 늘면서 일제강점기 말에 화북3구로 분구되기도 했었다.

황사평은 화북동의 거로와 영평동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 동남부의 광활한 평지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었는데, 오래된 문헌에도 이에 대한 기

록이 있다. 심재(心齋)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1918)에 “黃蛇坪은 南門外 10里許에 있고 예부터 軍兵을 敎鍊하던 場所인데 四面이 廣闊하여 可히 萬兵을 收容할만 한 곳이며 이제 一般耕地가 되고 民有에 속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광활한 지형과 더불어 마을을 끼고 형성된 계곡에 크고 작은 소(沼)가 있어,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머물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황사평은 설촌된 지 100년 남짓밖에 안 되는 마을이지만, 제주도 근현대 역사를 고스란히 증언하는 곳이다.

1901년 제주항쟁은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제주민란’, ‘이재수의 난’, ‘성교난(聖敎亂)’, ‘신축년란’, ‘신축민란’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민란 때 산포수의 무기로 무장한 민군들은 이곳 황사평에 10여 일쯤 포진하여 제주성을 장악한 천주교민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황사평에 집결한 민군은 진을 나누어서 수차례 제주성에 근접하여 공격을 행하였다. 결국 5월 28일 성내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민에 대한·봉기하여 성문을 열어주자, 제주성에 입성한 민군은 성안의 천주교민을 살해하였는데, 이때 피살된 교민 수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군함이 산지항에 들어와 무력시위를 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고, 이에 조정에서는 군사를 동원해 민군을 진압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곳기에 황사평엔 제주항쟁에서 비롯된 지명이 여러 군데 있다. ‘장두모루’라는 마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장두모루의 장군이 군사를 지휘하는 장대(將臺)와 같다는 ‘장땃동산’도 있다. 또 ‘행갱뽕디’는 장두가 군사를 거느리고 행군하는 곳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새왓뿐만 아니라 화북에는 당시 프랑스 함대가 함포사격을 할 때 포탄이 떨어졌던 ‘불마진동산’이 있다.

황사평에 있는 천주교공동묘지는 황사평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곳이다. 규모도 너르지만 계속되는 성역화 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곳이다.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의 순례행렬도 잦은 편이다. 이 또한 제주항쟁의 수습과정에서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를 조선 정부가 수용하면서 비롯됐다. 1904년 11월, 신축년 천주교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두 이곳으로 옮겨져 안장되고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다. 당시 이곳에는 민란 과정에서 희생됐던 교민들의 시신만 묻기로 하였으나, 그 뒤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천주교 세력과 일반 도민과의 극심한 갈등에서 촉발된 1901년 제주항쟁 때 민군(民軍)의 주둔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 성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부지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천주교 공동묘역은 이후 황사평 주민들과의 토지분할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제주천주교의 성지로, 또 한편으론 불의와 억압에 항거했던 역사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1948년 발발한 제주4.3사건의 비극은 황사평에도 불어닥쳤다. 많은 주민들이 희생됨은 물론, 토벌대의 중산간 초토화 작전에 따라 모든 가옥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1948년 5·10 선거 관리를 하던 구장이 산사람들에 의해 피살되는가 하면, 후임 구장은 초토화 이후 화북1구로 피난갔다가 토벌대에 끌려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던 젊은이들도 여기 저기서 희생됐다. 비단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집을 떠나버린 청년들의 가족들도 도피자가족이란 이유로 희생되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1954년 한라산금족령이 해제되고 나서부터이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장정들은 4·3의 와중에 많이 희생됐고, 더군다나 이미 몇 년간 피난살이하던 곳에 정착해버린 주민들은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이 올라왔으나 원래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많지 않았고, 외지 사람들이 더 많았다. 5·16 쿠데타 이후 재건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산지천

건입동(健入洞)

바닷길을 통해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쳐가는 곳이 제주항이다. 제주항의 모태가 되었던 포구가 '산지포(浦)'이며 이 포구를 '건들개'라 이르면서 '건입'이란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산지포는 영주십경 중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魚)'가 얘기하듯 제주도의 대표적인 포구였고, 이 포구를 중심으로 인근에서 고기 잡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림 3-8. 산지천 하류에 자리잡은 건입동

건입동은 서쪽 산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속칭 ‘산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산지천’은 건입동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제주시민의 젖줄 역할을 했었다. 특히 산지천 하류 바다와 맞닿는 지점의 ‘산짓물’은 과거 상수도 시설이 변변치 못했던 시절에는 시민들의 급수원이기도 했다. 복개되어 빌딩 밑 바닥을 흐르던 산지천이 최근 자연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건입동의 지형은 동쪽의 사라봉과 북쪽의 바다, 그리고 제주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산지천으로 특징지어진다.

북쪽 바다와 접해 솟아오른 사라봉(紗羅峯)은 제주도의 나들목인 제주항을 품은 이름이다. 사라봉 북쪽 기슭에 등대가 있어 어둠 속을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 사라봉에서 바라다보는 붉은 바다의 해질녘 모습이 장관이어서 예로부터 ‘사봉낙조(紗峯落照)’라 하여 ‘영주십경’ 중의 하나였다. 지금은 시민공원으로 자리잡아 옛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는 ‘칠머리당’이 있어 매년 풍어를 기원하는 곳이 펼쳐진다. 사라봉의 남쪽 기슭에는 모충사가 있다. 이곳에는 조선 영조 때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도민들이 굶어 죽어가자 자신의 사재를 털어 도민구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의녀 김만덕(金萬德)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순국의병(殉國義兵) 및 항일독립운동가 조봉호(趙鳳鎬)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현재 지방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읍성(邑城, 州城) 터’ 또한 건입동에 있는 주요한 역사문화자원이다. 제주읍성은 탐라국(耽羅國) 때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연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건입동에 있는 읍성 터는 조선 명종 20년(1565) 제주읍성을 확장하면서 쌓은 성의 일부이다. 이 성과 산지천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그 이전의 읍성은 서쪽은 병문천, 동쪽은 산지천을 자연적인 해자로 삼아 그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그런데 1555년 을묘왜변 때 읍성이 공격당한 것을 계기로 산지천 넘어 동쪽 언덕까지 성을 확장하였다. 또 ‘가락콧말’

에 의존하던 기존의 열악한 물 사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즉, 산지천을 성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팔팔 넘치는 산지물을 확보한 것이었다.

일도동(一徒洞)

일도동은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있다. 삼성신화에는 고양·부삼 신인이 화살을 쏘아 각자의 터전을 고를 때 고을나가 처음으로 정한 지역이라 하여 제일도(第一徒)라 칭하였다고 적고 있다. 일도동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제일’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일도동은 제주시가 외곽지로 확장 개발되기 이전까지 제주의 중심지였다.

일도1동은 1955년 8월 13일 시제(市制) 실시에 따라 일도리의 일부가 일도1동으로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도1동에 속한 마을은 ‘내팓골’, ‘알생깃골’, ‘막은골’, ‘갯물골’, ‘산지목골’, ‘칠성골’, ‘객사골’, ‘해짓골’, ‘창신골’, ‘운주당골’, ‘막은골’, ‘배부른동산’, ‘성굽’, ‘고령밭’, ‘소로기동산’ 등이다. 제주시에서 제일 작은 면적이지만 인구 밀도가 조밀하며 특히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제주시의 중심지이다.

일도2동은 지금도 확장 추세에 있으며 크게 ‘신산동’, ‘인화동’, ‘신천동’으로 나뉜다. ‘신산동’에는 ‘신산마루’, ‘궁중동네’, ‘두무니머세’, ‘신흥동’ 등의 자연마을들이 속해 있으며, ‘인화동’에는 ‘복지물동산’, ‘흰머들’, ‘사구왓’, ‘마루왓’ 등의 자연마을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해 있다. 또, ‘신천동’은 ‘새나뽕’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포괄한다.

일도동은 산지천 하류를 끼고 있는 곳이 상업지구로 변창하고 남쪽 지역이 주거 단지로 각광받으면서 제주시 생활의 중심권이 되었다. 제주의 역사와 삶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도 산지천 계곡을 끼고 위치해 있다. 또한 제주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제주도문예회관도 산지천 변에 들어서 있다. 문예회관 옆에는 신선이 바둑을 두는 모습의 지형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신산모루’로 불리는 지역에 신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9.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동문시장

아라동(我羅洞)

아라동은 지역의 범위가 한라산 정상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또, 속해 있는 자연마을도 많다. ‘인다’, ‘간드락’, ‘걸머리’, ‘원두왓’, ‘구름’, ‘대원’, ‘장구왓’, ‘산천단’ 등이 아라동을 형성하는 마을들이다. ‘인다’는 ‘웃인다’와 ‘알인다’가 있었으나 ‘웃인다’는 43사건 때 소실된 이후 복구를 하지 않아 지금은 집터도 모두 과수원이거나 밭으로 변해버린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이 밖에 ‘재공동’, ‘탯굴’ 등 10호 미만의 가구가 살던 조그마한 마을들도 43사건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마을터에 최근 크고 작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아라동은 급격한 팽창을 하고 있다.

아라동은 산간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오름과 계곡 그리고 하천의 지류를 거느리고 있다. 한라산의 정기가 올곧게 뻗어 내려온 곳이라 여긴 산천단은 조선

성종 때부터 한라산신을 위해 산신제를 올렸던 곳이다. 원래 제주도는 고려 시대부터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하지만 기상이 나빠지면 한라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어서 ‘소산오름’ 기슭에 제단을 설치한 것이다. 또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지역으로 소문난 금천의 옛 지명은 ‘거마로(巨馬路)’라 표기했었다. 그 이유는 영주십경의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 속칭 ‘고마장(古馬場)’이라고 하는 광활한 숲(藪)에서 수천 마리의 말을 방목하는 모습)와 관련이 깊다. 즉, 방목하기 위해 한라산을 향해 말이 올라갈 때 지나는 길이라는 뜻의 ‘거마행로(巨馬行路)’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길머리’라는 속칭을 가진 이곳엔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답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금산공원이 있다. 이곳의 물은 한때 아라동 주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었다. 지금도 울울창창한 이 하천에는 물이 솟고 제주도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무환자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월평동(月坪洞)

1702년의 《탐라순력도》에 ‘별라화(別羅花)’, 1709년 《탐라지도》에 ‘별라화리(別羅花里)’라는 기록이 있다. ‘다라콧’이라는 고유 지명을 갖고 있는 월평동은 마을은 크지 않으나 한라산까지 뻗어 있는 지세를 가진 곳이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약 4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월평동 사람들은 마을 인근의 ‘귀여물’이라는 요(凹)형의 분지를 이룬 곳과 그곳과 가까운 ‘드래샘’이라는 샘물을 설촌할 수 있는 입지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제주도 중산간 일대 목야지대를 10소장으로 나누어 관리할 때 제3소장의 중심에 월평마을이 위치해 있어 과거에 목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다.

월평마을은 동쪽과 서쪽에 형성된 하천을 이웃 마을과의 경계로 삼고 있다. 동쪽은 ‘강각씨내’ 혹은 ‘무두천(無頭川)’이라 부르는데, 무두천은 발원지가 없어 머리

가 없는 하천이라는 뜻이다. 또 서쪽으로는 ‘씻내’가 형성되어 있는데 ‘베릿내’라고도 부르는 ‘화북천’이다. 이 하천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우마들을 위한 물 공급원이 있었다. 그중에서 ‘권지소(勸止沼)’는 둘레 약 100m, 지름 약 25m로 꽤 큰 규모이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 마을 사람들의 식수를 거의 여기에서 얻었다.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가뭄 때면 용강, 봉개 등 이웃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다. ‘권지소’에도 소량의 용천수가 솟는다고 하는데, 예부터 용천수로 유명한 곳은 ‘동새미’였다. 계곡을 낀 동굴 옆에서 물이 솟아 여름철에 물맛이 인파가 많았던 곳이다. 마을에서 1km쯤 떨어져 있지만 예로부터 정성 들일 일이 있을 때 정화수로 많이 사용했던 물이다. 이 밖에도 월평마을엔 식수로 사용했던 ‘도래새미’, ‘올리소’라는 식수가 있었고, 빨래 등을 하던 ‘구시물’, ‘행기물’, ‘알종남소’, ‘고팡물’, ‘웃종남소’ 등이 있었다.

여느 중산간 마을처럼 월평마을도 4·3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약 110가호에 480여 명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 7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은 물론 ‘연신의숙’ 등의 교육기관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1948년 11월 11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의 일부 집들이 불타고, 11월 20일에 나머지 가옥이 모두 불태워졌다. 일부 연고자를 찾아 해변마을로 피난 간 주민도 있었지만 산으로 몸을 피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이 식량을 가지러 마을 인근에 내려왔다가 7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기도 했다. 폐허가 된 마을 복구도 다른 마을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다른 마을들은 1949년부터 1950년 즈음에 복구가 되지만 월평마을은 1954년 봄에 축성을 하여 그해 9월 말에야 복구마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마저도 움막생활과 다름이 없었고 1957년 건축자재를 일부 배급받으려면 집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여 호가 거주하던 ‘웃동네’는 복구가 되지 않아 지금은 농경지로 변해버렸다. 지금도 월평동에는 복구 당시 쌓았던 성의 흔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또 이 마을 일대에서 무장대의 매복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도로변에 쓸쓸히 서 있다.

제주섬에서 마을이 형성된 곳에 어김없이 들어섰던 본향당, 월평마을의 공동체적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안녕을 비넌하는 본향당인 ‘다라콧당’이 이 마을에도 있다. 속칭 ‘신동이 모루’ 지경에 커다란 팽나무를 신목 삼아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 당은 그릇을 깨고 오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살핀다 하여 예전에는 깨진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영평동(寧坪洞)

영평동의 설촌 유래에 관해서는 확실한 문헌이 없으나, 나주 김씨 세보에 의하면 1500년대 초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영평동은 상동과 하동으로 나뉜다. ‘가시나물’이라는 속칭을 가진 영평 상동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산지천 중류인 하천변에 울창하게 늘어선 나무들이 감싸고 있다. ‘알무드내’로 불리는 영평 하동은 상동과는 꽤 떨어져 있다. ‘알무드내’라는 마을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무드내’를 끼고 있다.

43사건으로 ‘가시나물’과 ‘알무드내’ 모두에서 상당한 인명희생을 치렀다. 다른 중산간 마을과 마찬가지로 집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해변과 산간에서 힘겨운 피난살이를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복구 이후에는 ‘알무드내’에 있었던 학교도 ‘가시나물’로 이전되는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영평동에는 ‘조로(래)기낭’으로 불리는 조록나무가 제주도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알무드내’에는 ‘남대북탑(南臺北塔)’을 세웠었다. 즉, 화재가 빈번하여 고승(高僧)의 조언에 따라 마을 남쪽에 거옥(대)을 세우고, 북쪽은 허(虛)한 기운이 든다 하여 돌탑을 쌓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탑은 사라져버렸다.

5. 천미천

교래리(橋來里)

교래리는 지금처럼 교통수단과 도로사정이 좋지 못했을 때는 산간 오지였던 곳이다. ‘ㄷ리손당’ 하면 우선 드넓은 목장을 떠올린다. 그만큼 이 일대는 목축이 성했던 곳이며 지금도 너른 목장이 많다.

약 700여 년 전 화전민이 산거해 살면서 설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래리는 “한라산으로부터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아 다리를 건너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었다.”라는 데서 붙여진 ‘ㄷ리(橋)’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혹은 마을의 위치가 모든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하나는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800m의 암반 빌레가 길게 뻗어있는데 다리 모양의 형체를 이뤄 ‘ㄷ리’로 칭해졌다고 한다. 아무튼 오지였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곳저곳 오가는 사람들이 거쳐가야 했던 교차로임은 틀림없다. 지금은 걸어서 교래리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지만,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는 지친 몸 쉬게 해주는 팽나무와 마른 목 축여주는 물이 곳곳에 있었다.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래리 인근은 천미천의 본류와 지류로 인해 생긴 하천이 많다. 뿐만 아니라 산간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뒷곶’, ‘늪서리곶’, ‘보목곶’ 등의 곶자왈과 물참오름, 말참오름, 바농오름 등 오름이 많다. 가을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산굼부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다. 비고 130m의 낮은 오름을 산책하듯 오르면 그보다 더욱 깊게 패인 분화구가 거대하게 펼쳐지는 이곳은 각종 식물과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4·3사건은 산간 오지였던 교래리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1948년 11월 13일, ‘웃동네’, ‘알동네’로 나뉘어 100여 호에 살던 주민들은 느닷없이 들이닥친 토벌대의 무



그림 3-10. 교래리

차별 방화와 총격에 속절없이 쓰러졌다. 이때는 빨리 피하지 못한 여자와 노약자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토벌의 표적이 되었던 생지옥 같던 이날 하루에만 3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곳자왈 등에 몸을 숨기며 힘겨운 피난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이들 중 또 상당수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희생당하거나 형무소로 이송되어 행방불명되었다.

때문에 1950년대 들어서야 재건이 허가됐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돌아올 사람이 없거나, 아픈 기억이 너무도 선명한 이곳을 일부러 피했던 것이다. 이후 제동목장이 개발되면서 교래리는 토박이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이 되었다.

대천동(大川洞)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표선으로 향하는 길고 깊은 계곡 천미천을 끼고 있는 대천동은 구좌읍 송당리의 작은 마을이다. 송당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주본향신의 원조인 마을이다. 마을 이름과 ‘당내’, ‘당팻’, ‘당오름’, ‘당동산’ 등의 지명에서도 제주 무속의 내음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대천동은 송당리 본 마을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어찌면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마을이다. 약 200년 전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대천동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화전갈이와 목축으로 생계를 꾸리는 격절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아주 작은 마을에도 43사건으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주민 희생이 있을 정도였다. 마을이 불타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



그림 3-11. 대천동 전경

어졌다. 이후 재건이 허가되어도 돌아온 토박이는 많지 않았다. 원래 인구가 적었던 탓도 있었지만, 피난지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로 대천동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간혹 들어오는 이들도 타 지역 사람들이었다. 토박이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의 사람들이 웅기종기 부대끼며 살았다. 그나마 소 값 잘 나갈 때는 큰돈 번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다. 현재 10여 가호 남짓 살고 있는 이곳 대천동은 동부산업도로와 중산간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보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되었다.

성읍리(城邑里)

1리와 2리로 나뉘어 있는 성읍리는 자랑거리가 많은 마을이다. 해안마을 표선리에서 약 8km 올라간 곳에 자리잡은 성읍리는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마을 자체가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이다. 또한 그 속에 무수히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오늘의 성읍리를 만들었다. 이 민속마을 일대가 1리를 이루고 있다. 성읍1리는 약 650년 전 ‘거천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후 ‘소진리’, ‘영전리’, ‘화원리’, ‘진사리’ 등의 크고 작은 마을이 산재했었으나 마을의 중심지인 ‘진사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주산(瀛洲山, 325m)이 마을을 품고 있으며, 그 주위로 백약이오름, 본지오름, 모지오름, 장자오름, 갑서니오름, 설오름, 개오름, 모구리오름, 독자봉, 가시오름, 돌리미, 문석이오름, 궁대오름, 좌보미오름 등 크고 작은 오름들이 드넓은 평원에 자리잡아 성읍리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성읍리는 서기 1423년 정의현청이 성산면 고성리에서 이설되면서 ‘성읍(城邑)’이라는 마을 이름을 갖게 되었다. 500년 가까이 지속된 제주도 동부지역의 도읍지답게 지금도 많은 민속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성읍리를 지나노라면 거대한 느티나무와 팽나무를 볼 수 있다. 옛 정의현감이 집무했던 일관헌(日觀軒)을 덮을 듯이 서



그림 3-12. 눈 덮인 성읍민속마을

있는 이 나무가 성읍리의 역사를 웅변하고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4.3사건의 화마도 성읍리는 비껴갈 수 있었다. 물론 수차례에 걸친 무장대의 습격과 토벌대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중산간마을과는 달리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아 그나마 집이 불태워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때문에 500년 도읍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국가 지정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관광명소가 되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이 관광의 대상이 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 역시 존재하는 마을이다.

성읍2리는 조선 철종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마을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정의현청이 있었던 1리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천미천

이 휘감아 돌던 곳에 사람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구렁팻’을 비롯해 ‘안밭’, ‘짐댕이골’ 등 3개의 자연마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4·3사건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집이 모두 불태워지고 마을 사람들은 희생당하거나 피난길을 떠나 약 6년 동안은 마을로 돌아올 수 없었다. 1955년 후반기에야 현재의 위치에 재건이 이루어져 성읍2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성읍2리의 역사를 증언하듯 ‘구렁팻’에는 ‘가마귀동산’이라는 돌탑이 세워져 있다. ‘구렁팻’의 설촌과 역사를 같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돌탑은 다른 마을에서는 ‘탑’, ‘거옥’ 등으로 불리나 이곳에서는 ‘가마귀동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지닌 문화유산이다.



그림 3-13. 천미천 변을 따라 형성된 신평리

신평리(新豊里)

‘신평리’, ‘신헌리’, ‘하천리’는 천미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세 마을을 합쳐 본디 ‘내끼’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진 데서 알 수 있다. ‘내끼’는 내(川)의 꼬트머리라는 뜻이다. 문헌상의 마을 이름은 ‘천미촌(川尾村)’, ‘천미리(川尾里)’라 기록된 인근 묘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평리(新豊里)란 마을 이름은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조선 조 철종(서기 1840년) 때 이 마을 사람 오진우(吳眞祐)에 의해 명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평리 노인들이 “가법(家法)은 흥학(興學)과 무농(務農)이라사 하주.”라고 자주 말한다. 즉, 가정을 꾸려가는 데는 교육에 힘쓰고 농사에 부지런하라는 것을 가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다.

신평리를 끼고 흐르는 천미천에 ‘곱은소(沼)’라는 큰 못이 있다. 이에 대한 유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다.

“옛날 하천리(표선면 하천리)에 어떤 처녀가 계모 밑에서 살고 있었다. 계모는 심술이 대단했다. 딸에게 빨래를 시켜도 꼭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곱은소’에 가서 옷을 빨아 오도록 했다. 그 못은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이 아주 곱기 때문이다.

어느 해 몹시 추운 날이었다. 그날도 계모는 꼭 그 물에 가서 빨래를 해오라고 지시했다. 처녀는 추위에 손발이 시려 도저히 빨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계모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서 무엇하리 하고 낙심하여 그 물에 빠져 죽어 버렸다. 원혼이 된 것이다. 그 후로 그 물에서는 밤마다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도부장수가 ‘곱은소’ 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을 들여다보니 낚시꾼 두명(가치깡이)이 둥둥 떠 있었다. 이상히 여긴 도부장수는 그것을 잡으려고 물가로 갔었는데 갑자기 물귀신이 나와서 도부장수의 목덜미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물귀신은 바로 처녀의 원혼인 것이다. 그 총각 도부장수가 처녀 물귀신에게 잡혀간 후로는 거기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신천리(新川里)

신천리 인근에서 돌칼, 돌도끼, 고인돌 등 선사 시대 유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 시대부터 이미 이 고장에 사람이 살았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완전한 마을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조 세종 5년에 정의현이 현 성읍리로 옮겨지면서부터인 듯하다. 전설에는 현씨가 이 마을을 설촌하였다 하는데, 이를 증명하듯 신평리와 신천리에는 ‘선방터’, ‘생개터’, ‘선비장골’, ‘선씨일월당’ 등 현씨와 관련된 지명이 많고 신평리에는 현씨가 처음 살았다는 집터도 있다.

천미천이 흐르다 신평리의 남쪽 가름에서 지류가 형성되어 ‘솔대왓’을 지나 한 굽이 넘어서 넓은 바다를 향하는데, 고산동산을 조산(祖山)으로 삼고 ‘백웅왓’, ‘탈왓’ 지경의 평야를 끼며 신천리 마을이 형성되었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천미천의 동·서쪽에 몇 호씩 흩어져 살았으나 본격적인 집단 촌락은 아니었던 듯하다. 신천리는 마을 이름이 보여주듯 마을 형성이 늦게 되었다. 천미포란(川尾浦亂) 때만 하여도 불과 5~6호였다고 한다. 천미포란을 겪으면서 천미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고산동산을 등에 지고 천미연대가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연대가 신천리 설촌의 효시가 된다. 남쪽 바다로 들어오는 왜적을 막아야 될 요충지이므로 연대를 쌓았고, 연대에서 왜구가 오가는 것을 살피려 하니 자연적으로 연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 오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주변에 살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대 바로 북쪽에 ‘현씨일월당’이 있다. 이 신당에는 남매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려서 부모를 여윈 남매가 가난하게 살다 무병(巫病)에 걸려 죽게 된 누이를 살리고자 오빠는 무구를 구하러 나섰다. 하지만 오빠가 탄 배는 멀리 가지 못하고

거친 풍랑에 침몰해버렸다. 연대 위에서 이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누이도 연대 밑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다. 신천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고춧당’이라는 본향당이 바닷가에 있다. 지금도 이 신당은 바닷길 하는 잠수와 어부들이 자주 찾는다. 예나 지금이나 신천리 주민들은 바다도 귀중한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실제로 신천리의 토지는 비옥한 편이 아니다. 특히 넓지 않은 면적에 불모지가 많아 농사만으로 먹고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다는 넓고 해산물이 풍부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상군 해녀가 많았다. 신평리 앞바다인 ‘돌래와’까지 갔다 온 해녀도 있다. 바다 동쪽에서부터 뒷마을까지 연안과 연해에 ‘동진여’, ‘금택이여’ 등 모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봐도 신천리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와 밀착되어 살아왔는가를 쉬 짐작하게 한다.

하천리(下川里)

원래 하천, 신평 두 마을을 ‘넛끼(川尾)’라 하여 신평은 상천미(上川尾), 하천은 하천미(下川尾)라 칭했었다.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가 조선 말 고종 때 강학수 현감이 하천리를 분리시키고 속칭 ‘묵은가름’에서 현재의 위치로 마을을 옮겼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이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면서 ‘윗동네(上洞)’, ‘중동(中洞)’, ‘넓밭(넓은 평원이란 뜻, 下洞)’ 등의 자연마을들이 생겼다. 중동은 ‘방상동네’라고도 하는데 이는 강씨(康氏)가 집단적으로 사는 동네라는 뜻이다.

하천리와 신천리 사이의 천미천을 잇는 다리 이름이 ‘평화교’이다. 무심코 지나치면 고개 한 번 끄덕이며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름과 관련한 사연이 있다. 이 다리는 한때 제주도에서 가장 길이가 긴 다리였다. 그래서 다리 공사를 할 때부터 두 마을 사이에는 다리 이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다리 이름에 서로 먼저 자기 마을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룬 이름이 ‘평화’였다.

하천리와 ‘평화’라는 단어가 결코 무관하진 않다. 제주도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생지옥 같던 4·3사건 때, 하천리는 희생되거나 검속된 사람이 없는 보기 드문 마을 이기 때문이다. 물론 축성과 경비·동원에 시달렸지만 무참한 인명희생과 가옥 소실 피해를 입은 다른 마을의 사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의 맨 끝자락에 있는 하천리에서, 아픔과 고난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6. 효돈천

신효동(新孝洞)

신효동은 하효동과 나란히 접해 있는 마을로 하효동과 함께 ‘효돈’으로 통칭하여 불리던 마을이다. 신효동은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약 3~5km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동북쪽 큰내(효돈천)를 경계로 서쪽에는 서상효, 토평동이 있고, 북쪽에는 동상효와 서상효가 접하여 있으며, 남쪽에는 하효동과 보목동으로 둘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효동은 산간부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없다. 신효동에는 600세대 2,100여 명이 큰가름, 앞동산, 뒷동산, 울음동산 등에 주택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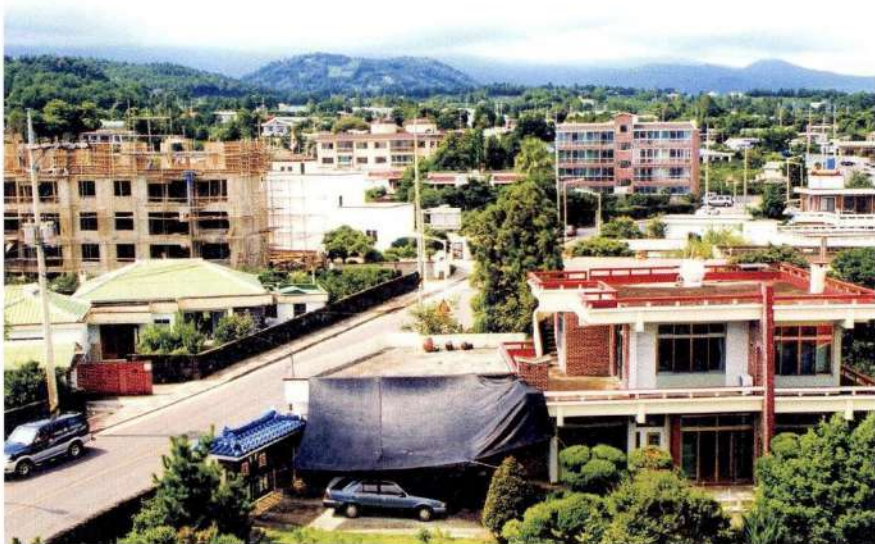


그림 3-14. 신효동

신흥리의 지명유래는 1700년도 초반에 ‘牛屯’이라 표기되다가 1872년에 제작된 지도에서 신흥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신흥리는 1841년부터 1872년 사이에 ‘우둔’이라 불리면서 ‘새쇄둔·새쇄둔’이라 불렸고, 신흥둔(新孝敦)으로 한자 표기하다 신흥로 불리게 되었다. 신흥리는 1981년 7월 서귀포시 효돈동으로 통합되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에는 우둔 출신으로 효행과 학문이 뛰어났던 고명학(高鳴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자는 자화, 호는 우졸제이다. 고명학은 중시조 말로의 27세손이고, 영령곡 고득종의 13세손이다. 정조 18년 갑인식년방 문과에 급제하여 우승(郵丞) 벼슬을 주었으나 부모님이 늙으셨다 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고명학은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밭을 갈고, 고기를 낚으면서 부모 봉양에 성심을 다했다. 순조 14년에도 장령(掌令)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부임하지 않았고, 다시 대정현감을 제수하여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게 하였으나 역시 부모의 병환을 이유로 부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명학의 효심은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그를 동소남(董邵南)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순조 22년 조정화(趙庭和)가 위유어사(慰諭御使)로 제주에 왔을 때 고명학의 행적을 찾아보고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받았다. 어사는 고명학이 사는 마을을 우둔이라 하지 말고, ‘효가 도타운 땅’이란 뜻으로 ‘孝敦’이 좋겠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을 이름을 ‘효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3 당시 신흥리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정치적으로 ‘무색무취(無色無臭)’한 마을이었다. 더구나 신흥지서가 소재한 마을이어서 주민들은 토벌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신흥리 주민 30명가량이 토벌대에게 희생되었고 물진 밭, 말죽밭의 조그만 마을들이 4.3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월라사는 신흥리 월라봉에 자리잡았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1939년 변옥희에 의해 창건되었다. 4.3 당시 무장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절에서 밥을 얻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토벌대는 창건주 변옥희는 물론 함께 있던 그녀의 딸과 손자까지 학살했다. 변 보살이 죽은 다음부터 독경을 외던 스님들마다 울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고 한다. 4.3 때 죽은 ‘변 보

살'의 영혼이 원한이 저 우는 것이라고 하여 스님들은 법회 때마다 법당 밖에 밥 한 상을 차려 놓는다고 한다.

월라봉의 큰머리 큰산은 '신두형'이라 하여 몇 년에 한 번씩 남쪽 벽이 떨어질 때마다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고, 앞에서는 용이 재주를 부리고 삼도의 문필봉을 바라보고 있어 문장가가 태어나 자손대대로 번창할 산터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신효동의 볼거리는 서귀포감굴박물관을 빼놓을 수 없다. 제주특산물인 감굴을 테마로 감굴의 세계를 한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곳에서는 그 옛날 대학나무로 부르기도 했던 감굴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노동현장을 엿볼 수 있고 제주인 삶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하효동(下孝洞)

서귀포시 시가지의 동쪽 끝에 위치한 하효동은 동으로 효돈천을 경계로 남원을과 접해 있고, 북쪽과 서쪽은 신효동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최근 하효동은 효돈천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쇠소깍을 비롯한 해안절경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궐터, 당구왓, 절왓, 대선병디, 뒷가름, 옥터, 죽림터, 전세포 등과 같은 이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효돈천, 하례천, 공천포의 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효동의 옛 이름은 '알쇄둔·알쇄둔'이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하우둔(下牛屯)·하효둔(下孝敦)이다. 쇠둔·우둔에서 18세기 중반에 분리되어 '알쇄둔·하우둔'>'하효둔'>'하효'라 하다가 1981년 7월 1일부터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었을 때 효돈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인 '하효동'이 되었다.

하효동 주민들은 산남 최대의 하천인 효돈천과 더불어 동고동락해 왔다. 효돈천



그림 3-15. 효돈천 하류에 자리잡은 하효동

은 서귀포시 동 지역과 남원읍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하류는 주로 효돈과 하례리 주민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해안 쇠소깍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긴소, 웃소, 댕물, 남내소 등 크고 작은 소(沼)들이 이어진다. 특히 닥굴동산, 재통, 한지내콤 등은 한지를 만들었던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한지 생산이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지내콤’은 흐르는 물과 물웅덩이, 넓고 평평한 바위들이 있어 펄프를 말리는 데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나 토질이 안 좋은 땅에는 닥나무를 심어 생계를 꾸려갔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종이를 만들어 자급자족했고, 효돈천을 끼고 있는 인근 마을에서도 종이를 만들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제주 4·3사건 당시 하효리는 중산간 마을도 아니었고, 정치색도 열어 입산자가 거

의 없는 마을이었다. 또한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지도 않아 무장대에게 희생된 사람이 없는 마을이다. 그러나 하효동은 사태의 와중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된 주민이 적지 않았다. 43으로 인해 약 40명가량이 희생되었고, 유족들 중에는 희생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하례리(下禮里)

남원을 서쪽 끝마을 하례리는 한라산의 웅좌가 서북쪽에서 감아 안아 겨울 서북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화하여 눈이 귀한 마을이다.

하례리의 설촌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충렬왕 26년(1300년)에 설치된 현촌은 모두 15개로서 《탐라지》의 14현에 토산이 추가된 것이다. 이 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고 호촌현이 남원읍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선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례리의 마을 이름 유래를 보면 고려 시대 호아현 또는 호촌이라 하던 것에서 호(狐)를 예(禮)로 고쳐 예촌(禮村)이라 하였다. ‘예가 있는 마을’ 또는 ‘예를 존중하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그 후 상예촌리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정의군 좌면이 정의면으로 개칭될 때 예촌리와 신례리, 위미리 일부를 통합하여 하례리라 부르게 되었다. 1965년 행정단위 마을로 하례리를 하례1리·하례2리로 구분하였다.

하례1리는 어장이 풍부한 망장포와 우금포구를 끼고 있어 미역, 소라, 전복 등이 풍성하고 예촌망(호촌붕)을 중심으로 해안 절경 또한 수려한 곳이다.

하례2리는 북쪽으로 두서악과 녹곤수가, 서쪽에는 영천오름, 남서쪽에 첩오름이 둘러 있고, 두서악 기슭을 흐르는 효돈천 상류에서 서귀포시 동 지역과 남원읍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고려 말기에 목마장을 설치하였으며, 조선 세종 때는 목마 9소장으로 마필을 점검하는 점마소가 있었던 마을이다. 점마소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고살리샘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 고살리샘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맑고 시

원한 물을 제공해 주었다.

하례2리 학림동에는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효돈천 상류의 동안과 북변, 속칭 금물과원이라는 곳에 제주현에서 건너온 남양 홍씨가 주막(여관)을 경영하였다. 이곳은 대정현과 정의현을 왕래하는 중간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그 후 고씨가 두서악 기슭에, 또 현씨, 문씨 등이 이주해 와 30여 세대가 화전을 일구며 마을을 형성하였다.

한편 43 당시 하례1리는 입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익세가 강한 마을이었다. 마을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의용대’ 등을 조직해 마을 경비에 앞장섰다. 하례리를 토벌대에 협조하는 우익마을로 지목한 무장대는 1949년 1월 3일 대대적으로 습격해 왔다. 이날 습격으로 국민학교가 전소되었고, 주민 30여 명이 희생되었다. 식량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이날 인명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 지역 원로들은 아타 구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하례2리 주민들은 43 당시 소개령으로 하례1리와 효돈 등 해안마을에 흩어져 살다가 1962년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43원주지 복구사업이 추진되어 4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1965년 4월에 하례2리가 행정동으로 분리되었고, 1967년 정부의 중산간 개발 사업 일환으로 양마시범단지를 조성했다. 그해 10세대, 뒷 해 23세대가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80세대가 모여 사는 마을이 되었다.

토평동(吐坪洞)

토평동은 서귀포시 중심에서 북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제주시를 잇는 제1횡단도로를 끼고 있다.

토평동의 설촌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1550년경) 소정방 상류, 속칭 묵은가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온다. ‘광숙이 왔’으로도 불리던 이곳에 1500년째 육지부에서 난을 피해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

했는데, 그들은 김(金)씨, 오(吳)씨, 정(鄭)씨 들이었다. 이 묵은가름 터에는 최근까지도 기와 파편들이 발굴되어 마을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토평리 중심인 ‘축굴’, ‘жат물’ 등은 곳밭이었으며 산돼지도 많아서 돛드르, 즉 저야촌(猪野村)으로 불렸다.

일설에 의하면 해변과 가까웠던 묵은가름은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었으나 사람들이 소정방 일대(속칭 무족시) 해안 절벽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아 묵은가름에서 현재의 위치인 ‘돛드르’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새로이 정착한 토평동은 바다와도 멀고 산돼지와 같은 짐승들이 많아 사냥감이 풍부하며, 토질도 비옥하여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림 3-16. 토평마을

토평동의 마을 이름은 ‘돛드르’ 또는 ‘저평리’라고 부르던 것을, 1925년 정의계 우면 토평리로 개칭하여 12구로 분할되었다가, 1944년에 토평리로 통합되었다. 1956년에 서귀읍 토평리였다가 1981년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토평동이 되었다.

한편 제주도에 피바람을 몰고 왔던 4.3사건은 토평리에도 휘몰아쳤다. 1948년 11월 7일 서귀포를 습격하고 퇴각하던 무장대는 토평리에 들러 청년들에게 함께 입산하자며 선동하고 데리고 올라갔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주민들은 여기저기 숨었고, 토벌대는 연일 마을을 덮쳤다. 경찰들은 입산자 가족들에게 도피자를 찾아내라며 산으로 내몰았다. 이런 와중에 토벌대에게 희생당하거나 잡혀가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이 80여 명이나 되었다.

현재 토평동은 북쪽으로 ‘형제동산’, ‘잔질개동산’, ‘멀뒤’, ‘이신악’ 등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서쪽으로는 ‘흙소’, ‘사망마루’가, 동쪽에는 ‘소남불미’, ‘덩덩이왓’이 둘러앉아 있는 곳으로 엄청난 개발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마을이다.

상효동(上孝洞)

서귀포 중산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상효리는 약 1.5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자연 마을인 동상효와 서상효로 이루어졌다. 동상효는 남원을 하례리와 가깝고, 서상효는 토평동과 인접해 있다.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상효 1·2동을 비롯해 법호촌과 입석동을 아우르는 상효3동이 형성되었다.

마을의 설촌 시기는 뚜렷한 문헌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마을회관 북쪽에 조씨가 땅을 파서 이용했던 데서 유래한 조가물, 알동네에 정씨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우영, 정우영과 옷가름 중심에 허씨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허계우영, 허동갱이우영 그리고 허질생이드르와 허선달밭이라는 지명과 지경이 있어 조·정·허 세 성씨가 정주하여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존 세대의 정착 시조로 알려진 오씨 문중의 종가집 터에 당국의 보호를 받는 고목과 보다 오래된 고

목의 뿌리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마을 설촌 시기는 조선 초기로서 마을의 이름은 토평동과 마찬가지로 ‘돛뜨르’였다고 한다. 문헌기록에는 군위 오씨 6세조가 약 400년 전 조씨 생활 터전을 이어받아 정착하면서 마을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1902년 탐라국을 제주라 칭하고 제주·대정·정의 삼군제를 실시할 때 상호·하효·신효는 효돈이라는 한 마을로 정의군에 속하였고, 1915년 도제 실시로 현재 서귀를 제주도 우면으로 개칭할 때 서효라 부르다가 1934년 우면이 서귀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서효는 상호로 개명되었다.

그 후 1948년 4.3사건 때는 소개되어 이웃 마을로 흩어졌다가 이듬해 4월에 동상효 재건 허가가 나 주민들은 마을에 돌아왔으나 두 달 만에 다시 소개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무장대의 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있었으나 주민들은 당시 경찰관 홍 주임이 요구한 솥을 주지 않은 데 보복한 것이라고 했다. 1950년 4월 비로소 2차 재건되어 마을을 감싸는 이중 성을 견고히 쌓고 성 안에서 4년 동안 살아야 했다. 1953년 임시 행정조치로 상호12리로 분리되었고, 1981년 서귀포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인근 마을인 토평, 상호 1·2·3리를 합쳐 영천동 8개 통으로 개편되었다.

법호촌(法護村)

법호촌은 제주도 사법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라는 데서 이름이 붙여진 마을이다. 신앙생활로 뭉쳐졌다고 해서 ‘가나안촌’이라고도 했으며, 영천관지와 영천사지 등의 역사 사적지가 있다. 특히 사계절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돈내코는 신경통 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물맞이’ 장소로 널리 알려져 현재 국민관광 휴양지로 개발되고 있다.

100여 년 전에 상동에 6세대, 하동에 4세대 등 10여 세대의 화전민이 있었으나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하여 마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1948년경 연주 현씨



그림 3-17. 돈내코 계곡을 끼고 있는 법호촌

가 영천악 기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소개하고, 4.3사건 당시에는 한라산 무장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군인이 주둔하였다. 이때 주위 시계(視界) 청소를 위해 서귀포 인근 주민들은 나무를 잘라내는 부역에 동원되어 시달리기도 했다. 4.3이 일단락된 1955년 귀농정착개척단이 보사부의 허가를 받아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을 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현재 영천동의 7통(160세대), 8통(120세대)을 법호촌이라 하는데, 7통을 법호촌, 8통을 웃법호촌이라고 부른다.

입석동(入石洞)

입석동은 법호촌과 함께 상호3동에 편입된 마을로 제1횡단도로 남서교 북쪽 7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에 거대한 ‘서 있는 돌’, 혹은 ‘신비스러운 돌’이 있다 하여 ‘선돌’이라고도 한다. 입석동 길목에는 선덕사, 선도암이 이어지고 노송과 함께 우뚝 서 있는 선돌이 예사롭지 않다. 선돌 동쪽 기슭에는 언제나 용출수로 넘쳐나는 ‘선돌계곡’이 있고, 그 부근으로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지경이 형성되어 있다. 입석동은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100여 년 전부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근 주민들은 43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그곳에는 예전 사람들이 사용했던 연자방아가 남아 있고, 마을 입구 쪽에 규모는 크지 않으나 농사지었던 경작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집단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입석동에는 현재 11세대 2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찰과 암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7. 동홍천

동홍동(東烘洞)

서귀포 시가지 가운데 동홍천의 하류인 ‘에으리내’ 변에 위치한 동홍동은 누워 있는 여신의 형상을 띤 한라산의 자태가 가장 돋보이는 곳이다. 마을 뒤쪽은 높지 않은 마루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앞에는 편평한 농경지와 주거지가 펼쳐지며 남쪽으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문헌상의 동홍동 기록은 고려 중엽에서부터 홍로현이 있었던 기록이 있고, 서기 1300년 고려 충렬왕 26년에 제주에 14현 중 홍로현과 예례현 2개의 현촌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 홍로촌은 매우 오래전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로현 이후 조선 태종 때 정의현으로 바뀌게 되었고, 조선 말엽에는 우면으로, 1935년 일제강점기 때 서귀면으로 개편되면서 홍로촌도 동·서홍리로 분리되었다.

동홍동의 동북쪽, 속칭 대교동에는 서귀진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며 옛 이사무소 자리에는 면사무소와 우편소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1930년대 이후 일제는 거의 모든 행정관청들을 중산간 마을로 옮겨 설치하였다. 전쟁에 대비해 피난(소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도 마을은 홍로라는 이름으로 서홍리와 같은 행정구역이었다. 중심의 본동과 서귀리 북쪽 ‘굴왓’이라고도 부르는 굴전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서귀포시 교육청이 있는 곳까지도 동홍리에 속했다.

동홍동은 동양 최대의 정방폭포 근원인 ‘정모시’의 물과 ‘산지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였다. 굴왓(굴전동)은 ‘통물’을 생활용수 삼아 제주 부씨 등이 주축을 이루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살아왔다. ‘정모시’는 동홍천의 끝부분으로 정방폭포까지 이어진다.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은 물장구치고, 동네 노인들이 더위를 식히는 장소로 유명했던 ‘산짓물’은 동홍교 가설 공사 때 매몰되어 아쉽게도 메말라 버렸다.

동홍동에 속한 홍로 ‘알병디’는 지금의 서귀중앙여중, 서귀고등학교, 서귀포의료원, 충암아파트 일대를 이르는 지명이다. 일제강점기 홍로 ‘알병디’에는 서귀포 비행장이 설치되었다. 1943년 연합군의 반격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은 제주도를 전초기지로 삼기 위하여 전도를 요새화했다.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곡물의 공출과 각종 군수물자의 운송을 위해 서귀포 비행장이 설치됐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노무자로 동원되었다. 옛 남제주군청을 중심으로 동서 활주로가 있었으며 서귀 ‘뒷병디’에서부터 홍로 ‘알병디’, 즉 학생문화원 입구까지 비행장으로 사용하였다. 서귀포 비행장의 남북활주로는 동·서홍 분리 도로로 사용하다 확장하여 지금은 큰 도로가 되었다. 동서로 개설되었던 활주로 자리는 서쪽으로 남제주군 군청이 자리했었고, 동쪽으로는 제주방송국 서귀포 중계소가 있다가 이전하여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한편 43 당시 동홍동 주민들은 중산간 마을 소개령이 발표됨에 따라 1년여 동안 해안마을과 이웃마을로 이주하여 살아야 했다. 43사건이 진정되고 소개령이 해제되면서 일부 이주민들은 소개지에 정착하였고 대다수는 고향으로 돌아와 폐허가 된 마을을 재건하고 복구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동홍동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최대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오일에 한 번 서는 오일시장에 가면 넉넉한 인심이 아직도 넘쳐난다.

8. 연외천

서흥동(西烘洞)

서귀포시 서흥동은 제주도 산남지방의 동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홍로(烘爐)라 하여 동흥리(東烘里)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서흥동 하면 먼저 먼나무와 지장샘이 떠오를 정도로 운치 있고 푸근한 마을이다. 현대적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옛 정취가 사라져 가고 있지만 예전 모습들을 간직한 올레길과 마을길들, 역사를 말해주는 듯 우람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서귀포시 서흥동은 예전에 홍로(烘爐)라 했다. 사방이 동산으로 둘러져 있어 지형이 화로 모양 같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멀리 한라산을 정북에 두고 남녘으로 남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길지에 마을이 위치해 있다. 유서 깊은 지장샘과 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솜반천과 넓은 농토를 안고 있어 아늑하고 양지바른 고장으로 일찍이 설촌되었다.

지장샘은 구전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맥을 끊기 위해 중국 송나라에서 호종단이 왔을 때 농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백발노인에게 지장샘의 물을 떠다주고 몸을 숨겨 주어 호종단이 이로 인해 지맥을 끊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샘물이다.

천지연 폭포의 원류가 되는 연외천이 호근천의 솜반내와 합류하는 곳이 서흥동의 서흥다리이다. 그 외 도고리소, 종남소, 웃솜반내, 도암소, 솜반내 등 수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좋아 마을 인심도 넉넉한 곳이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하논도 서흥동에 위치해 있다.

과거 서흥동에는 제주의 주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제주 감귤농업의 효시가 된 제주농장이 있었다. 1901년 서흥동 소재 천주교 서흥성당(현 복자수도원)에 근무하던 프랑스 엠타카(Esmile J. Taque) 신부가 식물연구를 해 오던 중 왕벚나무의 자생지

가 제주도임을 세계 식물학계에 보고하여 인정을 받고, 1911년 제주 자생 왕벚나무 몇 그루를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준 답례로 온주밀감 14그루를 기증받아 시험 재배하게 된 것이 제주 온주밀감 재배의 시초이다. 서홍동 유적으로는 대곶터, 솔대왓, 향교가름, 외왓(瓦田)이 있다. 또한 마을 앞이 허하여 조상님들이 뜻을 모아 흙으로 흙담을 쌓은 위에, 근세 1910년 식재한 소나무가 낙락장송된 모습, 국내 최초의 감귤지원지인 분토왓(盆土田)이 있어 선인들의 맥박과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 풍광과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서홍동도 43 광풍을 비껴가지 못했다. 4.3으로 희생된 숫자만도 140여 명이 된다고 한다. 1948년 11월 7일 무장대의 서귀포 습격 이후에 토벌대의 보복 학살은 실로 무서웠고 서귀포 지역에서 서홍동은 인명피해가 많았던 지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서홍동 향사 뒷밭에서 갓난아기를 포함한 도피자가 족 7~8명을 학살한 것은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호근동(好近洞)

서귀포시 중심부에서 서북쪽 약 4km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호근동은 한라산자락이 넓게 마을을 감싸고 제주도의 남쪽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이다. 마을 주변에는 감귤과수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수바위 북쪽으로는 중언이께가 있어 분수림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북쪽으로는 한라산과 수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호근(好近)이라는 이름은 바다에 범섬이 가까이 있다고 하여 호근(虎近)이었다가 ‘호(好)’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다. 처음 마을 이름은 好近厓里(호근외리-호근내리-호근머들-호근머루-호근몰)라 했는데 이것은 머들(돌머더기)이 높은 까닭이었다고 한다.

호근동에 처음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서호리와 법환리 사이인 ‘큰가름’과 ‘통물’ 머리였다고 전한다. 이 마을 출신 허은이 1927년에 쓴 《호근록》에 의하면 “이 마을은 조씨, 한씨가 창설한 곳”이라 한다. 이후 1892년에는 씨족 간 다툼으로 마을이 분리되기 시작하여 1900년 한때 합리가 되기도 하지만 1907년 허씨 친족 간의 다툼

으로 동쪽은 호근리, 서쪽은 서호리로 분리되었다. 분리될 당시 경계는 북으로 ‘바가жат도’에서 ‘천지원(天地員)’을 따라 남쪽 ‘통몰’까지 이르게 하고 마을 이름을 서호리라 했다. 당시 호근리가 83호, 서호리가 113호였다. 이후 1913년 토지 측량을 할 때 천지원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 하여 도로와 계곡을 따라 경계를 다시 정했다. 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호서중앙의숙을 마을 자체에서 설립하여 속칭 ‘막동산’에서 교육해오다가 1934년 서호간이학교로 설립 인가되었으며, 1943년에는 6년제 서호국립학교가 인가되었다. 이 학교는 1977년 막동산에서 현 위치인 ‘솔대왓’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호·호근마을이 분리된 지 100여 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은 서귀포시 대륜동으로 개편되어 서귀포시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43 당시 호근동은 200여 호의 작은 마을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에 2연대 중대본부가 주둔하면서 주둔소 성담 쌓기에 자주 동원되었고, 군인들에게 부식 대는 일은 먹을 게 어렵던 시절이라 곤란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서호리는 인명피해가 적었는데 반해 호근리는 60여 명이 희생되는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이기도 하다.

서귀동(西歸洞)

서귀동은 현재의 중앙동과 정방동, 천지동, 송산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던 마을로 산쪽으로 동·서흥동을 경계로 하고 남쪽은 서귀포항과 면해 있다. 1961년 10월 1일 이후 서귀 1.23 리였던 마을이며, 1981년 시제 실시까지 통칭 서귀리로 불리어왔다. 서귀동은 고려 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는 고려 시대와 조선 초까지도 홍로현 포구로 이용되었다. 세종 때 제주목 9진(鎭)의 하나로 서귀진이 들어서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서귀리라 하였다. 한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풍덕리라 하였다가 다시 서귀리라 하였다.

서진노성, 즉 서귀진에서 바라보는 남극 노인성의 아름다움이 영주십이경의 하나

가 되고 있거니와 서귀진성의 규모는 주위가 825척, 높이가 12척이나 되었다. 이 성 안에 객사, 군기고, 사정 등의 시설물이 있었으며 1인의 조방장과 성정군 133명, 방군 75명 등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 이곳은 지역 방위의 최전방이었다 할 것이다.

1935년 4월 1일 제주군 우면을 제주 서귀면이라 하였다. 1946년 8월 1일 제주군 서귀면을 남제주군 서귀면이라 하였고, 1956년 7월 8일부터 남제주군 서귀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하였다. 이때 서귀 일부와 토평, 동홍의 일부, 보목동을 통합하여 송산동, 서귀 일부를 정방동, 서귀 일부를 중앙동, 서귀 일부와 동홍 일부를 천지동으로 나눠 서귀면을 네 개의 동으로 분리하여 개편하였다.

정방동(正房洞)

정방동은 동홍천의 하류인 정방폭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홍동, 서쪽으로는 천지동, 남쪽으로는 송산동, 북쪽으로는 중앙동과 경계를 이루면서 구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정방동은 일제강점기 초만 하더라도 별로 크지 않았는데 1915년경 동홍동에 있었던 면사무소가 옮겨오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정방동의 정방(正房)은 이 마을에 속한 정방폭포에서 따온 것이다.

정방동은 예술의 고장이기도 하다. 천재화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피난 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중섭거리’가 있다. 이중섭 화가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잘 조화된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한국근대미술의 여명기를 연 인물로서 암울한 시대와 불우한 환경, 비극적 삶 속에서도 한국미술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중섭은 1951년에 서귀포에 머물면서 <서귀포의 환상>, <계와 어린이>, <쉴새이 보이는 풍경> 등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이중섭거리에 들어서면 피난 당시 거주했던 집이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으며, 거주지 위쪽에 이중섭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이

곳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이중섭의 사망주기를 맞아 그의 예술혼을 기리는 ‘이중섭예술제’가 열리고 있다.

천지동(天地洞)

천지동은 연외천의 하류인 천지연폭포와 외돌개, 삼매봉 등의 유명 관광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서귀포 시내 서쪽 관문이다. 천지동은 천지연폭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천지동이라 하였다.

천지연폭포는 서귀포구로부터 깊고 아름다운 계곡을 따라 1km 올라간 곳에 자리하고 있다. 폭포 둘레의 난대림지대는 한라산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담팔수와 무태장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또한 삼매봉 아래 바닷가에는 20m 높이로 우뚝 솟아 있는 기암인 외돌개가 있다. 이 바위 앞 범섬은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제주도를 강점했던 목호의 난을 토벌할 때 최후의 격전장이었다. 고려군이 외돌개를 거대한 장수로 꾸며 목호들의 눈을 속였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다. 목호들은 외돌개를 대장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모두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외돌개를 장군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산동(松山洞)

송산동은 옛 서귀리로 ‘솔동산’을 한자 표기로 바꾼 것이다. ‘솔동산’은 100여 년 전만 하여도 10여 채의 민가를 제외하곤 온통 소나무로 가득 메워진 동산이었다. 소나무가 있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는 방어진 역할을 했다고 한다.

송산동은 서쪽으로 솜반네가 경계를 이루면서 바다로 흘러든다. 하천은 애이리 내와 효돈천 상류의 지하수가 범람하여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상시천으로 급수용이 되고 있다. 송산동은 고저의 차이가 많아 넓은 농토가 적은 편이다. 해안

은 굴곡이 심하지 않은 편이며 거의 암벽으로 형성되어 기항(寄港)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그림처럼 펼쳐진 네 개의 작은 섬이 균형 있게 흠어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송산동은 세종 때 제주목 9진(鎭)의 하나로 서귀진이 들어서 그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솔동산에는 일제강점기 때 현재 해성유치원 터에 보통학교가 있었고, 구 농산물검사소 자리에 경찰 주재소가 있어서 서귀(면)읍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곳이다.

한편 송산동에는 43 당시 서귀포 주둔 토벌대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 학살했던 ‘소남머리’가 있다. 당시 이곳은 대동청년단들로 하여금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 등 광기 어린 학살이 자행됐던 곳이기도 하다.

중앙동(中央洞)

중앙동은 서귀포시의 중앙에 위치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동홍동·천지동·서홍동·정방동과 인접하여 있고, 인근 관광지로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가 있다.

중앙동 동쪽으로 감싸 안은 듯 내려오는 ‘애린내’의 지명유래는 알 수 없으나, 그곳을 오가다 보면 죽은 아기를 애기구덕에 들고 와서 하천 부근에 묻고, 그 위에 애기구덕을 얹어 놓은 광경이 가슴 아팠다 하여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지명은 하천 부근의 아총과 연관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다. 하천 부근에서 밭을 일구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지금의 동홍교 위, 아래쪽 부근에 많은 애기무덤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신로(일호광장에서 동홍동으로 이어지는 길)는 예전에 구덕을 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왕래하던 작은 길로서 ‘애린내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앙동에는 일제강점기에 닦은 비행기 활주로가 남북으로 길게 있었다. 남쪽으로는 294-28번지 선까지 활주로가 이어졌으며, 서귀면 시절에는 이곳의 활주로를 이용해 달리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43사건 당시에는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

해 성담을 높게 쌓기도 했다. 성담의 흔적은 상가와 도로가 확장되면서 사라지고 지금은 시가지의 중심을 이루며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9. 도순천

하원동(河源洞)

하원동은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중문관광단지에서 동쪽으로 약 3.5km에 위치해 있으며, 우람한 영실기암과 존자암, 무오(1918) 항일항쟁의 발원지인 법정사와 고려 후기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법화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마을의 설촌연대는 법화사(法華寺)의 건립과 비슷한 시기로 보인다. 이 사지의 발굴로 그 설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문헌기록을 토대로 볼 때 아마 원(元)의 제주 통치 시기인 1273년(원종 14년) 이후이며, 법화사가 알려진 시기는 원의 탐라총관부가 제주에 설립된 충렬왕 원년(1275년) 이후로 여겨진다. 이 무렵 마을 상류인 영실(靈室)의 불래악(佛來岳)에도 절이 있었고, 법정에도 사찰이 있었다.

구전에 의하면 불래악 사찰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상원(上院)이라 했으며 법정각 사찰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중원(中院), 그리고 법화사 일대를 하원(下院)이라 했는데, 지금의 마을 이름 하원(河源)도 하원(下院)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하원(下院)이라는 마을 이름은 1850년(경술년)까지 불리다가 마을 주위에 법화수(法華水), 원두수(源頭水), 통물, 큰이물, 개상골 등 샘이 많다고 해서 하원(河源)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마을 주변에 오래전부터 ‘허가(許哥)동산’, ‘여가(呂哥)밭’, ‘황가(黃哥)밭’, ‘문가(文哥)우영’ 등 성씨와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여러 성씨들이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조 중엽인 1645년(인조 23년)에는 안씨와 강씨가 이 마을로 와서 정착했다 하며, 안씨는 당시 속칭 ‘여개빌래’ 서쪽에 자리를 잡았었다고 전한다.

마을 설촌의 연원이 되었던 법화사는 설립 후 여러 가지 곤경과 변화를 겪는다. 발굴 과정에 이 절의 대응전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한꺼번에 헐렸을 것으로 밝혀졌

는데 1702년(숙종 28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당오백 절오백을 부술 때 이 절도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1928년 고승 안봉려관이 이 자리에 소규모의 절을 세웠으나 1948년 4.3으로 다시 없어지고, 1950년에는 모슬포 소재 제1훈련소의 제3숙영지로 징발되어 주위 일대가 훈련장으로 쓰인 적도 있었다. 1955년 이 자리에 다시 사찰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법화사 대웅전은 복원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곳이 되었다.

또한 하원동에는 무오법정항일항쟁의 발원지인 법정사가 있다. 1100도로를 따라 탐라대학을 지나 제주시 방향으로 1km를 가다 보면 하원목장을 지나 ‘너른넷’을 넘어 대천변에 법정사 터가 나온다.

무오법정항일항쟁은 서기 1918년 10월 5일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고 국권을 침탈(侵奪)하여 수탈과 착취를 일삼았던 데 맞섰던 선각 불자들의 항일항쟁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 잘못 왜곡 보도되었던 내용이 밝혀져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항쟁은 지금까지 보천교(普天敎)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무오법정항일항쟁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수형인 명부가 발견됨에 따라 그 진상이 밝혀져 제주도의 항일운동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무오법정항일항쟁의 과정을 보면, 1918년 10월 5일 새벽 4시, 스님 16명을 비롯한 법정사 인근 주민 400여 명이 중문주재소를 공격하여 단시간에 불사르고, 주재소장 요시하라 및 경찰, 일본인 상인 3명을 납치한 후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경찰 3명이 포박당했고 스님 1명이 일경의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 격분한 주민들이 일본경찰을 죽이려 하였으나 불교의 자비정신과 주민 등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스님들이 만류했다. 그러나 성난 봉기 행렬은 서귀포 지서로 향했다. 일부는 주재소에서 탈취한 무기로 무장까지 하였다. 비상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마경찰대와 지금의 스포루 입구에서 격돌한다. 좋은 무기와 훈련된 일경에 맞대결할 수가 없어 현장에서 김연일 스님 등 다수가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피하여 거사는 끝이 나고 만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법정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성역화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일어섰던 선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의 무궁한 발전의 토대로 삼아 길이 빛내야 할 것이다.

4·3 당시 하원동은 도피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도 하나둘 끌려가 희생된 수가 많으며, 무장대 습격으로 희생된 수를 합해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태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될 무렵인 1949년 12월 29일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해 보초 서던 주민을 살해하고 식량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1950년 7월 25일 습격에는 99채의 가옥이 불탔다고 한다.

도순동(道順洞)

도순동은 서귀포시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에는 하원마을이, 서남쪽에는 월평마을이 있다. 동쪽으로는 영남마을에서 발원하여 강정마을에 이르러 바다로 흘러드는 도순천이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북쪽으로는 2km 지점에 광활한 목장이 있다.

도순동은 1402년(태종 2년)에 이천(利川) 서(徐)씨와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416년(태종 16년) 제주도 삼현 통치 시기에는 대정현에 속하는 석송리였다. 마을 이름을 도순리라 한 것은 옛날 이곳에 한 힘장수가 살고 있었는데 누구나 이 마을을 쉽게 통과시켜 주지를 앓아 지나는 사람마다 큰 돌을 들고서야 비로소 지나가게끔 했다는 데서 ‘돌송이’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 표기로 도순리로 호칭되었다 한다.

이후 1896년 군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좌면 돌송리(遁宋里, 일설에는 독송리(獨宋里))라고 이름을 바꿔 불리오던 중 일제강점기에 들어 현재의 도순리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 서쪽에는 속칭 ‘쇠테왁’이 있는데 옛날의 우마 방목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며 얼마 전까지도 여기서는 묵은 기왓장들이 나왔다.

도순마을에는 원나라가 제주를 통치하던 시기인 1273년경(원종 14년) 한라산 서남쪽 불래오름에 절이 있었고 법정이에도 절이 있었던 시절에 여승 한 분이 불래오름 절에 계시다가 겨울이면 도순마을로 내려와 불공도 해주고, 설법도 하며 포교활동을 하였다. 이런 생활이 오래되어 스님은 타계하셨지만 그분의 유덕을 잊지 못하여 제단을 모시니 그곳이 지금의 할망당, 본향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도순동에는 무과급제를 위해 훈련하던 사장박이 있다. 현재 도순초등학교 터는 200여 년 전 사장터로 동서 길이 100m인데 서쪽 끝에 솔대를 세워놓고 화살을 쏘아 맞췄다. 장씨 집안과 이씨 집안에서 급제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43 당시 180여 호로 작은 마을이었던 도순동은 입산자가 한 명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피해 볼 수 없다며 그 사람을 잡아 경찰에 넘겨버렸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을 것이라 여겼던 주민들을 외면하고 토벌대들은 몇 사람씩 자꾸 잡아갔다. 잡혀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43으로 인해 80여 명이 희생되었다.

강정동(江汀洞)

강정동은 동쪽으로 법환과 서호, 서쪽으로는 월평과 도순마을과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43으로 인해 폐허된 영남동이 위치해 있다. 강정천은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과 은어떼로 유명한 여름철 피서지이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 강정천 덕분에 제주에서는 드물게 논농사를 짓던 마을이었다. 논농사로 수확된 쌀은 임금에게 진상되었고, “강정 아기는 곤밥(쌀밥)을 주면 울어도 조밥을 주면 아니 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이 흔했던 마을이었다.

강정마을에는 세종 21년에 ‘동해방호소’가 설치되었다. 이 동해방호소에는 마보병 군인이 56명 있었다. 이런 군사 방어시설인 동해방호소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선조 10년(1577)에 고둔(羔屯)은 고득종의 옛집이었는데 차

후에는 고둔과원으로 변모했다. 1709년의 고지도상에 새수촌과 고둔촌, 강정촌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촌이 강정마을로 발전 및 형성되어 갔음을 지리지와 호구단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광수포(廣水浦, 塞浦)’는 강정동, 속칭 ‘너븐물(넓은물-廣水)’로 불린, 썩은섬 안쪽 포구이다. 《탐라지》에 대정현(大靜縣) 동 57리에 색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할 때, 이곳은 옛날 색포로 불린 것을 알 수 있다. 이 색포는 옛날 수전소(水戰所)로 이용되었으나 《탐라지》가 간행될 당시(1653년)에는 폐지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광수포’ 인근 윗동네에 연대(煙臺) 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외적을 방어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지금도 군성(軍城, 군사왜)의 자취가 남아 있다.

강정마을을 평망동산의 서쪽 바위에서 조그맣게 솟아나고 있는 샘을 ‘할망물’이라 한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토신제를 지내거나 정성을 드릴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이 물을 성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43 당시 강정동은 해안 마을인데도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강정마을에서의 집단 학살은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11월 16일 당동산 학살은 강정동에 처음으로 피바람을 몰고 왔다. 토벌대는 중문지서 축성 작업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명을 학살했다. 이어 11월 21일 서울밭이라 불리는 곳에서 명부를 보며 사람들을 불러내 무려 32명을 집단학살했다. 12월 17일에는 제주도 전역에 도피자 가족 학살 명령이 내려진 듯 거의 동시에 각 마을마다 도피자 가족들이 학살되었다. 강정동에서도 12명의 도피자 가족이 한꺼번에 희생되었다. 한편 무장대는 논농사로 식량이 넉넉했던 강정동을 자주 습격하여 식량을 탈취해 가양쪽으로 피해가 컸다.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초까지 강정리는 1구인 현 강정동과 2구인 현 용흥동을 포함한 마을이었는데, 당시 2구는 속칭 ‘내팻’인 천외동, 염돈, 월산동(종북이왓), 기목동(틀남밭), 궁산동(활오름), 엉커리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10. 중문천

중문동(中文洞)

중문동은 서귀포시 서부 중심지역이다. 동쪽으로 대포동과 회수동이 하천과 길을 따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 천제연 냇줄기를 경계로 색달동과 접해 있다. 중문이라는 이름은 대정군 고지의 건치연혁에 의하면 조선왕조 태종 16년 병신년(1416년)에 중문(中文), 동중문(東中文), 웃중문(上文里)으로 분리되어 기록되고 있다.

중문과 동중문의 지역은 확실히 구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제연 냇줄기를 따라 천제연 웃소 부근, 백구 부근, 상여케물 부근인 앞거리, 두어물을 가까이 한 먼내모슬에 살았다.

고려 말에 원(院) 제도가 생기면서 중문원이 천제연 웃소 동편에 생기면서 중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 당시 제주에는 제중원(濟衆院), 이왕원(利往院), 중문원(仲文院) 등이 있었다. ‘원’ 제도는 지방에 출장 나간 관리를 위해 마련한 숙소가 있는 곳을 말한다.

1935년 제주도 내 일부 면의 명칭이 소재지의 리(理)명을 중심으로 바뀌는데, 중면(中面)은 안덕면, 좌면(左面)은 중문면으로 바뀌어 해방될 때까지 존속된다. 1946년 8월 1일부터 제주도는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 도(道)로 승격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신설되었다. 이때부터 완전한 중문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웃중문리(上文理)는 대정군 고지(태종 16년, 병신년 1416년)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화전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삶을 이어갔다. 화전(火田)은 원시적 농경법의 하나로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녹하지 뒤쪽 움텅밭 일부와 첫단동산의 일부가 화전이였다. 그중에서 첫단동산(사단동)이 규모가 가장 크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4.3사건 전까지만 해도 산간 쪽에는 수십 가호가 군데군데 모여서 생활하였는데 이 지역을 통틀어 상문리라 불렀다. 첫단동산(사단동)은 상문리의 중심으로 인근에는 냇줄기가 뻗어 있고 그 속에는 많은 물이 고여 있어 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상문동은 4.3사건 때 소개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가까운 마을이나 친척을 찾아 흩어지면서 끝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 살았던 후손들의 일부가 중문동에 살고 있다.

불목당(불목당, 굴목당)은 중문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으로 ‘일렛당’이다. 작은 언덕에 수목이 울창하고 작은 바위가 있다. 1940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굴목이낭’(느티나무)이 있었는데 미신 타파 바람이 거세게 불 때 광신도들에 의해 베어졌다. ‘매인심방’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굴목당이 불목당으로 되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만지샘은 서쪽을 향해 샘이 솟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일이 없고, 겨울에 이곳에 오면 바람막이가 좋아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제사, 토신제, 조왕제 등을 지낼 때에는 이 물을 길어다 떡을 빚고 메를 지었다고 한다.

중문동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면사무소와 지서가 위치해 있었고, 4.3 때는 토벌대들이 많이 주둔했다. 중문동에는 4.3 당시 끌려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곳이 많았다. 대표적인 장소가 일제강점기 신사(神祠) 터로 현재 중문천주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녹하지 경찰주둔소는 흔적이 잘 남아 있으나 레이크힐스 골프장 내에 들어 있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11. 창고천

봉성리(鳳城里)

400여 가구에 1,3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봉성리는 구물동, 신명동, 중화동, 서성동, 동개동, 화전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봉성리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서 애월읍에서 가장 많은 아홉 개의 오름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 새별오름은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로 유명한 곳이다.

봉성리 지명 유래는 속칭 ‘도노미’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도노미라는 지역은 ‘어음비도내산리’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자로는 고려 희종 7년(1211) 당시에 도내산리로 표기되었다. 그 후 고려 공민왕 원년(1352)까지 140여 년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는 도내산리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895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에 어도리로 표기되어 있고, 고종 32년(1895)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시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불러왔다. 현재 불리는 봉성리는 43사건 이후 불안한 사회환경에서 리민의 안녕과 화합은 물론 침체 일로에 있는 마을의 면모를 새롭게 혁신발전시키기 위하여 1953년 3월 마을 총회에서 리명을 개명하기로 결의하고,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서 어도리에서 봉성리로 개명한 것이다. 봉성리는 도노미오름이 봉황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43 당시 봉성리는 어도 1구·2구로 불리고 있었다. 43 당시 약 400호 규모의 큰 마을로 중화동, 동개동, 서성동, 구물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구는 1948년 11월 제주도의 모든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소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마을이었다. 어도리가 전략적 요충지여서 소개를 피할 수 있었다 하는데, 그 후 주민들은 마을을 두른 성담을 쌓고 살았다. 반면 어도 2구인 열류왓, 자리왓, 지름기, 고

도리왓, 몰팓, 상수모를, 화전동 등의 7개 자연마을은 1948년 11월 23일~25일 3일간 소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초토화작전이 전개되면서 폐허로 변했다. 주민들은 1구로 70% 이상이 소개하고 나머지는 연고자를 찾아 귀덕 등 해변마을로 흩어졌다. 1950년도 어도 2구가 1구에 합병되면서 2구 주민들이 1리에 신설된 신명동에 거주하게 되었다. 어도 2구의 일곱 개 자연마을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채 옛 마을 터만 남아 있다.

광평리(廣坪里)

광평리는 안덕면의 중산간 마을 중에서도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60여 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다.

광평리는 조선 시대에 목장과 화전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해 있다가 분리되었다. 마을의 설촌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현재의 마을 동쪽 ‘조가위’에 조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한다. 그 후 ‘마통어귀’, ‘감나물’, ‘모살목’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70여 세대를 이루었는데, 1948년 4.3사건으로 완전 폐동되었다가 1963년 재건정책에 따라 다시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3사건으로 잃어버린 마을인 조가동은 광평리 마을 동북쪽 500m 일대로 ‘좌가위’, ‘조가궤’라고도 부르며, 약 40세대가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집터만 남아 있다.

광평리 마을 서쪽 일대에 있던 마통동은 진상마 수용소가 있던 자리로 모살목에서 말을 몰아 마통(말 올타리)에 넣었다고 하여 그 지명이 유래되었다. 지금은 흔적만 조금 남아 있고 20여 세대가 살았었다고 전한다. 또한 광평리 마을 위쪽에 호명목장 입구 쪽으로 50여 세대가 거주했던 ‘모살목’의 지명은 마통동으로 말을 몰아 넣기 위해 길목을 지켰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지금은 목장지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평리에는 곳곳에 조그만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었는데 4.3사건을 거치면서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광평리는 4.3사건으로 40여 명이 희생되었는데 대

부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다. 소개령으로 마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돌아오지 않아 광평리의 옛 모습은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광평리의 ‘행기소’와 ‘담단물’은 마을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행기소’는 광평리 마을 동쪽 냇가인데 하천 가운데 70㎡ 정도 되는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행기(甕그릇)를 건지려다 주인이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기소’는 지금도 비상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담단물’은 뱃남동네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던 물이며, ‘고냉이수’는 아무리 가물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로 광평리 주민들이 비상 식수로 이용했던 물이다. 광평리 마을 동쪽 일대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이라 하며 ‘뱃남동네’라 한 마을은 20여 세대가 거주하다가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다.

배염내(巴川)는 상천리와 경계지점이며, 내(川) 모양이 뱀처럼 꼬불꼬불하다 하여 ‘배염내’라 부른다. 창고천과 연결된 상류지점이며 장마철에는 가끔 내가 범람하기도 한다.

상예동(上猓洞)

상예동은 안덕면과 서귀포 시가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 상예1리는 성산동, 수전동, 본동이 일주도로 남쪽의 하례리와 인접해 있고, 상예2리는 북쪽 더데오름 주변의 존자벵디(존좌동), 덧남밭(가가동) 등 여러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상예동은 하례동을 포함하여 옛 이름은 ‘연뢰’ 또는 ‘연리’이다. ‘연뢰’의 변음 ‘연리’의 현실음은 ‘열리’이다. 한자 표기는 예래(猓來)[~현(縣)~촌(村)], 연래(延來) 등으로 나타난다.

상예 마을에 있는 상예동 바위그늘집자리(속칭 ‘블래낭소’)와 상예동 고인돌 등은 2,000년 전의 선사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지인 상예동 적석시 설물(積石施設物)이 있다. 고려 목종 10년(1005)에 굴메[상서로운 산(瑞山)]의 용출이

있었고, 숙종 10년(1105)부터 충렬왕 26년(1300)까지 열리[延來猓來]라 불려 왔다.

충렬왕 26년(1300)부터 조선 태종 16년(1416)까지는 예래현(猓來縣)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태종 16년(1416)부터 영조 21년(1745)까지 예래촌(猓來村)·예래리(猓來里)라 마을 이름을 불려 왔다. 영조 21년(1745)부터 예래리(猓來里)가 분리되어 상·하예래리(上下猓來里)로 불리던 것이 고종 7년(1860)까지 이어졌다. 고종 7년(1860)부터 1981년 7월 1일까지는 상·하예래리(上下猓來里)가 상·하례리(上下猓里)로 바뀌었으며,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상·하례동(上下猓洞)으로 부르고 있다.

상례2리 존좌동(尊坐洞)은 <탐라지도>와 <해동지도>에 ‘존자평(尊者坪)’ 또는 ‘존쫓뱅디’로 표기된 곳이다. 이 일대의 지대가 평평하고 돌담조차 없다 하여 ‘병디’라고 이름 지었는데, ‘병디’는 넓은 벌판을 의미한다.

1899년도에 발간된 《대정현지》(규장각 소장본) <도로편>에 보면 “대정현 관문에서 동쪽 정의현 경계까지 큰 도로가 뚫려 있는데, 나수, 존자평, 천지담, 고둔을 지나 병참까지 이르며 57리가 된다.”라고 수록되어 있다.

존좌동은 1979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상예2동의 중심동으로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청·부녀회관, 정보화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가가동은 거북이 형상의 오름이 덧붙여 있다 하여 ‘더할 가(加)’를 써서 ‘더더오름’이라 하는 오름 앞에 위치해 있으며, ‘뒷가름못’을 중심으로 150여 호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4·3사건으로 전부 흩어져 살다가 취락구조마을로 조성되었다. 행정구역상 상예2동에 속해 있고, 예래 3통 3반이며, 북쪽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었다. 본동과의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며, 15가구 내외가 사이좋게 모여 살고 있다.

우보동은 우보악(牛步岳)오름 남쪽에 1978년에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형성되었다. 북쪽에 서귀포 호텔과 대유랜드가 있고, 행정구역상 예래 3통 4반이며,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자연마을이다.

화순리(和順里)

안덕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화순리는 안덕면의 중심마을이다. 화순리의 지명은 과거 산방촌 → 동수리와 범천 → 범질천 → 번내 → 와순리 등으로 바뀌어왔다. 신라 유리왕 시대 양씨가 설촌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일(동) 강정, 이(동) 도원, 3(동) 번내’라는 말처럼 비옥한 마을로 알려졌다. ‘산방촌’ 이후 300여 년 전에 화순리 ‘퍼물’에 다시 양씨의 선조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함박이물’에 성씨, ‘곤물’에 박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씨, 강씨, 고씨, 이씨, 김씨 등이 들어와 마을이 번영하게 되었다.

김광중 개척기념비는 화순리 황개천(속칭 도채비빌레)에 세워진 것으로, 김광중이 관개농업을 위해 사재를 털어 수리 시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38년 5월 화순리 담회에서 건립했다. 비문에 의하면 순조 32년에 착수하여 10년 만인 현종 7년에 완공하였다 하며, 수로 길이는 안덕계곡에서부터 1,100m라고 기록되어 있다.

43 당시 화순리에는 안덕면에서 유일하게 안덕지서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한때는 이 지서를 중심으로 철도경찰과 서북청년회가 주둔하기도 했다. 또한 초토화시기인 1948년 11월께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특공대원 100여 명이 안덕초등학교에서 합숙하기도 해서 화순리는 안덕면 토벌대의 근거지였다. 그런 이유로 지서 주변 등 화순마을 곳곳은 화순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중산간마을에서 소개 온 민간인들의 희생터가 되었다.

화순리에서는 1948년 11월 5일 무장대의 화순리 2차 습격 후 지서를 두르는 성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중산간마을에 소개령이 내려진 11월 중순 이후에는 화순리 마을을 두르는 성도 쌓았다. 현재 이 성들의 흔적은 안덕지서 옛터에 일부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면사무소 건물은 1948년 5월 24일 무장대의 제1차 화순리 습격 당시 전소되었다. 한편 면사무소가 전소되면서 호적부가 불에 타 없어지자면 직원 몇 명은 호적등본을 필사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파견됐다. 그런데 1949

년 1월 24일 호적필사 업무를 완료하고 화순리로 돌아오던 면직원 양운섭이 애월읍 고내리 자운당에서 무장대의 습격으로 피살되는 일도 있었다. 안덕면사무소는 원래 서광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35년 경제 중심권이 중산간마을에서 해안마을로 옮겨지면서 감산리로 이설되었다가, 1938년 화순항이 개발되면서 다시 화순리로 이설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산리(柑山里)

감산리는 동쪽으로 창천리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 화순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해 있다. 감산리 안덕계곡은 환경과 자연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며, 여름철 피서지로도 유명하다.

감산리(柑山里)는 고려조 목종 10년(서기 1007년)에 화산 폭발로 ‘군산’과 ‘월랑봉’이 융기하여 솟아나면서 ‘안덕계곡’과 ‘창고내’가 형성되었다고 전해지는 마을이다. 고려 때부터 집집마다 감굴이 재배되었던 데서 ‘감산리’라 불리었다 전한다.

감산리에 고려 말기부터 수많은 유배객들이 적거되거나 위리안치되는 일이 빈번하여 이들에 의해 마을에 학문이 전수되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다.

감산리의 설촌은 1580년(선조 18) 고씨의 선조가 ‘목은터’에 정착하면서부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무렵 ‘통물동네’에는 유씨도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한때 세력 다툼을 벌여 고씨의 감산과 유씨의 통천 두 마을로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30년대에 이 마을 ‘장기터’에 귀양살이하던 서제 임선생의 유허비도 남아 있어 이 무렵에 촌락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제 선생은 조선 숙종과 영조조의 인물로 27세 때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제주도에 귀양 온 후 지역민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분이다. 서제 선생의 5대 손인 현대라는 분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비를 설립하였다 한다. 이 비문에 의하면, 감산리는 100년 이내 감굴나무가 무성할 것이라는 대목이 기재되어 있다.

43 당시 감산리에는 유달리 무장대의 습격이 잦았다. 한 주민은 이를 ‘1차 습격, 2차 습격...’하며 5차까지 분류했다. 따라서 무장대에 의한 주민 희생도 컸다. 무장대 습격으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마을의 귀중한 자료들도 없어졌다. 향사가 불타면 서 마을의 내력을 보관했던 ‘지동궐’이 소실되어 자료들도 불타 없어졌다. 무장대의 습격 뒤엔 토벌대들이 반드시 보복학살로 맞대응을 했다. 감산리 주민들은 무장대의 습격이 잦았던 원인을 마을이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장대의 길목은 곧 토벌대의 길목이기도 했다. 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200명분 아침 식사를 마련하라.”라고 요구하면 토벌 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감산리는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당한 지역이었다.

감산리 안덕계곡 다리 아래 지역 일대는 동안골과 서안골로 나뉘며 안으로 움푹 들어갔다 하여 ‘안골’이라 불린다. 인근 주위는 답지대로 물이 풍부하여 벼를 많이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감귤과수원과 전작으로 전환되었다. 도고샘의 울창한 상록수와 풍부한 물은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안덕계곡은 일명 창천계곡이라고도 하며, 월라봉의 북쪽 기슭에서 서쪽 기슭을 싸고돌아 남서쪽 기슭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창고천 하류의 계곡지대를 말한다. 이 지역에는 조면암의 기암절벽과 상록수림이 우거져 있다.

이 계곡은 고려 목종 10년,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고 구름과 안개가 낀 지 이레 만에 군산과 같이 솟았다고 전해지며, 시냇물이 암벽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치안치덕한 곳이라 하여 안덕계곡이라 불리고 있다. 난대수림의 고목으로 울창하게 덮여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창천리(倉川里)

창천리는 안덕면 동쪽 끝 마을로 창고내를 사이에 두고 서귀포시 상예동과 이웃해 있다. 서귀포~제주시 간 평화로와 일주도로변을 따라 취락이 구성되어 있고, 서귀포시 예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예부터 ‘창고천’ 또는 ‘창고내’라 불리는 내가 있고, 앞에 위치한 군산은 명산의 기품을 지니고 있다.

당초 창천리는 ‘포시남마루’라 하여 10여 가호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조선조 현종 15년(서기 1674년)에 대정현 상모리 강진의 장남 강위빙이 설촌한 마을로 내에 창고처럼 생긴 암굴이 있다 하여 ‘창고천리’로 불리게 되었으며, 1914년 일제강점기에 토지세부측량이 실시되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창천리’로 바뀌 부르게 오늘에 이른다. 강위빙이 맨 처음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 160번지 일대라고 한다.

창천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 있었다. 1리는 현재의 창천리를, 2리는 해안마을인 대평리(속칭 ‘난드르’)를 말한다. 대평리는 1946년 이후 창천리에서 완전 분리되었다.

창고내를 따라 하류에 이르면 원시주거 형태의 하나인 바위그늘집터가 여러 군데 산재하여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바위그늘집이란 선사 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제주지역어로 ‘엉’ 또는 ‘엉덕’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창천리 서쪽 하천 500m 지점엔 ‘가마소’라는 물이 있는데, 물통 남쪽 부근에 가마 모양의 큰 돌이 있어 가마소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여름철에는 동네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통나무를 깎아 통을 만들어 물을 받고, 그 물을 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다 하여 ‘통물동네’가 되었다.

또한 창천리 바로 남쪽에는 군산이 버티고 서 있다. 고려 목종 10년 탐라 해중에 일산이 용출하면서 7일 만에 산이 솟아났다는 전설이 있다. 서산으로 불리다가 산모양이 군막과 같다고 하여 군산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창천리는 장진봉(張珍奉, 1948년 당시 37세)과 강문규가 나고 자란 곳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1931년, 창천·감

산·상창리를 중심으로 ‘부정호세불납동맹(不正戶稅不納同盟)’을 조직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다 일제 경찰에게 검속되었다. 일제시대 벌어진 가장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항일 독립운동의 하나였다.

강문규는 해방 전 병사했고, 장진봉은 해방 후 마을의 인민위원회를 주도하다가 1947년 ‘3·1사건’에 연루돼 체형 8월형을 받는다. 장진봉은 석방된 후 4·3 발발 직전에 신변에 위험을 느껴 도피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장진봉 가족들을 도피자 가족으로 몰아 학살했다.

대평리(大平里)

대평리는 안덕면 동남쪽 끝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는 서귀포시 상예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월라봉 건너 화순리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일주도로변에 위치한 감산리와 약 3km 떨어진 해안변에 위치해 있다. ‘난드르’라 불리는 안덕면의 해변마을 대평리는 한때 창천리 2구였던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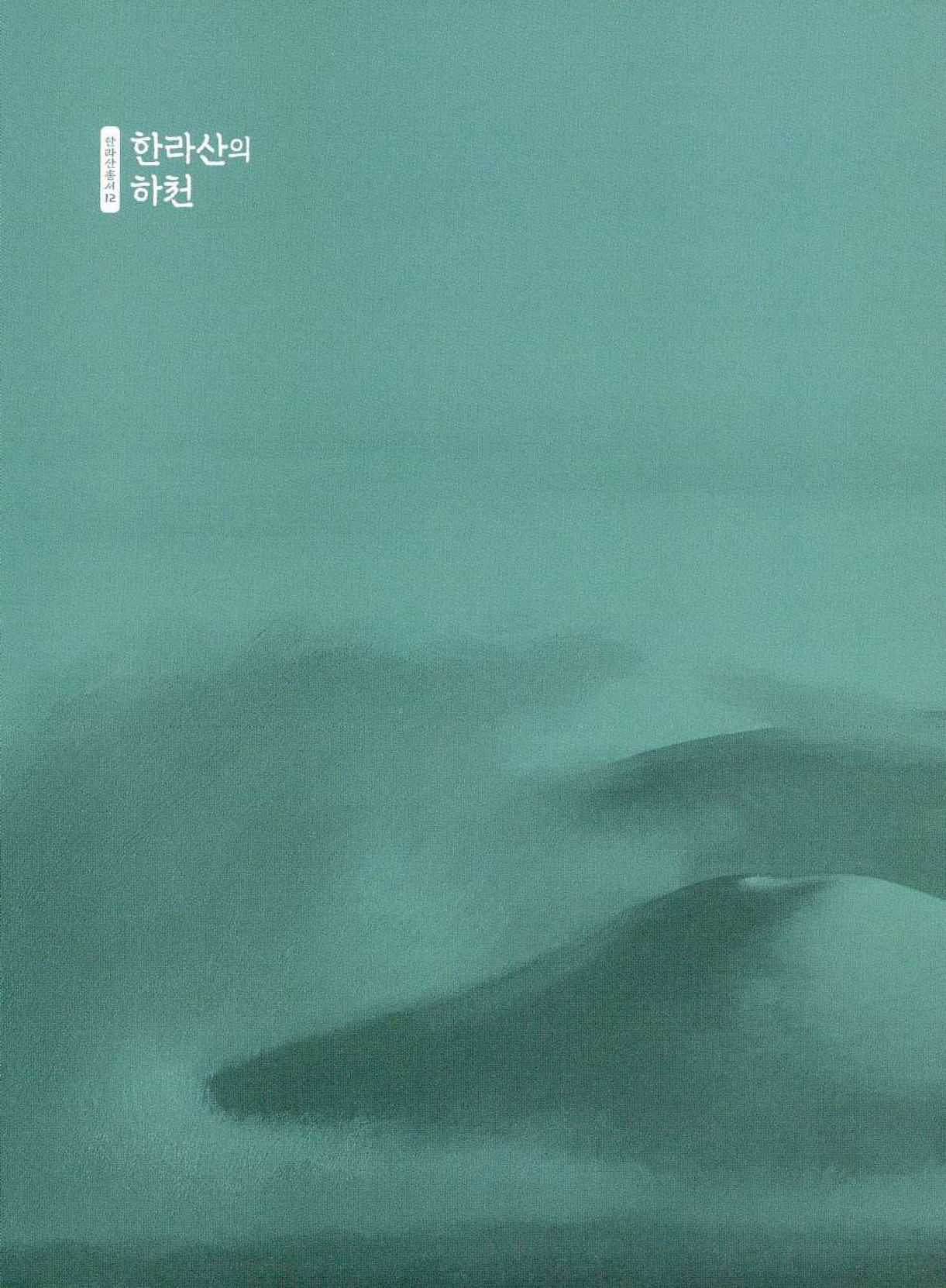
‘열리’ 또는 ‘예래리’가 속했던 대평리의 설촌은 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양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 후 150여 년 전에는 창천 2구에 속했으나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대평리가 되었다. 이 이름은 과거의 옛 이름 ‘난드르’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양씨에 이어 김씨, 강씨, 장씨 등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선사시대 유물로 고인돌 2기가 발굴된 바 있다. 대평리 966-1번지 소재 지석묘는 제주도 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었다. 이 지석묘에서는 기원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적갈색토기 파편 몇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참고 문헌

- 강정효,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한라산》, 돌베개, 2003.
-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도서출판 각, 2005.
- 월평동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다라곶, 月平洞誌》, 2001.
- 제주시·제주문화원, 《濟州市 옛地名》, 1996.
-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2004.
-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1997.
- 유적지초석세우기추진위원회, 《잊혀져가는 문화유적·제주시편》, 한라일보사, 2002.
- 제주시, 《濟州市五十年史》, 2005.
- 화북동사무소, 《더불어 사는 화북》, 2004.
- 북제주군, 《北濟州郡誌》, 200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1999.
-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 남제주군, 《우리 고유지명유래집》, 1995.
- 화순리, 《화순리지》, 2001.
- 한라일보사, 《한라산 학술 대탐사 - 제주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② 효돈천》, 나라출판, 2001.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유적 I》, 도서출판 각, 2003.
- 제주도·제주 4·3연구소, 《제주 4·3유적 II》, 도서출판 각, 2004.
- 제주도·(사)제주민예총,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 제주도 홈페이지(제주의 마을 ; <http://www.jeu.go.kr/jejuvill.net>).

한라산
하천
12

한라산의 하천



제 4 장

하천 유역의 문화유적



여 백

제주도에는 모두 60개의 하천이 있다. 육지부와 같은 강은 없고 모두가 지방2급 하천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26개, 서귀포시에 34개의 하천이 분포해 있다. 그중 해발 1,000m 이상에서 발원하는 대형 하천은 20개에 지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관리구역은 해안에서 해발 600m 지대까지로 그 이상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 해당하는 남·북부지역에 하천이 비교적 많은 데 비해, 면적이 더 넓은 동·서부지역의 하천 수가 오히려 적다. 이는 한라산 동·서부지역에 오름이 집중분포해 있는 지형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즉, 한라산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의 흐름이 오름에 막히면서 저지대로 유로를 바꾸거나 해안까지 이르는 사이에 지하로 스며들어 하천 발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하천은 대부분 건천으로 제주시의 산지천과 외도천, 옹포천, 서귀포시의 효돈천, 강정천, 정방천, 연외천 등은 하류 지대에서 용출하나 그 구간은 매우 짧다. 한라산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대부분의 강우는 해안까지 거리가 짧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빠른 시간에 바다로 흘러간다. 또한 용암으로 이루어진 지질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의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 해안지대에서 용출한다. 한라산 남북 사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에서 형성된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의 발달은 이 지역의 중산간지대와 저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조면암질 용암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의 취락은 해안가의 용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고, 중산간지역의 취락은 용천수가 거의 없는 관계로 오랫동안 담수가 가능한 소(沼)가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하천 유역에 삶의 터전을 정한 선인들은 오랜 세월 하천과 더불어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역사와 문화를 일구어 왔다.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주변의 문화를 소개한다.

1. 산지천

제주시 중심부를 관류하는 산지천은 제주 역사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와 한라일보사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 공동으로 ‘제주시 문화유적지 표석 세우기 운동’을 벌였는데 그중 80~90%에 해당하는 70여 기가 산지천 반경 200~300m에 분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탐라가 개벽한 이래 제주시 1도·2도·3도동은 제주도의 수부(首府)가 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행정·사법·군사를 집행해 온 제주목관아가 있었고, 이는 산지천이 있어 가능했다. 산지천은 주민들이 충분히 마시고 쓸 만한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었고, 건천이 대부분인 도내에서 몇 안 되는 사철 물이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이다.



그림 4-1. 산지천변에 자리잡은 제주목관아 포정문과 관덕정(왼쪽 건물)

산지천에서 200~300m 서쪽으로 가면 관덕정(보물 제322호)이 나타나고, 바로 곁에는 전통기와집이 여러 채 눈에 들어온다. 바로 복원된 제주목관이다. 제주시는 지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목관아지에 대한 발굴 조사작업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사적 제380호로 지정된 1만 9,500㎡의 부지에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제주시는 목관아 중 중요한 건물인 홍화각을 비롯해 연희각, 영주협당, 우연당, 굴림당 등 건물 5채와 포정문 복원사업을 마무리했다. 당초 제주시는 이곳을 헐어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제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차장건립계획을 취소하고, 발굴과 고증을 거쳐 목관아복원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목관아에 대한 복원사업은 제주시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제주성은 산지천(가락천)을 밖에 두고 쌓아졌다. 그러나 왜적의 침입과 같은 유사시 생명수를 성 밖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명종 21년(1566년) 괭홀 목사가 산지천을 성안에 두는 확장공사를 벌였다.

산지천은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는 제주섬의 관문이기도 했다. 산지천 하류인 금산 기슭에는 젊은 시절에 기생으로 살다 나이 든 뒤에는 거금을 쾌척,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 사회독지가인 의녀수반 김만덕의 객줏집이 있었다.

산지천변에 있는 동문시장 바로 남쪽에는 판서정(判書井)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중종 15년(1520년) 제주에 유배돼 산지천 동쪽 언덕에서 적거 생활을 했던 충암 김정(金淨)이 판다고 전해지는 우물이다. 충암은 유배 생활 중 《제주 풍토록》을 남겼고, 오현의 한 사람으로 후세에 추앙받고 있다.

산지천 동쪽 언덕에는 제주성의 동문이 있었다. 처음에는 문루를 제증루(濟衆樓)라고 했으나 뒤에 연상루(延祥樓)라고 고쳤다. 현종 7년(1666년), 순조 8년(1808년), 철종 7년(1856년) 등 여러 차례 중수 보존돼 왔으나 일제강점기 초인 1914년 헐리었다.

동문이 있었던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에는 공신정(拱辰亭)이 있었다. 처음에는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효종 3년(1652년) 산지천 북수구(北水口)에

세웠으나 그 뒤 홍수로 유실되자 순조 32년(1832년) 목사 이풍연(李豐延)이 이곳에 옮겨 세웠다. 그 뒤 여러 차례 중수 보존돼 왔으나 1928년 일제가 이곳에 제주신사를 건립하면서 헐고 말았다. 공신정은 높은 언덕에 있어 제주성안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인 ‘산포조어(山浦釣魚)’는 이 일대 산지포구에서 낚시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말한다.

산지천 하류에는 홍문이 있었다. 그 위로 행인들이 걸어서 양안을 오갈 수 있어 홍예교(虹霓橋)라 부르기도 했다. 홍문 위에는 죽서루(竹西樓)가 있었으나 홍수로 유실됨에 따라 목사 이원진이 동쪽 언덕으로 옮겨 지어 공신정이라 했다.

산지천 하류인 동문시장에서 남쪽으로 2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산지천의 남수문(南水門)이 있었다. 선조 32년(1599년)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이곳에 홍문(虹門)을



그림 4-2. 남수각 서쪽 언덕에 위치한 오현단

축조하고, 서남쪽 높은 언덕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웠다. 1927년 대홍수로 무너졌다.

남수구 바로 서쪽 언덕에는 오현단이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제주로 유배왔거나 방어사로 부임해 제주를 교화시키는 데 기여한 충암 김정과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을 기리는 비석 등이 남아 있다. 오현단이 있던 자리에는 굴원이 있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굴이 시인 묵객들의 시심(詩心)을 자극했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굴림추색(橘林秋色)’은 바로 산지천을 낀 성곽 일대에서 바라본 풍경인 것이다.

남수각에서 남쪽으로 약 200m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산지천을 끼고 있는 삼성혈(사적 제134호)이 있다. 고양부 삼신인이 용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 곳이다.

산지천 상류인 해발 440~480m 일대에는 일제가 구축해 놓은 대규모 진지동굴 8개소가 분포해 있다. 이들 인공동굴은 폭과 높이가 1.5~2m이고 주 통로의 길이는 150여m이며 미로형으로 구축돼 있다. 일제가 전쟁 말기 제주도 전역을 진지로 구축하기 위해 파 놓은 것이다.

2. 효돈천

산남지역 최대의 하천으로 서귀포시 동 지역과 남원읍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이다. 유역에는 9개 마을이 산재해 있다. 서귀포시 동 지역으로는 하효·신희·토평·서상·효·동상·효법·호천·웃법·호천·입석동이, 남원 지역으로는 하례마을이 들어서 있다.

효돈천 하류에는 여러 기의 지석묘와 바위그늘집자리(rock-shelter)가 발견되고 있다. 아치형의 바위그늘집자리는 선주민들의 대표적인 주거지였다. 예촌망 일대에서는 무문토기 파편과 석기유물이 상당량 수습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무문토기들은 애월읍 광지리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토기로서 기원후 철기 시대 또는 초기 탐라국 시대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원읍 하례1리 남쪽에 위치한 해발 68m의 예촌망에는 호촌봉수가 있다. 예촌망의 지형·지세가 마치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호촌봉수는 서귀진에 소속되어 북(동)쪽으로 자배봉수, 서쪽으로는 삼매양봉수와 응소했다.

하례2리에는 조선시대 마필을 점검하는 점마소가 있었다. 이곳에는 ‘고살리섬’이 있어 목자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목마 9소장 관리소인 직사(直舍)가 여기에 있었다. 관리들은 봄·가을 두 차례 말을 점검하였다. 세조 12년(1467년) 점마 과정에서 마땅한 숙소가 없어 불편을 느낀 목사 이유의(李由義)가 직사와 가까운 영천오름 기슭에 영천관을 지었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영천관은 점마를 위해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물론 양 지역을 오가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이용되었다.

영천관에서 불과 100~200m 떨어진 하류에는 한 기생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예기소(藝妓沼)’ 폭포가 있다. 해마다 목장의 말을 점검하기 위해 조정에서 관리들이 내려오면 정의현감은 목마점검이 끝난 뒤 주연을 베풀었다. 향연은 깊은 절벽과 폭포가 있는 경승지에서 베풀어졌는데 주연이 흥겨워지면 기생이 밧줄을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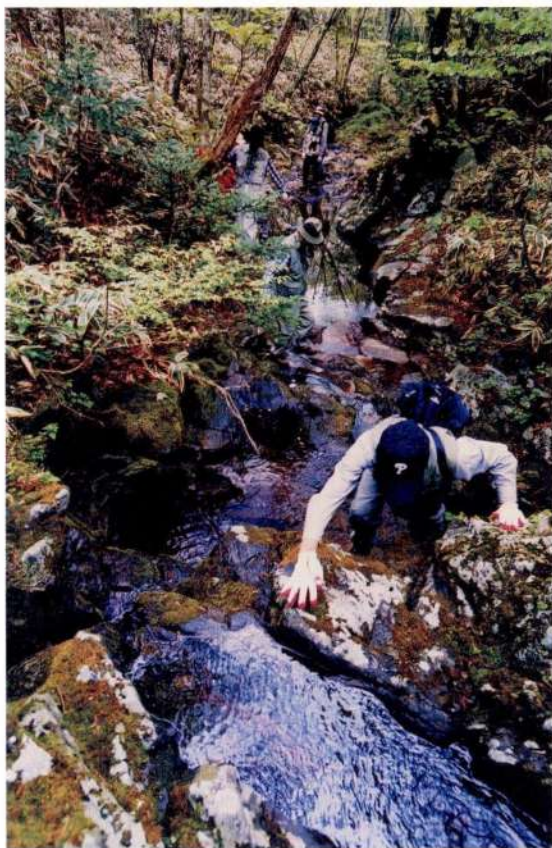


그림 4-3. 효돈천의 지류인 영천의 백록계곡

양쪽 절벽을 건너오는 묘기를 선보였다. 그런데 밧줄을 타고 검무를 추며 건너오던 기생이 발을 헛디더 계곡 아래로 추락하자 이때부터 관리들의 향연은 금지됐고, 사람들은 이 소(沼)에서 예기(藝妓)가 죽었다고 하여 ‘예기소’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영천관에서 하천 건너 맞은편에는 영천사가 있었다. 언제 폐찰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천사 입구인 효돈천에는 커다란 바위에 고승이 새겼다는 ‘관나암’이라는 마애명이 지금도 남아 있다.

하례2리 서쪽 해안가에는 ‘황개’라는 소금밭이 있다. 황개에는 편평한 암반층인 ‘빌레’가 넓게 퍼져 있어 띄엄띄엄 바닷물이 웅덩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축된 바닷물을 쓸어모을 수 있었다. 햇볕이 내리쬘거나 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황개의 빌레에 고인 바닷물을 떠다가 하루 5~6회 끼얹어 농축된 바닷물을 빗자루로 쓸어모은 후 항아리에 보관했다가 솥에 넣고 달여 소금을 만들었다고 한다.

효돈천은 도내에서는 드물게 전통적인 종이 제작이 이뤄졌던 자취가 남아 있는 하천이다. 이는 효돈천이 다른 하천과는 달리 사철 물이 흘러 종이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례리 지경인 ‘남내소’(沼) 부근에는 ‘한지(韓紙) 내썩’이라는 곳이 있다. 종이 제작이 이뤄졌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하효마을에 거주하는 현학상 노인에 따르면 “효돈천에는 예로부터 종이 제조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하효리는 돈내코 하류인 하효다리 아래쪽에서 주로 종이 만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토질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닳나무를 심어 여름철에 종이를 만들며 생계를 꾸리는 주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례1리 효돈천변과 맞닿은 걸서악에는 ‘소(沼)안팎 채석장’이 있다. 이곳은 20여 년 전만 해도 채석장으로 유명했는데, 묘비는 물론 ‘돛도고리’ 등 생활용구와 건축 석재를 산남지역에 공급했다. 도내에는 안덕면 등지에 채석장이 있었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암질이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인 데 비해 안덕면 산방산 지역과 이곳 걸서악 채석장 일대의 암석은 비교적 단단하고, 연회색의 치밀한 암석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석을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채석이 이뤄졌던 현장에는 지금도 비석을 만들기 위해 채석된 잔해가 곳곳에 남아 있다.

3. 천미천

천미천은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2개 시와 4개 읍·면, 7개 마을을 끼고 흐른다. 천미천은 제주시 아라동, 조천읍 교래리와 구좌읍 대천동,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2리를 거쳐 성산읍 신흥리와 표선면 하천리, 신천리로 이어진다.

교래리에는 천연기념물 제2,365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마르형 대형분화구인 산굼부리가 있다. 굼부리는 기생화산체인 분화구를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굼부리 크기는 바깥둘레 2,067m이며, 깊이는 대략 100~140m로서 분화구에는 희귀식물 420여 종이 자생하여 자생식물원을 형성하고 있다.

표선면 표선리에서 천미천을 따라 약 8.8km 떨어진 지점에 20세기 초까지 정의현청의 소재지였던 성읍민속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태종 16년(1416년) 지금의 성산읍 고성에 있던 현청 소재지가 한쪽에 치우치고 왜적의 침탈마저 심하다는 이유로 이곳으로 옮겨진 후 500년간 도읍지로 유지해 왔다. 1934년 면 소재지가 표선으로 옮겨진 뒤 지금은 표선면에 속하고 있다.

오랜 도읍지였던 관계로 유·무형의 술한 민속자료가 남아 있어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고, 1984년 6월 7일에는 국가지정민속자료 제188호인 '성읍민속마을'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 당시 보호구역은 319만 1,711㎡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여 1987년 9월에 7만 740㎡로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성읍리는 500년 동안의 현청 소재지에 걸맞게 많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거느리고 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로 1964년에 지정된 느티나무와 팽나무(천연기념물 제161호), 1979년 1월에 지정된 조일훈 가옥(중요민속자료 제68호), 고평오 가옥(중요민속자료 제69호), 이영숙 가옥(중요민속자료 제70호), 한봉일 가옥(중요민속자료 제71호), 고상은 가옥(중요민속자료 제72호) 등이 있다. 또 제주도지방문화재로는 1971년에 지정된



그림 4-4. 제주 최장의 하천인 천미천 변에는 조선조 500년 도읍지인 성읍민속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정의향교(유형문화재 제5호), 일관헌(유형문화재 제7호, 1975), 돌하르방 12기(민속자료 2-2호), 초가집 5채(민속자료 제82호, 제83호, 제86호, 1978년)가 있다.

국가지정 또는 제주도지정 문화재 외에도 정의현 성터, 남산망 봉수대, 연자마 등이 있으며 상당수의 고비석들이 있다. 이 밖에도 향청, 자청, 향사당, 호적고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 객사가 옛 성읍초등학교 터에서 복원되었다.

성읍리에서 천미천을 따라 위쪽으로 1~2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웬만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는다는 ‘정소암’이 나타난다. 이곳은 정의현이 설치된 후 조선 말까지 해마다 봄철이면 관리와 주민, 기생들이 한데 어울리며 화전놀이를 즐겼던 곳이다.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진달래꽃잎을 따서 메밀로 전을 부쳐 먹는 이 지역의 정소암 화전놀이는 1978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제주도 대표작으로 출품된 바 있다.

천미천 하류에 위치한 신평리는 왜구들의 노략으로 야기된 ‘천미포왜란’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다. 명종 7년(1552년) 왜구들이 여러 척의 왜선을 타고 천미천으로 들어와 화총과 예리한 무기를 들고 정의읍성까지 공략하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힘을 합쳐 왜구에 대항하는 한편 천미연대와 토산봉수를 통해 위급함을 관가에 알린다. 이윽고 본주(本州)에서 원군이 도착하여 신평리 부근에 진을 치고 민관이 협력하여 왜구를 공격하자 왜구들은 천미천에 들어가 숨어 버렸다. 이에 관민이 더욱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자 마침내 왜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났다. 천미천 하류에 남아 있는 ‘구진개(구진포; 寇進浦)’, ‘화공소’, ‘죽은디 머들’은 천미왜란 때 왜구들을 물리친 데서 유래하는 지명들이다.

이 마을에는 면암 최익현 선생과 관련된 ‘던데못’(도운대못 또는 도운대지(道韻臺池))이 있다. 고종 12년(1875년) 최익현 선생이 제주에서 유배가 풀려 돌아가기에 앞서 난산리 오의사(吳義士)의 정려를 참배하고 가시리 한천(고려 때 대제학을 지낸 유배인)의 유허를 참배하던 길에 신평리에 들렀다고 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면암의 유배 생활을 위로했다. 그 후 면암이 순국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추모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신평리 마을 안 고산동산에는 1973년 제주도지방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천미연대가 있다. 이 연대는 정의현 소속으로 동쪽으로 말등포연대, 서쪽으로 소마로연대와 별포연대에 응소하였다.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별장 6명, 직군 12명이 근무했으며, 여기에 종사하던 이들이 후에 신평리를 설촌하였다.

또한 신평리에는 다른 마장과는 다른 특이한 하목장이 있었다. 조선시대 조정에 진상하는 말을 임시로 먹이던 목장인데, 다른 목마장이 모두 중산간지대에 있었던 데 비해 이 마장은 해안가에 있었다. 고종 때 동암 오장헌의 효행과 덕행을 칭찬하여 왕이 두 번씩이나 이 목장을 하사했지만 그가 끝내 받지 않으므로 신평리에 사는 향리에게 내렸던 것을 지금은 마을공동목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신평마장’이라고도 한다.

4. 창고천

창고천의 하류는 안덕면과 중문동의 경계를 이루고, 상류지대는 애월읍과 안덕면의 경계를 이룬다. 안덕면 지역에서는 화순리, 대평리, 감산리, 창천리, 광평리가 들어서 있고, 애월읍 지역에서는 봉성리 화전마을, 서귀포시 동 지역으로는 중문동 상예마을이 인접해 있다. 모두 9개 마을이 창고천 유역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창고천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적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하천이다. 안덕계곡은 사철 물이 흐르는 제주의 몇 안 되는 하천으로, 이 물을 끌어 식·용수로 사용하려던 선인들의 도전과 개척정신이 묻어나는 곳이다.



그림 4-5. 서제 임관주 선생의 유허비



그림 4-6. 창고천 하류에 있는 주상절리대

안덕계곡 하류의 속칭 ‘도채비빌레’에 서면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펼쳐진 낮은 언덕을 볼 수 있다. 동쪽에는 덩불이 우거지고, 서쪽은 비닐하우스와 감귤과수원이 조성돼 있다. 지금은 흔적조차 보기 힘들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일대 6만여 평의 드넓은 땅은 논농사가 이뤄졌던 옥답이었다. 도채비빌레 위에 1938년 화순답회가 세운 ‘김광종(金光宗) 개척기념비’는 이곳에 논농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개하고 있다.

대정현 사람 김광종은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화순리 드넓은 땅 가까이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지형·지세 때문에 아까운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화순리 지경의 밭을 개답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주민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는 석수를 두어 바위와 암벽을 뚫으며 마침내 약 700m의 물길을 만든다. 그러나 막상 물을 흐르게 하자 물은 목적지에 가기 전 중간에서 새버리고 말았다. 가장 어려웠던 봇물공사가 마무리되자 주민들도 나서 공사를 벌인 지 10년 만에 메마른 땅 1만여 평이 기름진 논밭으로 변했다. 현종 7년(1841년) 9월에 준공을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의 일이다.

김광종이 개척한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알게 된다. 특히 지형에 관한 치밀한 조사와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인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약 10m의 깊이로 수백m의 암반을 뚫은 도수로는 제주인의 강인한 개척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창고천 하류지역인 바닷가에서 중문 관광단지의 하이얏트호텔 앞 해안가에 이르는 약 1km의 해안선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대이다. 약 30m 높이로 이루어진 이 주상절리대는 제주도 해안의 빼어난 경승을 자랑하는 곳으로 현재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주상절리대의 서쪽 ‘갯깍’이라는 암벽에는 해식동굴유적이 있는데 적갈색 무문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선인들이 살았던 일종의 바위그늘집자리인 것이다.

감산리 지경의 속칭 ‘닥남밭’ 인근 창고천 기슭에는 마애명이 남아 있다. 조선 영

조 때 시간원을 지낸 임관주(任觀周)가 유배 생활 중 남긴 것으로, 오언절구가 암벽에 음각돼 있다. 유배지였던 대정현 창천리에서 6개월 만에 해배(解配)된 후 처음으로 만주의 창고천을 찾은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始出口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曲立 短瀑晚楓境.”(처음으로 귀양살이 하던 집을 나서던 날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하천을 찾았네. 푸른 바위는 세 번 돌아 둘러 서 있고 높지 않은 폭포가에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네.)

5. 한천

한천은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최대의 하천이다. 한천 유역에는 용담12동, 오라동, 오등동이 소재해 있다. 제주시 중심을 흐르는 한천 유역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중요한 역사·문화유적이 널려 있다.

한천 하구인 용연은 영주12경의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으로 유명한 곳이다. 옛 선비들이 밤에 달빛을 타고 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용연은 사철 맑은 물이 용출하고, 계곡 주변은 나무들이 울창해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용연 양쪽은 7~8m 높이의 암벽이 둘러쳐 있다. 이 암벽에는 ‘선유담(仙遊潭)’, ‘취병담(翠屏潭)’과 같은 1600년대 중엽~1900년대 초에 새겨진 여러 마애명이 남아 있다. 이처럼 용연에는 제주 역사와 문화의 향취가 남아 있어 제주도는 이 일대 53,857㎡를 2001년 3월 7일 제주도지방기념물 57호로 지정했다.



그림 4-7. 한천 하류의 용연

한천 하류지역에는 제주도지방기념물 제40호인 용담동 선사무덤(1990. 5. 30. 지정)을 비롯해 제주도지방기념물 제1~6호로 지정(1971. 8. 26.)된 용담동지석묘 6기가 분포돼 있으며, 최근에는 용담동 일대에서 선사시대 마을유적터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 용연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는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1971. 8.)된 제주향교가 있다. 이 향교는 태종 1년(1392년) 제주시 교동에 창건됐으나 여러 차례 이진된 뒤 순조 27년(182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향교에는 과거 향시에 합격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연방록>과 본과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적은 <용방록>이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0·11호로 각각 지정(1991. 6. 4.)됐다.

한천 중류 오등동 지경에는 방선문(訪仙門)으로 널리 알려진 ‘들렁귀’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길이 약 10m, 높이 5~6m, 폭 6~7m 정도의 큰 바위가 한천 양쪽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바위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운데가 뚫려 있다. 앞에서 보면 문처럼, 위는 지붕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입구 천장에는 방선문이라는 마애명이 큰 글씨로 음각돼 있다. 즉,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방선문은 영주10경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봄철이면 관리와 선비들이 기생들과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방선문에는 조선조 제주목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남긴 30여 개의 마애명이 남아 있다.

한천의 발원지는 백록담 정상부이다. 예로부터 한라산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그중에서도 정상부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 왔다. 선조 4년(1601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내려왔던 청음 김상헌(金尙憲)이 남긴 《남사록(南槎錄)》을 보면 “뭇 북쪽 모퉁이에 단(壇)이 있으니 본주에서 언제나 기우하는 곳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가뭄이 들면 선인들이 비가 오기를 기원했던 터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록을 보면 김상헌은 왕명을 받고 이곳에서 한라산신에게 제를 올렸는데, 제문(祭文)은 당시 제주에 발생했던 역모의 발생과 조치에 관한 것으로 비단 기우만이 아니라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로 유명한 방선문

따라서 이 산신제 터는 1470년부터 3년간 제주에 머물렀던 이약동(李約東) 목사가 겨울철 동사자 발생을 이유로 한라산신제 거행 장소를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긴 뒤에도 중요한 산신제는 여전히 한라산 정상부에서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백록담 북쪽 모퉁이에는 넓지 않은 공간에 약간 인공을 가해 평탄작업을 한 산신제 터가 남아 있다.

또 산신제 터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는 '한라산 개방 기념비'가 있다. 제주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발발하자 당국은 한라산의 입산을 통제하였다. 6·25전쟁이 멎은 지 한참 뒤인 1955년 9월 21일 제주도경찰국장의 명의로 이곳에 한라산 개방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다.

한라산 정상에서 동북쪽 코스인 탐라계곡으로 잠시 내려오면 왕관릉이 나타난다. 이 능선은 둥그런 형태로 우뚝 솟아 있어 왕관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연덧동산’이었다. 연대(煙臺)가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다. 이형상 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에도 한라산 바로 아래쪽에 연대 표시가 있어 ‘왕관릉=연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맑은 날 왕관릉에 오르면 산북지역 대부분은 물론 멀리 추자군도와 남해안의 섬들도 한눈에 들어온다. 이런 지형적 여건을 살펴볼 때 도내 다른 연대와 봉수가 섬 내의 연락을 담당했던 데 비해 이 연대는 섬과 육지를 잇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6. 금성천

금성천은 하류에 이르러 애월읍과 한림읍을 경계 짓고 있지만 하천 대부분의 유역은 하류지역의 금성리를 비롯해 봉성리, 어음12리 등 애월읍에 집중돼 있다.

애월읍 봉성리 지경 금성천 중상류에 위치한 새별오름은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목호(牧胡)들을 무찌른 제주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의미있는 전투가 벌어졌던 전적지이다. 1374년 8월 공민왕의 명을 받은 최영 장군은 314척의 군선에 2만 5,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목호의 토벌에 나선다. 고려의 목호 토벌은 명나라가 고려 조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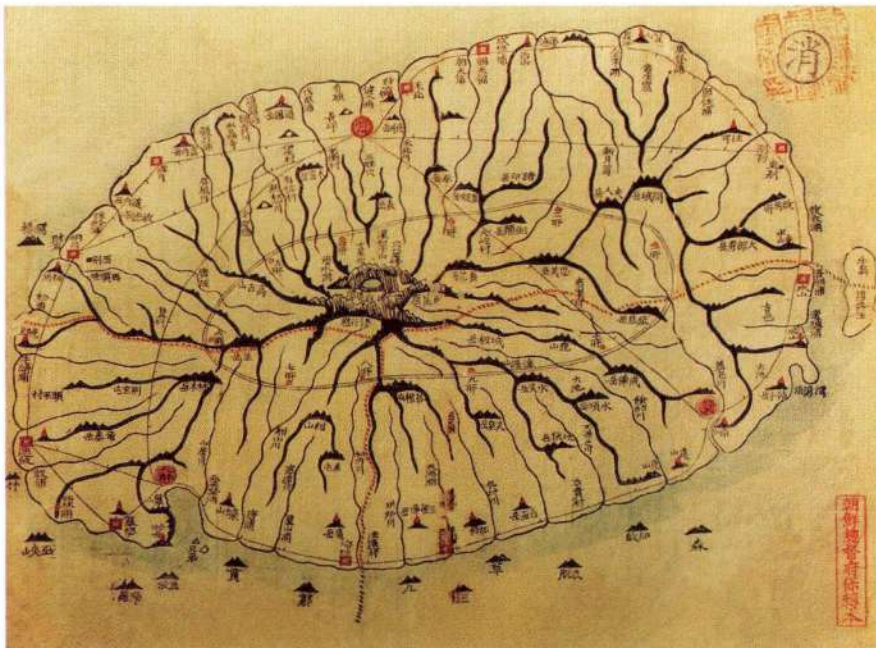


그림 4-9. 《대동여지도》 중 〈제주전도〉

(조선조 제주목장인 10소장의 구역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목자들의 애환이 서린 화전마을 등 역사현장이 내려 있다)

요구해 온 말 2,000필을 원제국의 관리들인 목호들이 거부한 게 발단이 되었다.

최영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명월포에 이르자 목호들은 3,000여의 기병으로 명월포에서 항거하다 새별오름 쪽으로 관군을 유인했다. 그들의 장기인 기병전을 벌이기 위함이었다. 목호와와의 싸움은 명월촌으로부터 어름비(어음), 밭음오름, 검은오름, 새별오름, 홍로(지금의 서귀포시)로 이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러나 싸움은 새별오름에서 격전 끝에 관군의 승리로 급격히 기울었고, 패잔 목호들은 서귀포 앞 바다 범섬으로 피신했으나 추격해 온 관군에 의해 전멸했다. 이로써 99년간 제주를 지배해 온 몽골의 세력은 종언을 고하고, 제주는 다시 고려에 편입되었다. 새별오름 남쪽에는 1999년 북제주군과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세운 ‘새별오름전적지 표석’이 그 의미를 전하고 있다.

금성천 상류지역인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花田洞)의 옛 이름은 화전(火田)마을이다. 이 마을은 제주의 역사와 선인들의 아픔을 반추케 하는 현장이다. 1899년 제작된 《제주읍지》 중 〈제주지도〉에는 도내에 모두 9개의 화전마을이 있었음을 표시해 놓았다. 이 자료는 화전민들에게 일정액의 화전세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폐단은 1862년 가을부터 3차에 걸쳐 발생한 농민들의 항쟁(壬戌濟州民亂)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임술민란은 화전민들이 집중 분포된 대정지역에서 시작된 후 각지로 퍼져 나갔는데, 처음에는 화전세 폐단에 반발, 봉기했으나 나중에는 수공업·상업·어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민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화전 경작은 1968년 화전정리법이 제정돼 법으로 금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봉성리는 4·3사건 당시 재산무장대와 토벌대 양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마을이다. 1948년 12월 17일 새벽 재산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이 불타고 주민 30여 명이 희생됐다. 아침에는 해안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산사람들과 내통했다며 마을 주민 수 명을 끌고 가 처형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150여 명이 희생

되었다.

봉성리 신명동은 43으로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다. 1948년 11월 군·경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중산간마을 대부분이 불에 태워졌다. 봉성리 주변 자연마을인 자이동, 월각동, 화전동 등 6~7개의 자연마을도 이때 없어졌다. 봉성동 본동으로 소개했던 자연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마을 대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 마을이 바로 신명동이다.

금성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음1리 하천변에 43 당시 쌓았던 성의 잔해가 있다. 발이오름과 금성천 사이의 참나무숲에 있었던 자연마을 ‘복케초남발’ 역시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다. 1993년에는 발이오름동굴에서 피난생활을 하다 토벌작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7. 연외천

연외천은 서귀포시내에 소재한 관광명소인 천지연폭포를 이루는 하천이다. 연외천은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연외천(서귀동), 생수천·서흥천(서흥동), 호근천·원제천(호근동), 그리고 연외천과 호근천이 합류하는 지점은 '선반내(숨반내)'로 불린다.

연외천의 하구는 서귀포항이다. 현재 유람선 선착장과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하구 동쪽은 일제강점기에 고래들을 잡아 가공했던 고래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일본인들의 포경업 전진기지였다.

고래공장 터에서 서북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절벽이 바로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가장 먼저 알려진 화석지대이다.

1968년 5월 22일자로 화석으로는 최초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었다.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은 신생대 제4초기(164만 년~73만 년 전)에 서귀포지역이 바다였을 때 바닷속에서 형성된 해양퇴적층으로 알려져 있다. 패류화석층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며 다양한 생물화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학술적으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연외천의 핵심적 명소인 천지연은 연간 국내·외 관광객 150여만 명이 찾아드는 관광명소인 동시에 자연생태의 귀중한 곳간이다. 천지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3군데 있다. 천지연난대림지대(제379호)를 비롯해 담팔수자생지(제163호), 무태장어서식처(제27호)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지연난대림은 모두 13,800여㎡이다. 난대수종이 매우 폭넓게 분포해 있으면서도 보호구역이 너무 협소하게 지정되었다는 학계의 지적에 따라 면적 확대를 위한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천지연폭포 바로 아래 지점은 무태장어 서식처이다. 길이 2m, 무게 20kg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2001년 여름 서귀포시가 무태장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낙으로 모두 1m가 넘는 무태장어 2마리를 낚은 바 있다.

폭포와 숲이 어우러진 천지연은 예부터 선비들과 시인 묵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고, 음풍농월을 읊조리던 공간이었다. 숙종 28년(1702년) 제주목사로서 삼읍을 순력했던 이형상 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에는 천지연에 관한 흥미로운 그림이 남아 있다. <천연사후(天淵射候)>라는 화제의 그림이 그것이다. 이 그림은 폭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 과녁을 설치하고, 반대편 언덕에서 활을 쏘아 솜씨를 겨루는 모습을 그렸다. 폭포의 양안을 잇는 밧줄에는 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 즉 추인(芻人)이 그려져 있다. 이 짚 인형은 과녁에 꽂힌 화살과 점수를 전달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쪽 암벽에는 제주에 귀양 왔던 임관주(任觀周)의 마애명이 남아 있다. “천지연 열린 곳에 큰 폭포 흘러내려 총석으로 옮겨오고 깊은 못에 쏟으며 떨어지네. 추인은 화살을 지고 공중을 걸어가니 제일 기이하고 볼 만한 것이 사후가 아닌가”라는 내용의 시이다.

8. 도순천

도순천은 강정천을 거느린 하천이다. 도순천 하류지대인 강정동을 끼고 도는 하천이 강정천인데, 주류인 도순천보다 오히려 강정천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강정천이 산북의 외도천과 함께 산남을 대표하는 유수천으로 서귀포 시민의 식수 70%를 공급하는 수원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천은 사철 흐르는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예로부터 농사 짓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았다. 강정천 주변 지역의 유물 산포지는 강정천 동남쪽 ‘씩은여’에서 월평동 ‘동물개’에 이르는 10여만 평에 이르며, 산남 일대에서 가장 넓은 유물 산포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류의 ‘큰 강정물’과 ‘정의논물’을 중심으로 유물이 집중 산포되어 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의 골아가리토기와 탐라 시대 적갈색항아리토기의 분포 공간이 달라 거주장소의 이동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이다.

강정천은 예로부터 ‘은어’ 서식처로 유명하다. 선조34년(1601년) 7월 청음 김상헌이 안무어사로 제주에 내려와 견문한 것을 기록한 《남사록》에 따르면 “강정천에 은어가 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고서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수백 년 전부터 이 고장의 명물이었다. 은어는 보통 가을에 물이 흐르는 계곡 바닥의 모래자갈에 알을 낳으며 이 알은 곧 수정되어 물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서 부화한 뒤 겨울을 지낸다. 이듬해 봄에 다시 강정천을 따라 거슬러 오른 뒤 강정천 취수장까지 올라온다. 은어 낚시는 보통 6~8월에 이루어지며 산란기인 9~10월에는 잡지 않는다. 봄철에 볼 수 있는 은어는 보통 5~6cm 되지만 산란기에 접어들면 20~30cm까지 성장한다.

조사에 의하면 도내의 은어 서식처는 강정천, 도순천, 중문천, 연외천, 옹포천, 외도천이며, 이 중 강정천의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1994)

강정천의 상류 마을인 하원은 제주의 귀중한 역사 유적인 법화사(法華寺)와 왕자묘의 소재지이다.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 삼양동 원당사와 함께 제주지역의 대표적 사찰이었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고려 시대인 원종 10년~충렬왕 5년(1269~1276년)까지 중창된 기록이 있는 명문기와가 출토돼 이 시기에 크게 번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한때 사찰노비 280명을 거느렸던 법화사는 이후 교세가 약화되기 시작, 16~17세기에는 사찰의 명맥만 유지되다가 18세기에는 터만 남게 되었다. 법화사지 발굴조사는 1982년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1987년



그림 4-10. 도순천 상류인 영실 서남쪽 블래오름 기슭에 복원한 존자암

지금의 대웅전이 복원됐고, 구품연지의 터가 확인돼 1,600여 평 규모로 복원됐다.

법화사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위치에 ‘하원동 분묘군’이 있다. 일명 ‘왕자묘’라고 불리는 고분으로 영실에서 발원한 강정천 두 주류의 사이 해발 200m 지점 나지막한 능선상에 있다. 이 고분에 대해서는 탐라국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라는 시각과 원(元)의 양왕자(梁王子)라는 설이 있는데, 최근 문화재 당국에 의해 복원·관리되고 있다.

도순천(강정천) 발원지인 영실은 제주 최대의 비경을 품고 있고, 중요한 역사유적과 설화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그중 대표적인 문화유적이 1995년 제주도지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존자암’이다.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1486년)

과 임제의 《남명소승》(1577),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1520),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1601), 이원진의 《탐라지》(1653), 이형상의 《남환박물》(1702년) 등에 전해진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존자암은 조선조 때 삼읍의 수령이 국성재를 지냈던 터로 처음에는 영실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존자암의 창건연대는 삼성의 시작과 때를 같이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 당국은 존자암이 석가모니의 열다섯 제자 중 한 사람인 발타라존자에 의해 창건됐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다. 존자암은 지난 1993년부터 2년간 제주대학교박물관 팀에 의해 두 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됐는데, 고려 말인 14세기~조선 중기인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5곳과 부도, 명문기와, 그리고 청동제 사천왕상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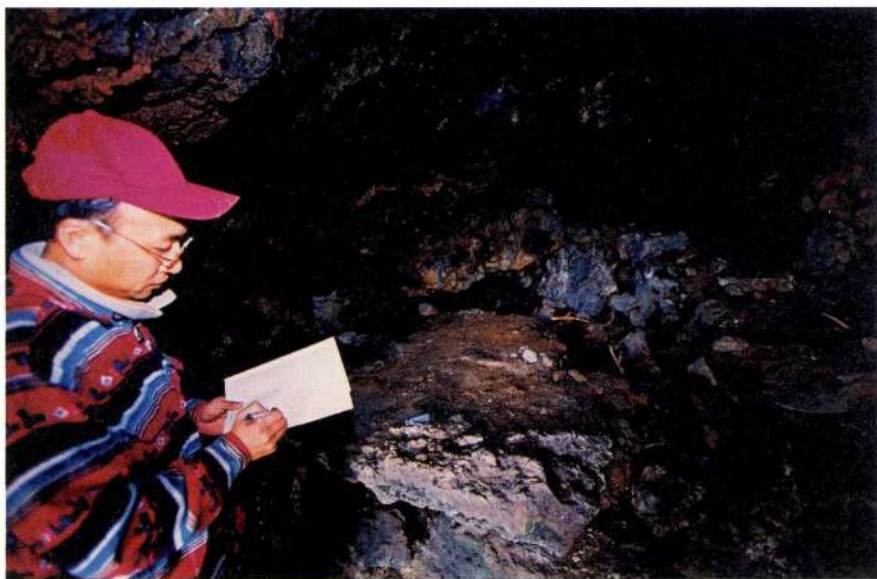


그림 4-11. 도순천 상류지대에 있는 수행굴 내부

존자암의 동쪽인 영실에서 동남쪽 옛 등산코스를 따라 1시간 정도 걸어가면 해발 1,550m 남짓한 지점에 ‘수행굴(修行窟)’이 나타난다. 지난 2001년 11월 한라일보 한라산학술탐사팀이 기록상에 남아 있던 이 굴을 찾아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목 불우조(佛宇條)에 따르면 “존자암은 한라산 동쪽 기슭에 있는데, 그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수행굴)이라 전해 왔다.”라는 것이다. 또 1601년 한라산을 올랐던 청음 김상헌은 《남사록》에 “또 수행굴을 지났다. 굴속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고승 휴량(休量)이 들어가 살던 굴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1609년 한라산을 등정했던 판관 김치도 기록을 남겼는데, “영실의 동남쪽 허리에 석굴 하나가 있는데, 수행동이라 한다. 옛날에 고승이 그 속에 살았다고 하는데 부서진 온돌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했다. 한라산학술탐사팀은 이 굴속에서 부서진 온돌이 지금까지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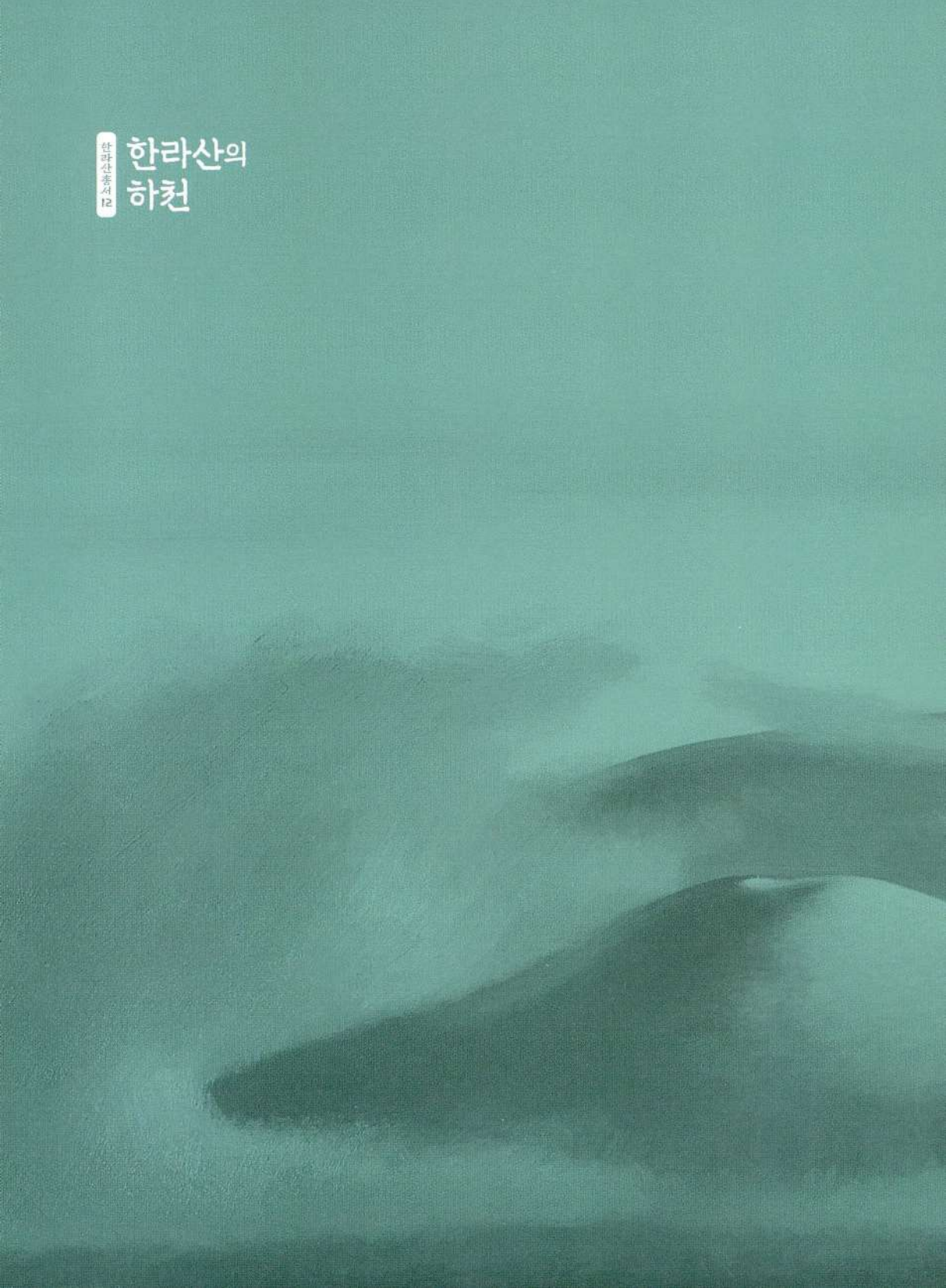
또한 이 굴은 1901년 외국인으로는 한라산을 처음 등정하고,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라는 사실을 첫 측정한 독일인 지리학자인 지그프리드 쟈테와도 관련된 유적이다. 쟈테의 한라산 등정 기록을 보면 “두 차례에 걸쳐 이 굴에서 수행원 20여 명과 함께 유럽의 술을 마시며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라산학술탐사팀은 이 굴에서 그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럽풍의 잉크병과 캐나다산 술병 조각을 발견하기도 했다.

참고 문헌

-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우리가람 길라잡이》, 2002.
- 한라일보사, 《산을 벌른 내 효돈천》, 2000.
- 한라일보사, 《제주 최장의 하천, 천미천》, 2001.
- 한라일보사, 《한라산 생태학술대탐사》시리즈, 1999.1.1.~2002.10.
- 이형상, 《耽羅巡歷圖》(영인본), 제주시, 2000.
-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1976.
-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 《尊者庵址》, 1996.
- 제주시, 《觀德亭 실측조사보고서》, 1995.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濟州 河源洞 墳墓群》, 2000.
- 강정마을회, 《강정향토지》, 1996.
- 한라일보사 표석건립추진위원회, 《제주시 주요유적지 표석 비문》, 1998~2001.
- 사단법인 제주도 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진지동굴 조사연구보고서》, 2001.

한라산
총서 12

한라산의 하천



제5장

삶의 공간으로서의 하천



여 백

제주의 하천은 건천이 주를 이루지만, 홍수가 나면 한라산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큰 물이 모여들어 온 천지를 휩쓸어 가는 무서운 위용을 뽐내기도 했다. 한편 하천은 각 마을의 경계선이 되기도 했고, 주민들은 물 넘은 공간으로서 하천을 경계로 다른 마을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생업과 함께 다른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천지 창조 신화인 설문대할망 신화에서는, 할망의 성기가 너무 커서 한라산의 노루, 사슴 등의 짐승들이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가자, 할망은 그 부분이 너무 가려워 그만 오줌을 싸게 되었는데, 그 물줄기가 얼마나 세었던지 오줌 줄기가 흘렀던 부분은 모두 하천이 되고 말았다고 전한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제주의 큰 하천은 각 마을마다 그 이름을 달리하여 불리면서 하천 중심의 문화를 형성했는데, 하천 공간의 문화는 오랜 시간을 이어 오면서 많은 의미를 남기며 전해지고 있다.

제주어로 ‘내’, ‘내창’으로 불리는 하천은 우선 주거 생활의 공간이었다. 원시시대에는 하천가의 바위그늘 집터에서 물을 급수원으로 이용하여 주거를 하기도 했는데, 물이 귀한 섬사람들에게는 천변가에 늘 물이 고여 있는 ‘소’ 혹은 용천수가 생활 용수의 주요한 급원이 되었던 것이다. 물이 있는 천변가에서 닻나무를 햇볕에 바래어 종이를 만들었고, 천변 채석장에서는 비석을 만들어 공동묘지의 표석으로 삼거나 제단으로도 썼다.

때로 하천은 아이들의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풍류의 공간이면서, 용연과 같은 곳은 배 띄워서 노는 유희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하천은 신앙처인 당의 설연지이기도 했다. 하천이 한라산을 오르고 마을로 내리는 통로 구실을 했던 것처럼, 한라산의 신들에게도 하천은 산간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내려오는 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하천 인근에 당을 신설하기도 했다.

1. 생활공간으로서의 하천

바위그늘 집터

제주 지역에서는 화산지형이 만들어 낸 바위그늘이나 동굴이 주거지로 이용되곤 했다. 특히 하천변에 나타나는 바위그늘 집자리는 용천수의 이용이 쉽고 동굴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자연적 입지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선사 유적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북제주군, 《비지정 문화재 조사보고서》, 2004) 애월읍 가문동 해안가 포구에 이르러 동편의 경사면 암반에 바위그늘 집자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 까닭은 서쪽에는 하천이 형성되고, 하천 하류와 인접해 있는 곳에 해안 용천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위그늘 집자리는 서귀포시의 경우(남제주군, 《남제주군의 고유지명》, 1996) 감산천과 안덕계곡에 네 자리, 효례천에 두 자리, 신례천에 한 자리가 발견되고 있다.

안덕계곡 매표소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하천을 따라가면 아치형의 바위그늘 집자리가 발견되는데, 트인 방향은 남서 방향이다. 굴 내부에서 확인된 유물은 광지2식 토기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30m 정도 들어가면 정면 부분이 흰히 트여 있다.

감산천의 바위그늘 집자리는 하천 급류의 계속되는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화순리 화력발전소 북쪽의 감산천 절벽 하단에 위치한다. 트인 방향은 북서쪽이고, 입구 직경은 7.6m에 이르며, 두 개의 구멍으로 된 아치형이다. 유물은 광지1식 적갈색 항아리형 토기(탐라 시대 전기, 기원 0~500년경)와 곡물을 빻는데 쓰는 도구인 공깃돌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중문동 성천포 바위그늘 집자리는 하천 절벽의 연한 부분의 낙석현상

과 그 부위의 부분적인 하천 침식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리의 경계하천인 효례천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이루어진 아치형 바위그늘 집 자리로 유명한데, 바닥 틈새에서 갈돌, 홈돌, 공이류의 석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바위그늘 집터는 비를 피할 수 있고, 거주민들의 물 이용이 쉬우며, 하천의 돌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절한 장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차단되어 겨울의 추위에도 안전한 곳이었다.

감산천의 수로

감산천의 흐르는 물은 빨래를 하거나 목욕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우마를 먹이는 데도 사용됐다. 감산천의 남쪽 지경에는 샘들이 많아서 밭에 일하러 가셔도 물 걱정이 없었고, 안골, 홍골 일대는 감산천의 풍부한 물을 이용한 논밭들이 계단식으로 밀집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조선 순조 때 김광종은 감산천의 물을 논농사에 이용하기 위해 안덕계곡에 1,100m가량의 수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공사는 헌종 7년에 완공되어 거의 10년이 걸렸다. 돌 작업에 능한 석수 약간 명을 이용하여 수로를 팠기 때문에 모두가 도깨비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 도수로로 정비해서 만여 평이 나 되는 논밭에 물을 댈 수 있었다.

1938년에 화순답회(和順畵會)에서 김광종을 기리는 비문을 세워 현재도 당시 노력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생활용수

하천에서 솟는 용천수는 음용수나 마소들이 마시는 물, 혹은 수전의 논농사를 위한 관개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로 몸을 식히는

미역감는 장소로, 물을 얻기 위한 장소로 하천을 연상할 만큼 물이 귀한 제주 섬에서 하천은 아주 익숙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남제주군 고유지명》(남제주군, 1996)에 나타나는 자료를 보면 하천은 다음의 인용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생활용수를 제공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감산천의 ‘고개물’은 논 소유주가 고씨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관개에 이용되는 경우이다.
- 감산천의 ‘큰물’은 논 1,000여 평 정도의 물을 대는 데 활용되고, 물의 수량이 크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 감산천의 ‘보막은 소’는 마을 20ha 정도의 논에 물을 대는 답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를 쌓아 올려서 물을 막았다.
- 감산천의 ‘산받은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용해 음용수로 쓰거나 혹은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마을의 포제나 당제를 지낼 때 쓰였다고 한다.
- 감산천의 ‘함박이물’은 수원이 적어 지역 주민들이 바가지로 물을 떠다가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례천 상류의 ‘울리소’는 물에 늘상 오리들이 놀았다고 하는 데서 그 명칭이 붙여졌는데,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아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이용되었다고 전한다.

2. 유희적 공간으로서의 하천

한천 용연-병담범주(屏潭泛舟)

달이 뜬 밤, 용연에 배를 띄워 음악을 듣고 한시를 읊으며 기생들과 노는 연희연(演戲宴)은 유교 선비들의 자연 완상의 수준을 넘어 탐닉하며 즐기던 유희 행위의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영주12경의 하나였을까.

용연에 배를 띄워 ‘놀자’라는 선비들의 유희에 대한 관심도 색달랐고, 거기서 행해지는 악가무(樂歌舞)에 대한 풍류와 예술적 안목도 꽤 높았다.

병와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南畵博物)》의 경승조에는 “취병담은 뱃놀이하기에 알맞다.”라고 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방연이 제일 명승이라고 하고 있다.

병와가 음력 7월 16일에 배를 띄워 뱃놀이를 한 것은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에 연유한다. 적벽(赤壁)은 수개 처가 있으나, 중국 호북성(湖北省) 황주부성(黃州府城)의 서북 한천문(漢川門) 위에 붉은색 흙의 암벽이 솟아 있는 곳을 노래한 소동파의 적벽부가 유명하다.

동파(東坡)의 적벽부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 병담범주 내용과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술(壬戌)해(송나라 원풍 5년, 1082년) 가을 칠원(七月) 기망(既望)에, 소자(蘇子) 객(客)과 배를 띄우고 적벽(赤壁) 아래 노닐다. 청풍(淸風)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으니,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며 명월(明月)의 시(詩)를 외고 요조(窈窕)의 장(章)을 노래한다. 조금 있으니 달이 동산(東山) 위에 나타나 두우(斗牛)의 사이를 배회(徘徊)하더라. 백로(白鷺)는 강에 비끼고 물빛은 하늘에 닿았다.

통소를 부르는 자(者) 있어, 노래를 따라서 가락을 맞춘다. 그 소리 명명(鳴鳴)하니, 원한

인 듯 그리움인 듯, 우는 듯, 호소하는 듯, 여음(餘音)은 가늘면서도 끊이지를 알아 실과 같더라. 깊숙한 골짜기 물속에 잠겨 있는 교룡(蛟龍)을 춤추이고…….



그림 5-1. 병담범주(탐라순력도)

곧, 병와가 소동파의 적벽부를 읽고, 용연을 뱃놀이의 장소로 감지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1999년부터 행해지는 선상음악회는 과거 병담범주의 정경을 유추했을 것이다

병담범주의 그림에는 세 척의 배가 있다. 이 배들은 범선으로 추정되며, 승선 인원은 약 15인승의 한선 중에서 중선(中船)의 크기로 추정이 가능하다(제주시, 《耽羅巡歷圖研究論叢》, 2000).

그림에는 해녀들이 물질하는 장면, 한라산 백록담이 바로 내다보이는 장면, 삼의악, 어승생악 등도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다가 적벽부에서처럼 동쪽에 달이 떠올라 남두성(南斗星)과 견우성(牽牛星) 사이를 오가면 마치 동양화의 한 폭을 연상시킬 수 있다.

첫대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과 삼죽에 올려진 북을 치는 고수가 무고춤을 추고, 기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며, 거의 총 10인의 인원이 배를 타고 연주를 하면, 목사는 어느 둔덕 위에서 흥에 취해 술기운이 얼근하여 자연과 동화된



그림 5-2. 선상음악회(2010, 좌혜경)

자신의 모습에서 자연을 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물론 조선조의 악가무(樂歌舞)가 국가의 위업이나 왕실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정치의 기반이 되어 의례 형식으로 치러졌다고 하지만, 좋은 풍광을 찾아 흥을 돋우는 밤 뱃놀이는 경로잔치와 양로연과는 다른 연희판, 곧 유흥의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방선문-신선, 기생과의 놀이

방선문(訪仙門)은 신선을 찾아가는 문이요, 한라산을 오르는 통로로, 속세와 탈속의 경계가 된다. 최익현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나 《배비장전》에서도 방선문을 거쳐 한라산에 오르는 장면이 묘사되며, 또 이곳은 영문(營門)의 전렵(田獵) 장소이기도 했다.

《배비장전》에 나오는 들렁귀에 대한 배경묘사는 12경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선비들은 기생과 놀고, 신선과 노는 꿈을 꾸어 이상향을 찾았다.

① 신선과의 놀이

선비들은 도교사상 중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산(瀛洲山)을 한라산으로 여겼으며, 탈속의 문인들은 방선문(訪仙門)을 탈속의 경계로 여겨, 이곳에 와서 선인들을 만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이곳을 방선문이라 제액하고, 그 안에 들어서서 선인을 찾거나 선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선인을 불러 답답한 심정을 달래던 환선대(喚仙臺)가 있다. 그리고 우선대(遇仙臺)가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선비가 신선을 보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이곳은 도교적인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신선이 사는 언덕을 오르다는 의미로 ‘등영구(登瀛邱)’라 하였는데, 이처럼 방선문은 신선사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이다.

신선사상은 전국 시대 때 해도선향(海島仙鄉), 곧 신선의 고향인 바다섬을 찾아 나서게 했다. 진나라 때 시황제는 오백의 동남동녀를 이곳에 보내어 불사약을 구하려 하였으며, 후한(後漢)대에는 인생무상의 염세적인 인생관과 더불어 더욱 진전하면서, 도가자(道家者)들의 출현과 함께 문학 속에도 등장하게 된다.

사기에 있는 설화로, 해도선향의 오신산설에서는 발해(渤海)의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를 삼신산으로 여겼다(이은상, <한라산 등반기>). 그리고 산은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라고 했다. 영주산을 오르는 이곳 들렁귀는 첫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신선의 경지 속에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선비들은 한라산을 신선의 고향으로 삼아 신선을 찾았으나, 신선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세속의 번거로움을 모두 털어 흰 해와 손 잡고, 백록(白鹿)을 타고 신선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는 찬탄의 대상이고 그리움이나, 신선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발견이다.

② 기생과의 놀이

제주가 《배비장전》의 무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작품에서 배비장과 애랑이가 처음 만난 수포동과 백포장 녹림간은 과연 어디일까?

색향(色鄉)으로 알려진 제주의 공간적 배경은 스토리의 복선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재했던 공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배를 타고 오면서 ‘사수와당’, 화북진 환풍정(換風亭)에서 어리석은 정비장이 발치(拔齒)하여 애랑에게 주는 장면, 알몸뚱이가 된 배비장이 께짝에서 나와 눈 감고 물 위를 헤엄치는 것처럼 허우적대던 동헌마당이 나타난다. 한편 한라산 화유 때 호색한이면서도 군자연하는 배비장이 목욕하는 애랑을 처음 흠쳐본 곳인 수포동(水布洞)은 백화가 만발하여 12경의 하나인 ‘영구춘화’, 곧 이곳 ‘들렁귀’이다.

장면 묘사의 능력으로 보아 작가는 제주의 풍광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며, 또한 문장이 유려하고, 고사성어와 풍광 묘사에서 고정적 한문투의 관용구 사



그림 5-3. 제주기에랑 공연 장면(2004, 좌혜경)

용이 자유로운 점으로 보아 매우 유식했음을 예상케 한다.

소설의 주제는 신분제도의 모순을 반영하고, 호색한 양반의 점잖고 도도한 체하는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일편단심의 정절을 강조한 춘향이에 비해 헌신짝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간교하고도 색정적인 애랑은 주제 표출에 있어서 진일보한 인물이다.

그녀는 양반 신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유교적 남성 권위에 대해 위협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물론 배비장전이 경주 기생의 발치(拔齒)설화나 미궤(米櫃)설화, 사실담의 판소리화, 소설화라 할 수 있지만, 방자나 애랑은 “천민계층도 양반계층을 능멸할 수 있다.”라는 신분적 상승에 의해 태어난 시대 반영의 산물이다. 제주 사람들은 기생 애랑을 통해 관(官) 혹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의 정서를 다소나마 달랠 수 있었다. 이

처럼 배비장전은 화려한 문체와 서술기법을 통해 개인적 단점과 신분사회의 갈등을 웃음으로 화해하도록 해준다.

정소암 화전놀이

표선면 성읍리 쪽에서는 천미천을 사행천이라고도 한다. 뱀처럼 구부러진 모습에서 그렇게 불린 것이다. 여기에는 정소암(鼎昭岩)이라는 자그마한 소가 있는데 화전(花煎)놀이가 흥성스럽게 치러지던 곳이다. 3월 3일 삼짇날에 정의현청의 현감이 육방 관속을 거느리고 정소암에 가서 노는 놀이이다. 길군악을 부르고 도착 후에는 풍년 기원제를 행한 후, '신목사타령'이라고도 일컫는 '관덕정앞'이나 '사랑가', '계화타령', '봉지가' 등의 창민요를 기생들이 부르며, 사령들은 죽은 영혼을 위무하기 위해 칼춤을 춘다. 메밀로 화전을 만들어 잔치를 베풀고, 풍월을 지어 장원한 사람을 황봉(黃封)이라 칭하여 술을 주어 후대한다.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날만은 민이 관에 불경해도 탓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신앙적 공간으로서의 하천

효돈천의 신앙

효돈천변에 위치해 있는 당으로는 효돈본향당, 일명 ‘주배낭알당’(하효)과 ‘큰당’, ‘일렛당’(하효)이 쇠소깍에 위치해 있고, 하례본향당 역시 하천에 위치해 있다. 이는 무속신앙과 하천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함을 말해준다.

각 당의 특성에 따라서 효돈본향당이나 예촌본향당은 서귀 보목본향당과 동일계 신이고 한라산신계의 계열로 인근 마을 토평 본향당신과 함께 동일한 신화이다.

신·하효리민을 신앙권으로 하는 효돈본향당은 쇠소깍에 위치해 있다. 쇠소깍 주배낭(구실잣밤나무) 아래 좌정했다고 해서 ‘주배낭알당’이라고도 한다. 당신은 두 신 위로 남편신인 조노깃한집 브르못도와, 여신이면서 남신의 첩(妾)인 새금상뜨님이 좌정해 있다.

이 신들은 생산·물고·호적·유아를 관장하게 된다. 제일(祭日)은 1월 12일, 2월 12일, 11월 14일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한라산계 태생의 신들이다. 한라영산에서 솟아나신 ‘백관님’과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나신 ‘도원수’, 칠오름에서 솟아나신 ‘도병서’ 삼위는 예촌본향이고, 보목리 ‘조노기’ 본향은 한로영산 서남목계 백록담서 솟아난 ‘브르못도’이다.

브르못도님 부인은 ‘신중부인’으로, 하루는 브르못도가 부인을 데리고 백록담에서 차츰 내려오다가 ‘제환지’(서귀읍 상효리 지명) 칠오름에 와서 보니 청기와와 흑기와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신이 있었다.

“어떤 어른이 좌정했는가?” 하고 의문을 삼았다.

그는 부인을 ‘토평’에 있는 허좌수 집에 가서 맡겨두고 혼자 청기와 집에 가 수작

을 했는데, 좌정한 세 분은 할로영산 백관, 강남천자 도원수, 마지막은 칠오름 도병서였다. 세 분이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어 자신을 소개하여 나이를 헤아리니 조노기본향당신이 가장 위였다.

신들은 친목화합으로 바둑 장기를 두었는데, 예촌본향당신이 이겼다. “내기 바둑에서 졌으니 어딜로 가서 좌정하쿠가?” 예촌본향당신은 자신이 이겼으니 위로 가서 좌정하겠다 하고 조노기는 보목리로 내려와 좌정하게 된다. 이때 마침 예촌본향당신이 좌정을 끝내고 바둑 장기를 두고 있자 밀양 박씨가 지나가다가 예촌본향당의 ‘당하니’(매인심방)가 되어 대대손손 위하게 된다.

조노기 당신이 신중부인이 있는 토평으로 돌아오자 종경내(돼지털을 불에 그을렸을 때 단백질이 탄 아룻한 냄새)가 나서 부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내장을 내어 먹었다고 대답했다. 남편신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하며 별거를 선언하자 신중부인은 토평에 좌정하여 토평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육아와 수렵(狩獵)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제일이 6월 7일, 11월 7로 일땡당계(칠일계) 신으로 좌정했다.

한편 부인과 헤어진 남신은 ‘새금상뚝님애기’를 첩으로 맞았다. 남편과 같이 좌정하여 신앙민들을 관장하는데, 여신은 억세고 질투가 심하여 단골들에게 상당히 많은 양의 재물을 요구하는 당신이 되었다.

위의 신화는 신의 계열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웃한 지역 예촌과 효돈, 보목, 토평이 서로 관련이 있는데, 한라산신계의 동일계 신이다. 본풀이는 좌정 위치뿐만 아니라, 신의 특성, 위계, 혹은 신의 식성마저도 설연하고 있다.

예촌본향당인 경우도 효돈본향당 신화에서처럼 한라영산 백관님, 강남천자도원님, 칠오름도병서로, 생산·물고·호적을 담당한다. 1월 8일, 2월 8일, 3월 13일이 제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보목이나 효돈본향당 신화와 전반부는 동일하나 후반부에는 허좌수 모티프가 첨가된 점이 다르다.

허좌수가 벼슬살이 할 때 말을 타고 당을 지나가자 말이 밭을 절었다. 화가 난 좌수는 말의 목을 쳐서 말고기를 올려 굶을 하도록 했다. 그때 큰 구렁이가 모습을 드

러내니, 허좌수가 칼을 뽑아 목을 치려 하였다. 갑자기 구렁이가 청비둘기로 환생하여 칠오름에 가서 떨어졌다. 이를 ‘당든 밧’ 또는 ‘맥든 밧’이라고 한다.

별 탈 없이 집에 돌아간 허좌수가 정의골에 좌수 벼슬을 하러 갔을 때이다. 어느 날 하인은 목사가 서쪽으로 순력 행차가 오니 허좌수가 마중을 가도록 했다. 그런데 허좌수가 서귀읍 호근리 하논계 지경에 오자 이상하게도 군막(軍幕)이 쳐 있었고, 목사 행차 소리는 멀어져만 갔다.

“네가 허좌수냐? 나는 김녕본향(靑嶺本鄕)이로다.”, “나는 대정 광정당본향이로다”, “나는 예촌본향이로다. 우리한테 어떤 욕을 하였느냐. 하옥하여 처벌하라.” 허좌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영력(靈力)이 강한 세 신령을 만나 그 자리에 쓰러졌다.

뒷날 호근리 사람에게 발견된 허좌수는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온갖 상처가 나서 허허벌판에 누워 있었다. 그 후 허좌수의 자손들이 망하고 전부 죽게 되어 일족이 멸했다. 하루는 허좌수 며느리가 밭에 가서 김을 매고 있는데, 밭고랑의 아기구덩에 눕혀둔 아기가 울어서 가 보니 뱀이 아기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그 후로부터 단골들이 허좌수의 원을 달래기 위해 상을 차려놓아 당신들과 함께 위했다.

예촌본향당은 위낙 위치가 멀고 험해서 젊은이들의 답력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며 기력을 뽐내던 한 젊은이가 당역(堂域)에 말뚝 박는 내기를 하고 거기에 갔다가 혼절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한다. 위낙 당신의 영스러움이 강해 무당들이 굿을 할 때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고 한다.

예촌본향당 당신(堂神)의 위력을 강조하고, 유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당의 철폐와 연결된 허좌수의 모티프는 원래 기존의 본풀이에 첨가되어 구연되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이는 당신의 영험을 강조하고, 또한 온갖 수난을 거친 역사를 반영하는 부분으로 읽을 수 있으며, 무당들 고유 영역 침해에 대한 저항의지로도 해석된다.

예촌 본향당의 대부분 신앙민은 신례·하례 주민들이다. 굿을 할 때는 직접 위 삼신(하로산 백관, 칠오름도병서, 강남천자국 도원수) 외에도 관청할망, 현씨일월, 산신, 요왕

신을 모두 청한다. 이 신화에서 브르곳도님의 신적 특성은 수렵 목축신으로 무신(武神)이면서 장수신(將帥神)으로 나타난다. 당신 본풀이에서는 수렵을 상징하는 한라산계의 대표적 신이 좌정처를 찾아 어촌으로 내려와 좌정하는 과정을 ‘바둑 내기’라는 경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신이 좌정한다는 것은 그 마을이 형성돼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좌정한다는 것은 신을 모실 단골들이 형성됐음을 말하는 것이다.

감산천의 신앙

감산천을 따라가 보면 도고새미 일뤼 중저와 호근이므루에 여드렛당이 위치해 있다. 도고새미 일뤼 중저는 아버지 동백자 하로산의 여섯 형제 중에서 다섯째 딸로 태어나는 점으로 보아 한라산계의 신으로 볼 수 있다. 당의 위치가 감산리의 동동네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도고새미 옆에 위치해 있는데, 부모 눈에 거슬려 방황하다가 짐준잇집 아들과 결혼하고, 도고새미에 좌정하여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다.

제일은 정월 17일(신과세제), 5월 17일(마불림제), 8월 17일(추석) 등이다. 마불림제의 날짜가 다른 지역과 다르고 일뤼당이어서 제일 모두가 7일계로 되어 있다.

제물로는 메와 돌레떡을 바친다. 가장 마지막까지 이 당의 본풀이를 전하는 심방은 고창학 심방이다.

호근이므루 여드렛당 역시 도고새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신화의 주인공 ‘이씨 처녀’는 부모와 이별하여 방황하다가 오좌수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오좌수에게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로 인해서 한을 품게 되는데, 매 제일이 8일로 되는 여드렛당신이 된 것이다.

본풀이의 내용 중 전반부는 한라산의 산신이며 수렵신적 성격의 한라산계 본풀이가 주를 이루고, 후반부 황토 부인으로 좌정한 ‘이씨 처녀’의 이야기는 치병신적

성격을 띠게 되어 이 당은 생업수호신과 치병신적인 신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계 신들은 모두 아홉 형제가 솟아나서 각각 도내의 당신이 되었는데, 여덟째 아들이 안덕면 감산 창천리 당신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인 통물당신이 되고, 또한 한라산계의 일곱째 아들이 상하례리 당신이 딸 여섯을 낳았는데, 다섯째가 바로 감산리 일똥당신이 되며, 여기에서 가지 갈라간 신이 바로 창천리 일똥당신이 된다고 본풀이는 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강정식은《감산향토지》(2002) 한라산의 신들이 해안가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서 분가하여 좌정하고 다시 새로 가지 가른 당들이 생기는 것은 마을의 설촌이나 통혼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것은 당의 설촌이 마을이 식수원이 되는 하천 인근 지역이어서 마을 설촌과 당의 설립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4. 창조공간으로서의 하천

방선문의 마애시

방선문(訪仙門)은 글자의 의미 그대로 '신선을 찾아가는 문'이다. 또는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곳을 거쳐가면서 '영험스런 산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의미로 붙인 별칭일 수도 있다.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약초가 있어 신선이 산다고 믿는 삼신산(三神山)이 바로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 곧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어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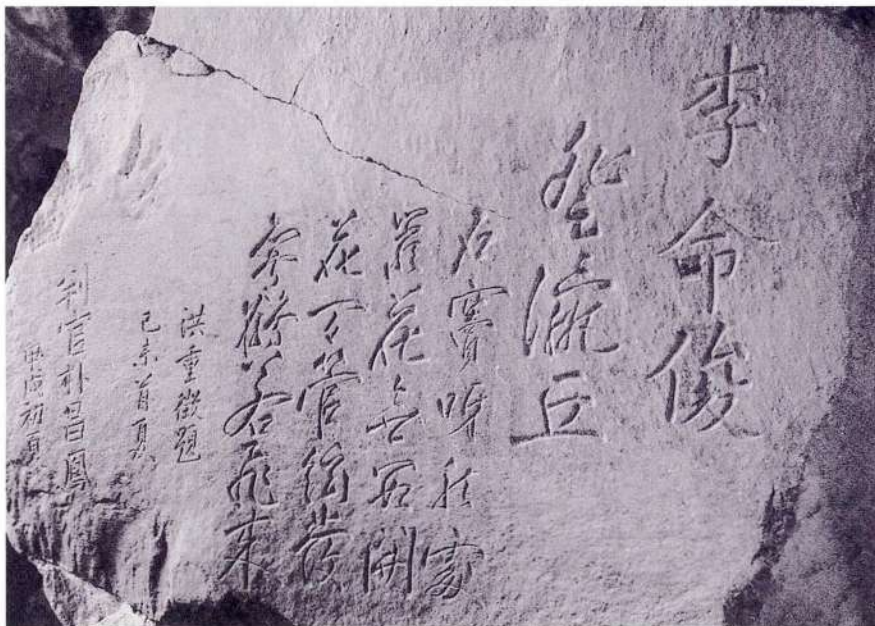


그림 5-4. 방선문의 등영구(2004, 현행복)

다. 더욱이 탐라의 옛 이름도 동영주(東瀛洲)이다. 결국 한라산은 신선이 사는 영험스런 산인 셈이다.

홍중징(洪重徵)의 오언절구(五言絕句)

登瀛丘(등영구)

石竇呀然處(궤린 바위구멍 입을 크게 벌린 듯)

巖花無數開(암벽 사이 봄꽃들 여기저기 피어났네)

花間管絃發(꽃 사이로 퍼지는 풍악소리 선율에)

鸞鶴若飛來(신선 태운 난새 학새 너울너울 날아오는 듯)

己未 首夏 洪重徵 題(기미년 초여름 홍중징 짓다)

이 시는 방선문(訪仙門)에 현재 남아 있는 마애각의 여러 제영을 대표할 정도로 상징적이다. 홍중징의 시에서는 옥피리(管), 거문고를 타는(絃) 신선의 음악소리에 앵무와 학이 날아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정운(韓鼎運)의 오언절구(五言絕句)

次壁上韻(암벽 위의 운자를 따서)

亂石況雲合(널부러진 돌들 위로 구름까지 더욱 덮여)

幽花向日開(응달의 그윽한 꽃 해를 보려 활짝 폈네)

仙人不可見(아무리 둘러봐도 선인은 볼 수 없어)

我輩祇空來(우리들 괜스레 헛걸음 했나보오)

韓鼎運(한정운)

이의겸(李義謙)의 오언절구(五言絕句)

浦口吞紅日(바다의 붉은 해 포구가 막 집어삼킬 듯)

山肩荷白雲(산등성이 흰 구름 짙어진 듯 깔려 있네)
 淸遊宜此夕(고상한 풍취놀음 오늘밤이 제격이니)
 携酒且論文(술을 갖고 와 마시면서 문장이나 논해보세)

戊子 四月初一日 判官 李義謙(무자년 사월 초하루 판관 이의겸)

이익태(李益泰) 목사의 《지영록》(知瀛錄)에도 방선문과 관련된 칠언절구의 시가 있다. 그중 ‘淸遊此日是仙翁’(오늘 같은 풍취놀음 바로 신선 된 느낌이니네)에서도 풍취놀음인 ‘淸遊’(淸遊)가 등장한다. 이익태 목사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인 작자 이의겸(李義謙)이 그 표현을 차용했음직도 하다.

임태유(任泰瑜)의 오언절구(五言絶句)

壁間纔一路(암벽 사이로 겨우 길 하나 뚫려 있어)
 自作石門開(저절로 지어지길 돌문 열린 형태라네)
 騎鹿遊仙去(백록 타고 놀던 선인 떠나가고 없지만)
 我行覺後來(훗날 다시 와 나의 다녀감 알아차리겠지)

乙酉 暮春 任泰瑜(을유년 저무는 봄 임태유)

작자 임태유(任泰瑜)의 인적사항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제액연도의 간지가 ‘乙酉’(을유)인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홍규(洪圭) 목사가 방선문을 찾은 해인 고종 22년(乙酉, 1885) 5월경이 아닌가 추측된다.

김치(金緻?)의 오언절구(五言絶句)

斲石非神斧(돌 깎아 다듬음에 신의 도끼 안 썼을걸)
 渾淪肇判開(천지개벽 시 이미 쪼개어져 열린 곳)
 白雲千萬歲(흰 구름 감쌌이 천만 년간 이어져 와)

仙俗幾多來(그 사이 신선 속인 얼마나 많이 찾았을까)

乙酉 春 金 織(을유년 봄 김치)

작자 김치(金織, 1577~1625)는 경상도 관찰사,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안흥군(安興君)에 봉해지기도 했다. 저서로 《심곡비결》(深谷秘訣), 《남봉집》(南峰集)이 있다. 광해군 1년(1609)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했고 이듬해 이임했다. 그는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조희순(趙義純)의 오언절구(五言絕句)

線通花徑轉(가늘게 난 꽃길을 이리저리 돌아드니)

斧鑿石門開(도끼로 다듬은 듯 정교한 돌문 열려 있네)

已透參同秘(참동비전 스며들어 이미 구현되었거늘)

休嫌俗子來(나 같은 속인 찾아움을 꺼려하지는 마오)

己巳 四月 吉日 牧使 趙義純(기사년 사월 길일 목사 조희순)

전설의 창조

용신에 대한 민속적인 신앙숭배는 유럽, 인도, 중국 등에 퍼져 있다. 용은 뱀 신앙에 의한 신앙습속과 파충류 화석에 대한 인간들의 상상이 깊어져 탄생한 신비의 동물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용은 사천왕(四天王)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용에 대한 신앙은 구름, 번개를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영력을 가진 동물로 숭배되어 왔으며, 국가 수호신적인 위상을 지녀 왕을 상징하거나,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호족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한국의 해안가에서는 정초에 용왕제(요왕제), 영등제 등 당곳 의례를 치르는데, 이는 무사안녕과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습속이다.

한편 마을에서는 안녕과 복을 얻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만약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연못의 용왕신을 위해서 흰 종이에 용을 그려놓고 용신제를 지낸다. 이는 용왕으로 상징되는 해신과 용신사상이 습합된 의례 형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 용연에 얽힌 전설(제주도, 《제주도전설지》, 2004) 역시, 이와 같은 용에 대한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사고를 잘 간직하여 기우제 형식의 용신제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옛날 제주 섬에 칠년대환(七年大旱)을 만나 구년흉년(九年凶年)이 든 때가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기우제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허사였다. 이곳저곳에서 굶어죽는 백성들도 있었다. 관가에서마저도 하늘만 쳐다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고 있을 즈음에 제주목(濟州牧) 안에서 기우제를 올려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소문은 동헌의 사또 귀를 솔깃하도록 했다.

바로 그 소문을 퍼뜨린 이는 ‘고대정’이라 하는 사람이었다. 고대정은 어느 날 술이 얼근하게 취하자 “내가 기우제를 올린다면 비는 오고야 말 것이야!”라고 했던 것이었다.

고대정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관가로 들어가 사또 앞에 꿇어 앉았다.

“자네, 기우제를 지낸다면 비가 온다고 자신했던가?”

“그렇게 말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자신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물을 차려주신다면…….”

“자네가 요구하는 대로 제물을 우리 관가에서 준비하겠으니 기우제를 올려라.”

고대정에게는 그 말이 하나의 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굿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서두름과 함께 7일 정성에 들어갔다. 굿을 쳐야 할 날이 밝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용연 윗언덕 ‘당팻’이라고 하는 평지에다 굿막을 쳐놓고 ‘당쿨’(제단)을 차려 제물을 올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날 짚을 연결하여 묶어서, 신다섯 발 길이의 용을 만들었다. 이는 고대정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만저만한 인력이 소모된 게

아니었다. 만들어진 용의 꼬리는 바로 이 용연 물에 담가 적셔놓고, 그 머리는 굿막의 당클에 올려 붙였다. 용은 금방이라도 물방울을 토해낼 듯이 아가리를 벌렸다.

“제주 절도(絶島)에 칠년 대한 만나 굶어죽는 백성 많아져 이 굿을 올립니다.” 이내 굿소리는 요란을 더해갔다. 천상천하 모든 신들이 굿판으로 몰려들 듯 고대정은 온 천지가 진동이나 하듯이 드센 울동으로 신들을 청해나갔다.

굿이 시작된 지 칠 일이 흘렀다. 마지막 축원(祝願)을 서글피 올리고 있었다.

“여러 신전(神前)님들은 고이 상(床)을 받아 제 갈 길로 돌아가시건만은, 이내 몸은 오늘 동헌(東軒) 안으로 들어가면 목이 끊기어 죽게 됩니다. 명천 같은 하느님도 이리도 무심(無心)하옵네까.”

이는 고대정의 마지막 애끓는 비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라봉(紗羅峰) 꼭대기로부터 먹장 같은 구름이 솟구쳤다. 분명 용트림을 하듯이, 금세 온 천지를 어둡게 짙게 채울 것만 같은 구름이었다.

용이 비를 몰고 오듯 이내 비는 쏟아져 내려왔다. 벌써 동헌 마당에는 사또를 비롯한 이방(吏房), 형방(刑房), 그리고 여러 섬 안의 관장(官長)들이 도포를 입고 대기하고 있었다. 용은 이내 곧추 무악에 맞춰 용트림을 부리며 동헌 마당에 이르렀다. 모든 동헌 사람들은 큰절을 올렸다. 그럴 때마다 동헌 마당 가득 용의 용트림은 계속 되었다. 비는 연이어 그날 밤이 새도록 퍼부었다.

그 후로 비를 몰고 오는 용이 살고 있는 물이라고 하여 용연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주 섬에 가뭄이 들 때면 이 용연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지금도 제주 사람들 중에는 이 용연에 비를 몰아다주는 용이 살고 있다고 믿는 이가 많다.

참고 문헌

강정식, 《감산향토지》, 감산리, 2002.

남제주군, 《남제주군의 고유지명》, 1996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선사유적' 비지정 문화재 조사보고서》, 2004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1985

현행복, 《訪仙門》, 도서출판 각, 2004.

색인

ㄱ

강정천 20, 27, 47, 94, 95, 96, 97, 98, 190, 207, 230, 231
객줏집 209
건천 13, 20, 22, 23, 34, 40, 47, 50, 51, 61, 62, 65, 70, 75, 84, 85, 103, 127, 132, 143, 144, 207, 208, 239
고승 휴량(休量) 233
굴림추색(橘林秋色) 211
금성천 8, 19, 49, 70, 71, 72, 73, 74, 75, 225, 226, 227
김광종(金光宗) 개척기념비 219

ㄴ

남사록(南槎錄) 222, 230, 232, 233
남수각 68, 69, 210, 211

ㄷ

도순천 16, 23, 47, 49, 94, 95, 96, 97, 99, 100, 187, 189, 230, 231, 232
들렁귀 222, 246, 247

ㄹ

목호 72, 184, 225, 226
무태장어 92, 184, 228, 229

ㅁ

발타라존자 232
방선문(訪仙門) 58, 59, 60, 61, 66, 120, 138, 222, 223, 246, 255, 256, 257
법화사(法華寺) 96, 97, 187, 188, 231
봉성리 71, 72, 73, 74, 119, 194, 218, 225, 226, 227
북수구(北水口) 209

ㅂ

산신제 터 59, 223
산지천 47, 49, 66, 67, 68, 69, 70, 89, 150, 151, 152, 153, 156, 178, 207, 208, 209, 210, 211
산포조어(山浦釣魚) 210
새별오름 71, 194, 225, 226
새별오름전적지 표석 226
서귀포층 91, 228
선반내(송반내) 228
선유담(仙遊潭) 221
소(沼) 안팎 채석장 214
수행굴(修行窟) 100, 232, 233
신천마장 217

ㅇ

연딿동산 224
영구춘화(瀛丘春花) 58, 138, 222, 223, 246, 247
영실 51, 96, 97, 99, 100, 187, 231, 232, 233
영천관 84, 175, 212, 213
예기소 84, 212, 213
예촌망 171, 212
오현단 69, 210, 211
왕자묘 96, 97, 99, 231

용담동 선사무덤 222
용연야밤(龍淵夜泛) 144, 221
임관주(任觀周) 120, 218, 220, 229

스

정소암 216, 249
제이각(制夷閣) 211
제주목관아지 141, 209
제주향교 142, 144, 222
존자암 100, 187, 231, 232, 233
지그프리드 겐테 233

츠

창고천 19, 20, 27, 35, 36, 49, 119, 120, 122, 123,
194, 196, 200, 201, 218, 219, 220
천미천 18, 19, 23, 26, 27, 28, 31, 33, 35, 40, 42,
49, 55, 104, 105, 106, 107, 108,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215, 216,
217, 234, 249
천미포왜란 217
천연사후(天淵射候) 229
청음 김상헌(金尙憲) 69, 211, 222, 230, 232,
233
취병담(翠屏潭) 221, 243

ㅎ

하원 96, 187, 231
하원동 분묘군 97, 231
하천 13,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5, 36, 38, 39, 40,
42, 47, 48, 50, 51, 53, 55, 56, 57, 59, 60,
61, 62, 65, 66, 68, 69, 70, 71, 72, 75, 76,

78, 79, 80, 82, 84, 85, 86, 88, 89, 91, 93,
96, 99, 100, 102,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3, 114, 115, 116, 118, 119,
120, 127, 128, 131, 132, 133, 135, 138,
140, 142, 144, 146, 153, 154, 155, 157,
163, 165, 166, 169, 170, 184, 185, 192,
196, 201, 203, 204, 205, 207, 208, 212,
213, 214, 215, 216, 218, 219, 220, 221,
225, 227, 228, 230, 234, 239, 240, 241,
242, 243, 250, 254, 269

한라산 개방 기념비 223

한지(韓紙) 내골 214

한천 4, 8, 15, 19, 23, 27, 28, 29, 30, 31, 33, 35,
36, 37, 38, 40, 42, 49, 57, 58, 59, 60, 61,
62, 66, 80, 118, 120, 140, 141, 143, 144,
217, 221, 222, 243

홍예교(虹霓橋) 210

화전동(花田洞) 74, 194, 195, 226, 227

제8권 저자들

제1장 | 김태호

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이학박사(자연지리학 전공)

《자연환경과 인간》, 《한국의 자연지리》(공저)

《황사》, 《남극과 북극의 궁금증 100가지》, 《지진과 화산의 궁금증 100가지》(번역서)

제1장 | 안중기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역임

중명기술사사무소 대표

〈다목적 용수를 고려한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모델 개발〉의 논문 19편

제2장 |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역임

(사)제주환경문화원 원장

제3장 | 장윤식

제주대학교대학원(사학과)박사수료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역임

제주4·3평화재단 팀장

《제주4·3유적 I·II》(공저) 외

제3장 |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이사 및 연구실장

제주대 사학과 강사 역임

제주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전문위원 역임

《제주4·3유적 I·II》(공저) 외

제4장 | 강문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역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역임

《제주의 하천》(공저), 《일곱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왕국》외 다수

제5장 | 좌혜경

중앙대학교 문학박사(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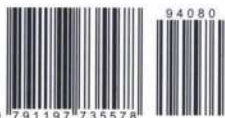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역임

《제주민요를 지키는 명창들》(2012), 《제주의 이야기 유산》(2018) 외 다수

한라산의 하천

한라산물서8



9 791197 735578

ISBN 979-11-977355-7-8

ISBN 979-11-968758-9-3 (세트)